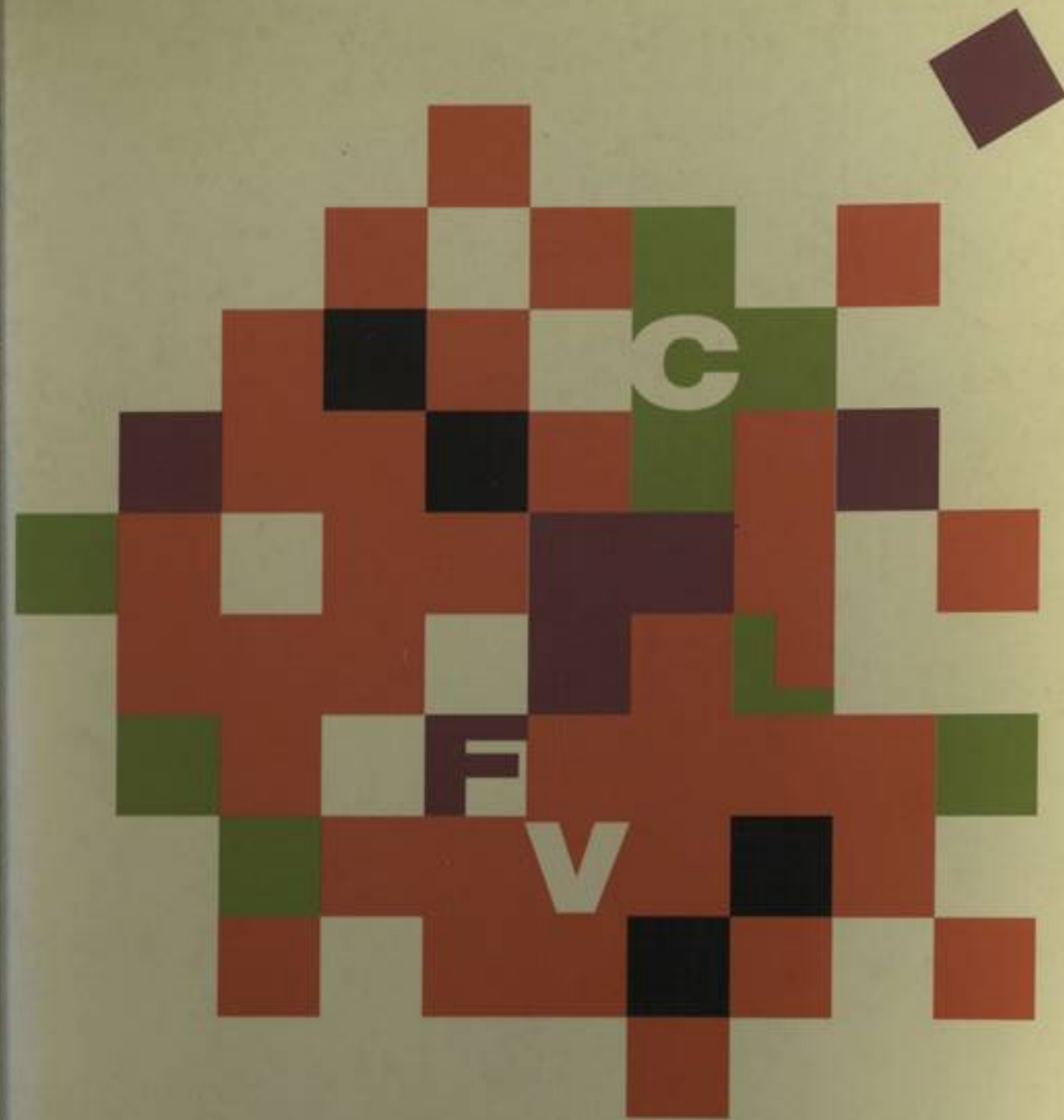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일 시 : 2000. 5. 25-5. 26 (10:00-18:00)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소극장

후 원 : 한국여성연구원 · 아시아여성학센터

이·화·여·자·대·학·교·한·국·문·화·연·구·원

여성적 가치의 지성 공동체

· 일시: 2000년 5월 25-26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소: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소극장

2000년 5월 25일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원장 정대현입니다. "여성적 가치의 지성 공동체"라는 학술회의에 여러분을 주최자로서 환영합니다. 이 주제는 새 시대의 전환기에 적절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여자대학들이 지난 세기에는 "여성교육"에서 그 과제와 정당성을 찾았고 획기적인 기여를 하여 지금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를 특징짓는 여러 단어들을 고려하면 여자대학들은 새로운 과제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새 시대는 여성시대, 정보사회, 문화세기, 등 다양한 단어들로 불리웁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자대학들이 새 시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일찍이 없었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술회의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문화연구원을 맡게 되었을 때 역할은 "여성문화의 세계화"였습니다. 이 과제를 한국여성연구원과 아시아 여성학 센터와 연대하여 추진하라는 조연도 있었습니다. 조형, 장필화, 이상화 교수님과 오랜 기간을 들여 논의하고 생각해 낸 것이 이 학술회의 주제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입니다. 이 위원회가 주제에 대해 도달한 이러한 생각을 "학술회의 취지문"(부록)으로 요약하여 참여자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학술회의를 가능케 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기조 발제와 세 개의 논문발표를 하실 선생님들은 짧은 기일 안에 이렇듯 중요한 논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패널에 참여하시는 12분의 교수님들은 입장 발표문을 준비해주시고 이러한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여자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학교 당국은 전망적인 제안과 격려를 하였고,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한국문화연구원의 스태프들은 헌신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학술회의를 통하여 하나의 비전을 향한 작은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5월 25일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원장 정대현

여성적 가치의 지성 공동체

이화여자대학교: 새 천년 컨퍼런스

(가) 여자대학의 목표 전환: 여성적 가치의 지성 공동체

(가1) 세계의 여자대학들은 지난 세대, 더 넓게는 지난 세기동안 여성교육을 위한 기회 확장과 수준 향상에 노력하였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여성교육이 여자대학의 존재의 정당화를 주는 논리적 근거는 지난 시대의 남녀차별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대응의 논리였었다.

(가2) 그러나 새 세기의 문턱에서 여성교육은 더 이상 여자대학의 존재의 정당화를 줄 수 있는 논리를 부여하지 못한다. 여자대학의 성공을 통하여 남녀차별이 현저하게 완화되었고 이 추세는 급속하게 강화되리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가3) 그렇다면 세계의 여자대학은 결국 모두 공학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여자대학에 이 질문을 묻는다. 왜냐하면 첫째, 많은 여자대학들이 이미 공학으로 전환하여 왔기 때문이다. 둘째, 공학 대학들의 여학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미국에서는 여자대학생들의 공학에서의 비율이 50%를 넘고 있고 이 추세는 얼마가지 않아 세계로 퍼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여학생들의 공학 선호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해가고 있고 이 경향은 영상문화 때문에도 되돌려질 수 없을 것이다.

(가4) 세계의 여자대학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맥락 안에 함께 서 있다. 여자대학으로서의 정체성과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공통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 세기에는 불가피했던 여성교육확대라는 논리와 가치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대체할 수 있는 논리나 가치는 무엇일까? 세계의 자매대학들은 어떤 틀 안에서 흠어지지 않고 연대하여 여성사회와 세계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가5) 세계의 여자대학들은 새 세기에 "여성적 가치의 지성 공동체"라는 이념 또는 이와 같은 가치에서 그 존재 정당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윈주의 사회 안에서 세계의 자매대학들은 모든 인간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독특한 대안적 문화의 제안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자대학"은 단순히 교육의 대상만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함께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치와 목표는 함께 추구되고

공유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 새 시대를 위한 대안 공동체: 여성적 가치의 지성 공동체

(나1) 새 시대는 "여성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완력이 필요한 노동의 시대에서 지식이 필요한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일 수 있다. 여성의 인권, 예를 들어, 투표권이 20세기에 들어 허용되어 새 세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본격화 되리라는 전망일 수도 있다. 새로운 시대의 지식 사회는 여성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보다 돋보이는 사회라는 뜻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찰들을 수용하고서도 보다 주목할 수 있는 특징은 "새 시대는 더불어 살아야 하는 생태적 시대"라는 사실이다. 인간존재는 서구의 데카르트가 주장한대로 원자적 개인이 아니라 동양 전통이 강조한 생태적 문맥의 존재라는 것이다. 새 시대의 인간들은 특히 여성들은 그러한 당위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2) "여성적 가치"라는 단어는 설명을 필요로 한다. "여성적 가치"는 대부분의 여성들 또는 여성들만이 소유하는 현실적 가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 가치들 중의 하나는 "가족의 복지를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게 간주하는 태도의 가치"일 것이다. 여기에서 의도하는 "여성적 가치"는 여성주의적일 수도 있고 종교적일 수도 있다. 인간주의적일 수도 있고 정치적일 수도 있다. 여성적 가치는 "더불어 살아야 하는 생태적 가치"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여성적"이라 불러야 할 필연성은 없지만 부르는 이유는 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비교적으로 생태적 문맥의 존재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이 그만큼 생태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여성 배제적 이었다면 여성적 가치의 패러다임은 모두를 포괄한다.

(나3) 기존 공동체의 패러다임은 승자만이 각광받는 올림픽 수월성의 구조를 가지면서 약자는 익명성에 빠진다. 모든 것은 정복자의 관점으로부터 해석되는 정복주의의 해석체계인 것이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수월성은 서양 중세의 본질주의나 보편주의에 의하여 정당화되었고 데카르트의 원자적 개인주의에 의하여 강화되고 공학적 기계문화에 의하여 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복주의는 비단 다른 인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윤리, 가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현대 문화의 많은 병폐들은 정복주의를 객관화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환경파괴, 끝없는 소비, 자원 고갈, 의사소통을 대치하는 정보구조, 해체되는 인간관계, 등은 정복주의의 현상들일 수 있다.

(나4) 대안 공동체는 어떻게 제안될 수 있는가? 정복주의의 가치에 대한 대안적 가치는 무엇일 수 있는가? 대안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가? 대안적 가치는 특정한 공동체에 의하여 생활양식이나 그 가능성으로서 확인된 것이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만큼 공허한 가치이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야 설득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는 무엇일 수 있는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생태적 시대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 가치는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에 의하여 삶에서 실현된 가치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는 일반화되어 "여성적 가치의 지성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5) 여성적 가치의 지성 공동체와 대안 공동체의 관계는 무엇인가? 지성 공동체는 대학사회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지성 공동체는 대안 공동체일 수 없다. 여성적 가치의 지성 공동체는 대안 공동체의 구성을 위하여 노력할 뿐이다. 대안 공동체는 생활양식의 대안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성 공동체는 지성의 실험장일 뿐 생활양식의 공동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적 가치의 지성 공동체는 세계적이어야 하고 대안적 공동체는 또한 세계적 범위와 설득력으로써 구성되어야 한다.

(다) 새 시대 여성학의 과제: 여성적 가치의 지성 공동체의 구성

(다1) 여성학은 전통적으로 여성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되어 왔다.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구성하기 위한 사회과학"이라는 기술이 그 한 후보이다. 여성의 역사적 조건을 미루어 볼 때 불가피한 여성학 탄생의 양식이었을 것이다. 권리를 요구한다는 것은 약자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양상을 띠고 기독교적 관점으로 부터서 그러한 양상은 흔히 투쟁적으로 또는 남성 배제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험에 의하면 여성학의 탄생은 자유의 복음이고 가능성의 빛이 된다.

(다2)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덕으로 여성조건은 급세기에 들어 많이 변화하였다. 공적 교육 기회가 세계적으로 거의 전무한 채로 시작한 20세기는 그 마감에 즈음하여 팔복할만한 여성 교육 기회의 신장을 목도하고 있다. 20세기 초에 투표권조차 없었던 여성들이 국회의원, 장관, 수상이 되기도 한다. 물론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종교나 가부장적 윤리질서에 의하여 억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여성의 조건은 전세기에 예상할 수 없었을 만큼 신장되었다고 판단된다.

(다3) 여성학은 지역에 따른 여성 조건의 수준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이슬람의 사회에서와 같은 여성의 조건 하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으로 규정된 여성학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조건이 많이 개선된 지역에서 전통적 여성학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나 필요성, 호소력이나 설득력은 그 만큼 감소할 것이다. 여성 조건이 개선된 지역에서는 여성학의 과제를 보다 보편화된 인간 조건의 향상에 목표를 올려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적 가치의 지성 공동체의 구성 과제는 그 한 후보일 것이다.

(다4) 여성학의 규정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은 비판될 수 있다. 또한 여성학의 전통적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확장된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여성학의 새 규정은 "여성적 가치"라는 이름을 가졌을 뿐 그 내용은 어떠한 윤리적 이론에 의해서도 구현될 수 있다고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태어 "여성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러한 운동을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반문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여성학의 새로운 규정은 여성적 가치의 지성 공동체를 통하여 대안적 공동체의 구성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여성적 공동체마저 해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5) 여성학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우려는 신중히 주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우려들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여성학에 대한 전통적 규정과 새로운 규정간에는 단절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다. 변화하는 인간 조건의 문맥 속에서 여성학의 본래의 이념을 일반화하고 역사적 발전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

개회 축하

창립 114주년을 맞은 이화에서 세계여성지성공동체의 내일을 모색하는 학술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Conference를 개최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문화연구원 정대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학술회에 참가하신 발표자 및 토론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회의는 매우 21세기적이고 창조적인 conference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적 가치의 지성"이면서 또한 그러한 위치에서 바로 그 조건을 반성하고 전망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학술회의의 주역이라는 점입니다. 이 주제로 마음을 합하여 한국, 일본, 미국의 지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자기지칭적이며, 또한 자기반성적인 주제가 세계적 주제가 된 것입니다.

둘째, 이 학술회의는 독립적으로 보이는 세 개의 주제들이 큰 맥락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는 강한 소명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성적 가치의 대안적 문화, 여자대학의 필요성, 여성학의 역할 등 세 주제들은 결국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라는 큰 맥락으로 통합될 뿐 아니라 상호 상승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가설은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점점 필요하고, 반론이나 제 3의 대안이 제시될 수도 있겠지만,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모델을 창출해 간다는 것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 학술회의는 새 천년의 원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는 무엇을 원할 수 있는가? 새 천년에는 어떤 삶이 가능한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새 천년에 여성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성에게 새 천년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에 부딪치면서 새 천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시대에 대한 꿈을 꾸고,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창출하는 것은 혼자서 아닌 함께 해야 하는 과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학술회의는 그러한 관심과 우려에 대한 조심스런, 신중한, 그러나 선명한 목소리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새 천년을 여성적 가치와 특성이 주류화되는 여성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여성의 세기라는 것은 일면적·편향적 가치관이 만들어낸 위기와 불균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전과 경쟁의 논리 속에 가치 절하되어온 감성, 돌봄, 타자에의 배려, 생명주의, 자연 존중 등의 여성적 가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새 시대를 창조하는 작업에 여성과 남성이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통합문명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세계의 지성, 세계의 여자대학들이 새 시대의 역할을 인식하고, 숙고하고, 모색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학술회의가 여성교육 114년의 역사를 지닌 이화에서 열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화는 여성교육의 불모지였던 19세기말 한국에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으로 설립되어 한국여성의 인간화와 근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난 세기이화가 한국 여성지성공동체의 구성과 확장에 노력해 왔다면 21세기 이화는 세계여성지성공동체의 센터이자 모델로서 이화의 교육적 경험과 자산을 나누고 세계에 기여하는 대학이 되고자 하는 큰 꿈, 큰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학술회는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를 향한 이화의 새 천년 비전을 구체화하고 선포하고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취임 이후 '여성문화의 세계화'라는 주제를 줄곧 추구해 오면서 이화 내에서 한국문화연구원, 한국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학센터가 주도적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과제는 세계의 모든 지성과 여자대학들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 나누는 보편적 과제로 확산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학술회의는 그러한 비전을 향한 하나의 중요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모색과 고심의 과정이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5월 25일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장 상

학술회의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 일시: 2000년 5월 25-26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소: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소극장

5월 25일 목요일

10:00 개 회

개 회 사: 정대현 (한국문화연구원)

축 사: 장 상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기조발제: 장필화 (한국여성연구원장·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

10:30 오전 발표 (~12:30)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Peggy McIntosh
(미국 Wellesley College · 여성학)

사회 허 라 금 (이화여대 · 여성학)

논평 1 김 태 현 (성신여대 · 가정학)

논평 2 전 호 련 (동국대 · 불교학)

12:30 점심시간

14:00 오후 발표 (-18:00)

여성학의 미래-일본의 관점에서

Hiroko Hara
(일본 放送大學)

사회 손 승 영 (동덕여대 · 여성학)

논평 1 이 영 자 (카톨릭대 · 사회학)

논평 2 장 연 집 (서울여대 · 아동학)

21세기 여자대학의 미래: 이중전략에서 양면전략으로

김 혜 숙
(이화여대 · 철학)

사회 부 정 남 (성신여대 · 사회교육학)

논평 1 Kumiko Fujimura-Fanselow
(일본 東洋英和女學院大學 · 여성학)

논평 2 Lisa Wolf-Wendel (미국 University of Kansas · 교육학)

18:00 리셉션

5월 26일 금요일

10:00 오전 토론 (-13:00)

패널 I 여성학의 미래: 학문다양성과 여성공동체

사회 조 주 현 (계명대 · 여성학)

패널 최 재 천 (서울대 · 생물학)

김 은 실 (이화여대 · 여성학)

오 진 경 (이화여대 · 미술사학)

Peggy McIntosh (미국 Wellesley College · 여성학)

13:00 점심시간

14:30 오후 토론 (-17:30)

패널 II 여자대학의 미래

사회 조 형 (이화여대 · 사회학)

패널 조 옥 라 (서강대 · 사회학)

조 무 석 (숙명여대 · 영문학)

양 옥 승 (덕성여대 · 유아교육학)

Kumiko Fujimura-Fanselow (일본 東洋英和女学院大學 · 여성학)

Hiroko Hara (일본 放送大學 · 여성학)

Lisa Wolf-Wendel (미국 University of Kansas · 교육학)

목 차

개 회 사 정대현 (한국문화연구원장)

축 사 장 상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기조발제: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장 필 화 1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페기 매킨토쉬 9

논평: A Learning Community with Feminist Values 김 태 현 29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에 대한 논평 전 호 현 32

여성학의 미래-일본의 관점에서 Hiroko Hara 35

논평: 여성학의 미래 이 영 자 49

“일본의 관점에서 본 여성학의 미래” 논평 장 연 집 53

21세기 여자대학의 미래: 이중전략에서 양면전략으로 김 혜 숙 56

김혜숙 교수의 “여자대학의 미래”에 대한 논평 구미코 후지무라-판셀로우 73

김혜숙 교수가 발표한 여자대학의 미래에 관한 논평 리사 울프-웬델 77

패널 I

여성학의 미래: 학문다양성과 지성공동체 조 주 현 87

생물학자가 본 여성적 가치와 여성학 최 재 천 91

여성학의 미래와 여성지성 공동체 김 은 실 96

정보사회 속의 미술문화와 여성주의적 논의 오 진 경 101

여성학의 미래 페기 매킨토쉬 105

패널 II

여자대학의 미래: 발제문 조 형 113

여자대학의 미래 조 옥 라 119

여자대학의 미래: 민족과 인류의 어머니를 키우는 지성 공동체 조 무 석 123

여자대학의 사명 양 옥 승 128

여자대학의 미래-일본에서의 개인적 견해 히로코 하라 135

미국 여자대학의 미래 리사 울프-웬델 136

목차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2일 금요일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학술회의
2000. 5. 25 - 5. 26

기조발제: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장 필 화

한국여성연구원장 · 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

오늘의 학술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해답을 얻고자 하는 문제와 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준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기조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매우 야심찬 것이고 또 어떤 점에서 도전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성적 가치’라는 생소한 용어에 더하여 ‘지성공동체’라는 불투명한 개념이 접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성학의 미래’, ‘여자대학의 미래’와 같은 주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변적인 주제로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비슷한 관심과 고민을 함께 하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바로 공동체 형성의 출발을 함께 하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은 수십년 이상 또는 100년 넘게 존재해 온 여자대학교에서 교육받고, 가르치고 또 행정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심을 갖는 분들 일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기복 속에서 여성고등교육기관을 이끌어 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고뇌를 배경으로 하면서 앞으로 다양하게 밀어닥칠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공통 과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자’ 대학이라는 특수성과 더불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대학’으로서 갖는 문제가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또한 전지구화의 추세속에서 대학이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지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자대학교의 구성원들, 즉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은 여자대학교로 존재해야 할 이유에 대해 적어도 한 번 짚은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여성을 위한 교육

기회가 전혀 없거나 극히 제한된 역사적 상황에서 여자학교가 필요했고 그 나름으로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이, 적어도 상대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된 사회에서도 여전히 여자대학이 존속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고 그 물음은 앞으로 세를 점점 더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녀평등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여자대학교란 시대착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큰 꿈을 키우는 씩씩한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나,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여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한 훈련은 남녀 공학에서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여기에 전제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본교에서 열린 두가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의는 오늘의 주제의 배경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한국문화연구원이 주최한 "새천년의 한국문화, 다른 것이 아름답다"라는 주제의 연속 강좌 속에서 논의된 "새천년의 시대정신으로서 여성적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여성연구원이 주최한 김활란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여성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입니다. 여성적 가치가 전자에서 분명히 표현된 지향가치라면 지성 공동체란 21세기 여성교육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후자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의 실현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전된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뿌리내림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가치가 전환되지 않으면 여성 삶에 긍정적인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여성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출발한다고 봅니다. '여성적 가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배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본질주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상화교수는 "'여성적 가치'라는 말이 내포할 수 있는 본질론적 의미에 대해서는 경계하지만, 실제적인 현실의 맥락에서 경험적 주체로서 생명을 잉태하는 구체적인 삶을 사는 여성들이 체험하는 돌봄과 타자에 대한 배려와 생명의 중시, 자연과의 친화와 같은 가치들을 소중하게 생각해 온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발전'과 '경쟁'의 논리 속에서 가치 절하되고 평가받지 못했던 감성,

돌봄, 생명중시등은 자연 파괴, 인간 소외의 현실속에서 새롭게 추구해야 할 중요한 대안적 세계관으로 만들어야 할 시대적인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셨습니다(이상화, 1999).

이렇게 여성의 몸과 체험을 중심으로 한 여성적 가치를 논하게 되면 그것이 여성 주의자들이 극복하려고 하는 남녀 역할과 기질에 대한 전통적인 이분법을 강화하게 되는 모순에 봉착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반문과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런 문제는 '여성학'이라는 학명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두가지의 반론을 펴고 싶습니다.

첫째는 '모순'이라는 개념에 대한 재고를 요청합니다. '모순'이란 어원을 보면, 모든 방패를 물리칠 수 있는 창과 모든 창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병렬적으로 늘어 놓은 것입니다. 이 둘은 형식논리적으로는 양립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들이 공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창과 방패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만들어 내는 작품이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리라는 이상을 갖고 자신들의 작업에 임해야만 합니다. 가부장제 사회는 장구한 세월을 통해 정치, 경제적 제도를 만들어 왔고, 문화와 상징의 체계와 함께 공조해 왔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를 극복하겠다는 과제를 상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많은 모순을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지적이 우리의 생각과 실천을 전개하고자하는 의지를 처음부터 좌절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는 이제까지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사회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들의 가치평가를 유일한 지배적인 가치로 만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자질을 '남성적인 것'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여성적'이라는 개념은 '남성적'과는 다른, 혹은 반대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규정 속에서 실제와는 상관 없이, '남성적'이란 상징적 개념은 항상 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 즉 이성, 합리성, 추진력, 경쟁, 적극성, 발전 등의 의미와 연결되어 왔으며, 여성적이라는 개념은 그 반대의 속성, 즉 감성, 섬세함, 유연성, 의존성, 수동성 등의 의미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것이다"라고 명명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그 주체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따라 그 비중이 결정되어 왔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이상의 논의는 곧 지식 생산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이며, 결국 우리의 주제인 '지성 공동체'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지식생산자가 어떤 주체인가의 문제는 또한 무엇을 목표로 하는 지식의 생산이며, 어떠한 지식이 가치있는 지식인가라는 평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식 생산의 한 제도로서 대학, 특히 한국 대학에 대한 평가는 일제 식민지 유산, 서구중심주의, 독재 정권, 재정문제 등의 복잡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조형교수는 대학이 취업훈련장 내지 자격증 배부처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을 지식 생산의 제도로 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지식 산업 노동 시장에서 창의적인 연구와 교육을 하기 어렵고, 또한 세분화되고 독립적인 학문 분야마다 서로 언어와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교수들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들로 인해 학문적 지성공동체 형성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은 또 하나의 가부장적 사회이며 남성 지배적 조직구조로써 운용되고 있습니다. 즉 남성지배적인 근대적 지식과 학문의 장, 남성 중심적 편견과 관행이 지배하는 또 다른 사회인 대학에서 여학생들은 무력화를 경험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성중립적'인 교과과정이 사실상 내용에 있어서는 남성적이고 남성중심적입니다. 지식은 한편으로는 해방적 기능을 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적인 권력현상입니다. 지식은 원초적으로 그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지식생산자가 지니는 자아와 환경문화요인을 내포하는 구성물이기 때문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지식 생산자의 성별은 중요한 인식론적 의미를 지닐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객관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구성된 남성의 경험과 가치와 기대에 편향되기 때문입니다(조형, 2000).

바로 이것이 "여성적 가치의 지성 공동체"를 모색하고자 하는 현실적 문제상황입니다. 저는 여성적 가치를 가부장적 가치를 극복한 가치로 이해하기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여성적 가치는 가부장적 사회를 지배해 온 경제, 정치적 영역에서, 또한 문화, 상징적 영역에서 작동하는 남성중심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의 여성주의적 가치와 만나게 됩니다. 극도로 남성화된 근대적 지식/학문체계가 적극적인 가치전환을 통해서 새로이 탈바꿈되어야 하며, 이러한 탈바꿈은 여성주의적 가치전환을 거쳐서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대학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각도로 접근하게 됩니다. 김

은실 교수는 "저항적인 집단이 저항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신들의 공간"으로서 여자대학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자대학은 언어, 자신에 대한 지식, 자신과 비슷한 다른 여성에 대한 지식이 부재한 여성들에게 여성들의 학문을 쌓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김활란 박사가 여성교육의 역사적 의미를 자기 이름을 쓰고 남의 이름을 읽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사회와 만나기 시작한다는 것의 혁명성에 두었다는 것은 이미 70여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도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주변화 되어 있는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김은실, 2000). 이러한 맥락에서 여자대학의 정당성은 '여성화된 인간론'을 인간 사회의 대안적 모델로 제시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는 정대현 교수의 주장은 여자대학이 '대안적 지성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이어집니다(정대현, 2000).

지식은 절대적이거나 확고불변한 것이기 보다는 항상 상대적이고 역사적인 것입니다. 지식이란 그 자체가 나름의 자율적인 역사를 가지면서도 광범한 인식적 틀 내에서 복잡한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지식의 사용과 의미들은 정치적으로 경합되어지고, 지식은 그 자체가 지배와 종속의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권력을 구축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누가, 어떤 내용의 지식을 생산하는가하는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지성공동체를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시대와 사회의 절실한 요구에 따라 생산되고 정당화되는 것처럼, '여성적' 가치도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부단히 새롭게 규정되고, 새롭게 정당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학술대회는 현재와 미래의 구체적인 역사가 요구하는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의 의미와 전망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겪는 주변인으로서의 위치는 사실상 '여성적 가치'라고 하는 도전적인 제목을 내걸기에는 눈치보이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힘있게 밀고 나가는 열정과 저력을 보여 주신 정대현 원장님의 용기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자대학교의 존재이유에 대해서는 오랜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논란에 대응하는 전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자대학교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변혁적 프로젝트라는 점을 명료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는 '여성적 가치'와 '여성주의적 가치'를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확실한 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거가 마련된다면 더 나아가서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뿐만 아니라, '여성적 가치의 삶과 삶의 공동체'를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리라 기대됩니다. 이 학술대회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저의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김은실. 2000. "식민지-근대와 김활란의 여성교육: 여성해방적 관점에서" 21세기 여성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김활란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편 (발간 예정)
- 이상화. 1999. "새 천년: 여성적 가치의 시대정신" 새 천년의 한국 문화, 다른 것이 아름다다,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 정대현. 2000. "토론: 조형 교수의 여성교육 패러다임" 21세기 여성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김활란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편 (발간 예정)
- 조형. 2000. "여성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21세기 여성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김활란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편 (발간 예정)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페기 메킨토쉬 9
논평: A Learning Community with Feminist Values	김태현 29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에 대한 논평	전호연 32
여성학의 미래-일본의 관점에서	Hiroko Hara 35
논평: 여성학의 미래	이영자 49
"일본의 관점에서 본 여성학의 미래" 논평	장연집 53
21세기 여자대학의 미래: 이중전략에서 양면전략으로	김혜숙 56
김혜숙 교수의 "여자대학의 미래"에 대한 논평	구미코 후지무라-판셀로우 73
김혜숙 교수가 발표한 여자대학의 미래에 관한 논평	리사 울프-켄델 77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학술회의
2000. 5. 25 - 5. 26

여성적 가치의 지성¹⁾공동체

페기 매킨토쉬

Peggy McIntosh
Center for Research on Woman
Wellesley College, U.S.A.

이화여대의 여성들은 설립 이래, 미래를 내다보며 그들이 전망하는 미래를 창조해 가는 일을 도와 왔습니다. 나는 이화여대가 보여주는 혁신과 겸손의 조화에 지대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정대현 교수와 한국문화연구원의 초청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전망하는 작업에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작은 여자 대학인 웨슬리대에서, 지대한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화여대가 후원하는 미래를 전망하는 이 작업에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제 주제는 여성주의적 가치를 지닌 지식공동체입니다. 우선 지식과 공동체라는 두 단어가 여성주의적 가치라는 두 단어와 양립할 수 있도록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를 밟아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보다는, 이 단어들에 대한 이같은 나의 결론으로 본 논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무게가 미래를 전망하고자 하는 나의 능력을 방해하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과거의 사고방식에 대한 복종이나 경외는 내 두뇌의 생동감을 사라지게 하고 그 결과 나는 미래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문제 자체로 직접 경충 뛰어올라 여성주의적 가치를 지닌 지성 공동체라는 네 단어로 집약되는 저의 결론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1) **알**. 나는 이 단어가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에서와 같은 지식을 의미하

1) knowledge를 우리말에서의 어법과 조화할 수 있도록, 맥락에 따라 '알', '지식'의 두가지 단어로 번역하였음. 학문적, 비학문적인 지식을 포괄할 경우는 '알'으로 번역하였고 학문적 지식을 지칭할 경우는 지식으로 번역하였음.

거나 “나는 역사, 혹은 심리학, 혹은 문학을 배우고 있다”라는 말에서와 같이 다른 출처나 사람들로부터 지식을 받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지식을 자신의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또한 두음절로 발음되는 “learned”라는 오래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큰 학문 서적이거나 여러 세기동안 전해져 오는 복잡한 지식으로 그의 정신이 꽂 차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여성을 “학식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지식(Knowledge)과 배움(Learning)은 나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제는 나는 앎(Knowledge)이 공식적인 학교교육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정신과 가슴, 육체와 영혼과 그들과 관련된 모든 곳에 깃들어 있는 앎으로 지극히 충만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종류의 앎입니다. 만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생활상의 앎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그들이 알게 된 것들을 단어와 예술적 형태, 의례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도록 고무된다면, 우리는 인간의 학습 능력에서 놀라운 진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한 당신의 관찰, 즉 탁월한 이론들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더 신뢰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인간다운”(manly) 또는 “남성다운”(masculine) 것에 대한 훈련이 새롭고 그것들이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아는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을 통해 보여주는 말에 대한 앎은 우리로 하여금 아이들의 말을 조롱하거나 고쳐주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몸의 언어는 그 자체로 지식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서관에 있는 지식은 보다는도 협소하고 부분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지식은 책과 논문과 같은 덩어리나 조각 상태에서 흐르는 개울물이나 강물과 같은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학자의 머리 속에 굳어져 있는 지식은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인 배움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학자들은 배움의 과정에 더 많은 흥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가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에서 여성과 문학에 대해 강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보여 준 반응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여성과 문학에 대해 청중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성과 문학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이른바 “탈 근대”로 불리우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녀가 언급한 서로 다른 두가지를 기술하기 위한 정교한 단어들, 즉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인식(perception)의 강물에 거스르는 교체화된 “주제”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안다고 주장한 것은 그녀 자신의 앎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주제” 자체를 안다고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초보자가 완전한 지식을 갖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제학, 국제관계, 전쟁, 예술, 성과 젠더와 같은 주제들에 대해 이런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이롭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배움의 장으로 번역되어, 우리가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떠오릅니다. 이것들은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 특히 부모, 교사, 전문가, 고용주나 정책 입안가 들의 손에서 지식이 이해되었을 때는 무시하라고 가르침을 받은 것들입니다.

2) **공동체.** 홀로 자신만의 체험에 집중하는 것은 외롭고 협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같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몇몇 작가들은 자기 자신만의 체험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세상에 큰 이로움을 주기는 했지만, 디킨슨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앎의 사적인 과정에 그토록 깊이 빠져들었듯이,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빠져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신비주의자들이 깊이 명상하고 난 다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이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영적 능력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배움의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에밀리 디킨슨이나 영적 신비주의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들을 비교하는 데서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의 지성을 개발합니다.

나는 공동체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세계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속에 있는 내적인 다문화(multicultural) 세계로서 공동체를 재정의하고 싶습니다. 인간 영혼(psyche)은 복합적이고 복수적입니다. 영혼은 우리를 감동시킨 적이 있거나 우리와 접한 적이 있는, 그 모든 것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 내면에는 상실된 공동체가 있고 이것은 다문화적 지구가 외부는 물론 내면에도 있으며 다문화적

세계는 우리 주변에는 물론이며 우리 내부에 있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유년기에 문화적으로 조건지워지면서 우리 각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인식, 그 집단의 소리, 능력과 서로 다른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성향을 위시한 다양한 성향들에 빗장문을 걸어잠그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대륙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거나 우리 속에 종속화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인성 영역은 식민화하는 권력처럼 개념적 공간을 채울 수 있고, 채웁니다. 그러나 복수적 이해의 잠재력은 우리에게 남아있고, 성찰적 의식을 향한 움직임은 부분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는 침묵의 대륙으로터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공동체 감수성을 회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는 알고 있었던, 그리고 많은 다양한 체험들과 호흡할 수 있었던 내적 자아를 회복하는, 각자의 내적인 공동체 감수성의 회복 또한 필요합니다. 저는 배움의 공동체를 내적이고 외적인 양 방향으로 작동하는 우리 모두의 복잡성과 반응성을 지닌, 외향적일 뿐만 아니라 내향적인 필요이며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같은 자기-성찰적인 배움 공동체를 함께-창조하고 그 속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가치라는 두 부가적 요소가 없이는 그 공동체는 순진무구하기만 해서 사람들이나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회 제목에도 나와 있으며, 내가 세 번 재로 다루고자 하는 무거운 주제의 핵심입니다.

3) **여성주의자**. 정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익명의 여성이 내릴, 즉 "여성주의자는 여성을 진지하게 취급하는 모든 사람이다"라는 여성주의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정의에 동의합니다. 여성주의자가 반드시 여성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적인 프로그램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성주의자는 분별력이 있고 상대를 존중하며 호기심이 있고 예의바르고 상냥하고 깊이 경청할 줄 아는 정신과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 중의 누가 여성 조상과 어머니의 삶을 진지하고 세심하게 대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는가? 이들의 삶을 누가 배웠는가? 이것이 여성들의 삶을 진지하게 취급한다는 면에서 이화가 그토록 두드러지는 이유입니다. 매년, 보통 아름다운게 아닌 이화의 사무 달력을 자세히 살펴보고 아시아 여성학 저널을 냈을 놓고 읽게 되며 이화가 만들어낸 「한국여성사」 책들과 「한국여성학」을

경외감을 갖고 보게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 이유에서입니다. 이같은 일은 아시아의 어떤 곳과도 견줄 곳이 없습니다.

여성을 진정으로 진지하게 다룬다는 것은 어렵고 여성을 진정으로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왜 어려운가를 물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여성주의의 두가지 면으로 이해한 것을 고려하게 합니다. 그것은 권력 유형을 관찰하고 명명하는 습관과 전혀 세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가르침을 받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보는 습관의 두가지를 말합니다. 관찰하고 보는 이 능력은 대체로 우리 내면의, 억압되어 있는 앎을 보관하고 있는 거대한 보고(寶庫)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민주의 침략자들에게 항복하고 내어준 내면의 땅을 말한다.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여성주의자 일 수 있으며 둘 다 여성주의 실천을 할 수 있고 힘과 관련해 억압받은 앎이 지닌 자산은 계급, 인종, 민족, 성(gender), 성성(sexuality), 능력, 민족성, 종교, 지역과 군국주의와 같은 모든 경험들을 망라합니다.

여성을 진지하게 취급하고 우리 내면과 밖에서 작동하고 있는 권력 체계를 관찰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주의의 세 번째 요소는 인간의 완전성을 위해 힘(power)을 공유하고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과 사회가 통합성, 완전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노예를 소유하는 관행은 권력 행사자와 권력없는 자 모두에게 해를 주었습니다. 부당하게 누리고 있는 권력의 영향력을 보기를 거부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모든 사람들에게 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이 한국에서의 태도와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미국이 양극적인 사고 방식을 발전시키고 강화하고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게 강요해 옴으로써 깊이 손상을 입고 있다고 느낍니다. 나에게 여성주의는 고통을 확인하고 치유를 추구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주의는 남성에게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주의가 여성을 진지하게 취급하는 것을 내포한다면, 그것은 남성을 새롭게 깊은 감정이입 상태에서 대하며, 보여지는 권력유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보호와 발전을 위한 힘을 재분배하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주의는 남성과 남성을 둘러싸고 있는 권력 기대를 다시 보게 합니다. 남성은 보다 많은 공적 권력을 휘두르고 보다 많은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다시 보기는 남성 쪽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청사진 그리기에서 남은 것은 무엇인가?

4) **가치.** 대회 제목에서 우리는 “여성주의적 가치를 지닌 배움 공동체”를 상상하게 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 * 모든 사람에게 있는 삶의 경험(삶)과 신성한 영성에 대한 존중;
- *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서 배우는 능력과 그들 내면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에 대한 존중
- * 상호-배움(co-learning)을 위한 공간과 집단을 이끌어내는 조직
- * 기존의 “지식”과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
- *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이전에 침묵당했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행위
- * 승/패(win/lose)의 이해 체제와 그것이 결과하는 폭력 행위를 넘어설 수 있는 결정
- * 모든 사람에 대한 호의

당신은 이 가치들이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변화된 조건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 가치들은 여성에게 사회화되는 돌봄과 열려있는 여러-마음의 자질을 통해 그같은 변화를 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여성에게만 배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나와 내 동료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맥락 안에서 내 자신 여성주의 가치를 지닌 지성 공동체(A Learning Community with Feminist Values)의 네 요소로 생각하는 교수(teaching) 활동의 두 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두 예는 매우 미미한 것이나 동시에 근본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나는 학교나 대학에서 이를 조금이라도 담은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그것들은 삶을 도서관의 책이나 강의보다는 다른 어떤 것에도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은 평점자나 심사자가 아니라 그녀 자신과 집단의 학생입니다.

‘소년’와 ‘소녀’

우선 유년기부터 당신에게 소녀 또는 소년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

일련의 소리들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적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8명내지 10명 정도로 원을 그려 앉아서 당신의 종이에 적인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읽거나 아무것도 읽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같은 작성으로 당신이 등급화되는 것은 아님을 미리 알려줄 것입니다. 그것은 제출되지 않을 것이며 집단에 선생이 있다면, 그 또는 그녀는 당신과 똑같은 것을 할 것입니다. 이 연습은 기억에 의존합니다. 작성자인 그 또는 그녀는 기록하는 소리에 책임이 없습니다. 작성자는 이전에 부모나 학교, 미디어 또는 전체 사회에로부터 훈육받은 소리를 전달합니다.

이 연습에서 중요한 것은 “잘” 하려고 또는 “옆에 사람보다 더 잘”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을 이룬 각자가 서로에게 귀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같은 실습은 유년기부터 받아 온, 깊이 묻혀 있는 영향력 있는 가르침을 끄집어 냅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상기하는 내용에 반응하여(대부분의 경우 말없이 반응하나 때로는 공감하는 소리나 웃음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자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귀기울이고 이를 분류하고, 추려내어 연결합니다. 나의 동료 에밀리 스타일(Emily Style)이 “씨클의 훈련”이라고 명한 것을 위시한, 이같은 실습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강력하게 귀기울이게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주며 추상화된, 학문적이거나 문제 중심적인 담론의 가능성의 싹을 잘라 버리는 정치적 장치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가르침에 귀기울인다면, 이것은 당신 자신이 받은 유년기의 가르침에 대한 인식 또한 깊게 합니다.

미국에서, 이 실습을 15살에서 70살까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보면, 참가자들의 목소리와 몸의 언어는 종종 그들이 성별과 또한 인종, 계급, 성(sexuality)과 관련해 받았던 훈육의 영향을 종종 드러냅니다. 공포, 회피, 자기-검열, 자기-의심, 자기-부정과 침묵의 감정이 종종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작용해 온 메시지는 그렇지 못한 많은 메시지들과 현저한 대조를 보입니다. 친숙한 규칙과 특히 엄밀한 규정에는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읽는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십년 된 메시지를 여기-지금의 경청자들에게 다시 한 번 전달해주는 매체가 됩니다.

실습은 이 실습을 행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소년”이나 “소녀”로 되는 것은 많은 훈련과 반복, 그리고 주의받음을 요구하였음을 드러내줍니다. 아무도 자동적으로, 쉽게 만족스러운 “소년”이나 “소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흔히 “반대” 성으로 다

른 성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인위적으로 통제된 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 미국 문화 속에서 그렇게 조건지워지는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성(gender) 규범에 그들을 맞추도록 강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과는 대조를 보입니다. “소녀” 또는 “소년”을 읽어내는 모임을 끝낼 즈음에는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받았던 것과의 연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문화적 구속, 의미, 대항 전략들로 가슴과 머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소녀와 소년” 연습은, 에밀리 스타일의 표현으로 “우리 삶의 교과서 만들기”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또한 “scholarship on the shelves and the scholarship in the selves”, 이 둘에 대한 균형감 있는 집중이라는 그녀의 요구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자메이카 킨케이드(Jamaica Kincaid)가 두 쪽에 걸쳐 쓴 “소녀”는 우리의 연습이 기초하는 선반 위에 있는 출판된 학문입니다. 모임의 모든 사람은 그의 또는 그녀 자신의 경험에 관한 권위자로 포함되어 자신만의 용어로 말하고 일련의 고백 과정에서 무언의 감탄의 몸짓이나 표정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말을 논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연습이 성별화된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깊은 내면의 발달을 드러냄으로써 성별에 대한 그 어떤 추상적 논의보다도 “성별”에 대해 더 깊은 가르침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별(혹은 체계 차원의 그 어떤 복잡한 문제)에 대한 추상적 논의는 익숙한 갈등과 반복적 논의를 초래한다는 것을 압니다. 내 견해로는 그러한 “논의”는 사람들을 서로 (불필요하게) 대립시키고 복잡한 자기 자신의 경험과도 대립한다는 점에서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녀와 소년”이라는 이같이 매우 간단한 연습을 당신에게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나 그것은 심오한 연습이며 이 대화의 제목에서 내가 느끼는 감(感)을 완벽하게 예시해줍니다. 일련의 이 같은 고백 모임은 함께 함, 복수적 경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하는, 그리고 서로로부터 비롯되는 배움, 우리의 복수적이고 갈등적이며 복합적인 내면에 대한 탐구와 학습에 기초하는 배움 공동체를 만듭니다. 여자와 남자를 진지하게 다루며 우리가 명확하게 보거나 거론할 수 있는 가르침을 받지 못한 모종의 권력관계에 초

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여성주의적 경험입니다. 그것은 모든 학생들을 선생이 되게 하고 그의 혹은 그녀의 경험에 권위를 부여하는 가치를 퍼뜨립니다. 그것은 호의로 하는 실행이지 비난이나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사회화체제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모든 정치가들, 그들의 모든 배우자들, 딸들, 장군들, 병졸과 무기 판매상이 원형으로 앉아 “소년” 혹은 “소녀”에 대한 기억의 편린을 쓰고 읽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잘못된 대립과 몸, 영혼, 정신과 마음을 그릇되게 대립적으로 투사하는 데서 비롯된 갈등과 억압과 폭력을 강요받는 과정과 고통이 정직하게 상기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로서는 여성주의 가치를 지닌 배움 공동체만이 “소녀”와 “소년”과 같은 연습을 진지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습은 45분 이내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삶을 변화시킵니다. 대학의 다른 어떤 수업 활동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여기에 여성주의 가치를 지닌 학습 공동체인, SEED 프로젝트 세미나에서 작업한 다른 두 예가 있습니다. SEED는 학교 기반에서 선생이 이끄는 프로젝트인데, SEED라는 이름은 “교육적 동등성과 다양성의 추구”를 상징합니다. 선생이 사회적, 감정적, 정치적 학습을 둘러싼 침묵과 격리를 깨뜨리는 쪽으로 행해지지 않았던 것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한, 그들은 그들이 그 안에서 사는 데 익숙하게 성장해온,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강요하는 부정적 유형을 지속시킬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의 가르침은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없거나 힘을 부여하지 못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없을 것입니다.

돌리는 노트(Passing Notes)

다음의 연습은 “Passing Notes on the Evaded Curriculum”으로 불리웁니다. 여러분은 미국에서 학생은 수업에서 서로에게 노트를 적어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가 여학생을 무시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우리 센터의 1992년 보고서에서, 우리는 권력과 고통의 모든 측면과 교사와 교과서가 통상적으로 회피하고자하는 쾌락에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피되는 교과과정이라 이름붙였습니다.

SEED 동료 Ken Harvey와 나는 1997년 봄에 섹슈얼리티에 대한 대화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이 연습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만든 논점을 검토하고 다음에는 참가자들에게 우리가 “돌리는 노트”라 부르는 것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형 수업처럼 넘기는 노트 연습은 포괄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자이며 그 누구도 선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는 경청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누구도 단순한 관찰자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대화는 그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소리를 듣는 많은 젊은 이들이 사실은 그들의 동성애에 대해 매우 분명하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지배 사회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어떤 경우에는 생활을 지속해갈 수 있는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감행합니다. 이것에 근거해 경찰 당국과 학교는 그들의 성이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환으로서 이같은 수사적 전략을 논했습니다. 성인들은 학생들에게 자기-정체감을 유보시키고 “정상적” 이성애가 지배적일 것이라는 기대에서 자기-지식을 부정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회피되는 교과과정은 성별 일반, 섹슈얼리티 일반, 특수한 동성애에 대해 침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침묵은 거대한 사회적, 정서적, 정치적 가르침과 학습의 부분이며 선생을 위시한 어른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이에 공모하고 있습니다.

“돌리는 노트”는 말없는 연습입니다. 동성애나 십대 자살과 같은 곤란한 주제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많은 사고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서로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연습 자체의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대화를 유발합니다. 종이에다 각 참가자는 자기 이름을 적고 Harvey/McIntosh 대화에 대한 그들의 독해에 대한 반응을 간단히 논합니다. 그리고 각자는 다음 사람에게 자기 논평을 넘깁니다. 종이에 적히 내용을 읽는 사람은 이에 대한 반응을 하고 종이를 접고 사인을 하고는 그것을 다시 넘깁니다. 연습이 진행되자면선 종이에 일련의 사고들이 가득 채워지는 만큼 반응을 기록하는 시간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반응을 기록하는 데 2분 쯤 걸리면 두 번째는 3분, 다음에는 4분, 5분 이렇게 늘려갑니다. 1분은 어떤 교실 문화에서는 좀 긴 듯하고 다른 교실 문화에서는 짧은 듯하고, 따라서 연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적기가 다 끝난 후 종이는 맨 위에 이름이

적혀 있는 처음의 기록자에게로 갑니다. 이제 사고하기 시작한 각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돌리는 노트”는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주제의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그것은 많은 관점을 드러내고 복잡한 생각이 드러날 수 있게 합니다. 이같은 노트에서 각자는 사실상 네 번 “말을 합니다.” 대답에 대한 첫 논평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논평에 세 번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견도 공적인 독해는 아닙니다. “선생”이나 조교는 이 “넘기는 노트”에서 언급되는 것의 그 어떤 내용도 배우지 않습니다. 이같은 연습은 나에게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상기시키는 데, 이것이 그것만의 특별한 특성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교과서를 만드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는 것을 듣지는 않습니다. 인문학적인 의견의 다양성이 바람직한 주제에 대해, 현안에 대한 많은 생각을 얻을 수 있는 이 기술은 친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습은 주제에 대해서 말할 공적인 기회, 의견을 주장하거나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문학적 토론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비공식성, 간명함과 감정을 요구합니다. 노트는 빨리 간단히 몇자 적어 옆에 사람에게로 전내지며 찬사나 평가와 같은 기대되는 반응에 편승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기록자는 자기 말이 간단하게나마 여러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반응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말없이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대화 구조는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 적는 데 참가하게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존중하게 합니다. 그것은 회피되는 교과과정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금기시되는 주제에 사려깊게 반응하는 보호된 공간을 제공하며 이같은 대화에서, 그것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삶과 죽음이 달린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돌리는 노트”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 견해 또는 자신만의 (사적인) 체험을 공공연하게 말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도 섹슈얼리티에 대한 (공적) 침묵의 빗장문을 연다. “돌리는 노트”를 통해 주고 받은 반응의 다양성을 통해, 대부분의 학문적 연구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훨씬 복잡한 몸과 관련된 생활(body-life)이 있고 이같은 토론에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과 편안함을 느끼는가의 여부, 동성애가 “자연적”

인지 혹은 "학습된 것인지", 동성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 혹은 그들 자신의 발달의 현 시점에서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등과 관련해 뒤엎힌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참가자 누구나가 인식할 수 있다. "넘기는 노트"의 주제에는 제한이 없다. 그것은 이전의 학교나 대학의 공식 담론에서는 접근하지 못했던 그 어떤 주제의 개방도 도움이 된다. 그것은 삶과 사랑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전면에서 드러내며 참가자들이 그들의 의식에서 접열되지 않은 것을 얼마나 많이 다루고 싶어했는가를 알게 하는 것을 돕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이것이 비배움적이고, 하찮은 연습이라고 느낄지 모릅니다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형태의 사랑이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여성주의적 가치의 지지 속에서 새로운 대지를 열고 배움-공동체 전략을 시도하는 심오하고 비범한 실천입니다. 그것은 심리학, 문화이나 여성학과 같은 보다 더 공식적인 연구에 이끄는 훌륭한 연습입니다.

위지의 정지화

이 세 번째 연습은 수학 선생인, 존 컨트리맨(John Countryman)이 그녀가 학생들의 "수학 자서전"이라 명한 것을 유도해내기 위해 고안된 연습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그들과 수학이 포함되는 분명한 순간을 상상하고 그것에 대한 네가지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 당신 외에 누가 있습니까?
-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컨트리맨은 다음에는 학생들에게 두 번째 순간에 대해 적으라고 했습니다(이 작은-이야기를 불란서 말인 단상vignette이라고 부르자). 첫 번째 글이 주로 부정적이라면, 두 번째 것은 긍정적이어야만 한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글이 부정적이며, 그 학생은 긍정적인 글을 써내는 데 애를 먹는다는 것을 알았다. 컨트리맨이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뒤따른다.

"한국과 나", "박물과 견학과 나", "전쟁과 나" 등과 같은 주제로 단상을 쓰게 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네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를 상상해봅시다. 주제는 "돈과 나"입니다. 과거에 돈과 관련된 분명한 순간을 기억하세요. 이 질문들에 답해보세요:

-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 당신 외에 누가 있습니까?
-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이 연습을 해본다면 당신과 나는 2분 동안 쓸 것이고 다음에는 원형 모임을 이용해서 30초 안팎의 시간에 "나는 ...에 있다"로 시작하여 각 질문에 답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회피되고 경험되지 않은 여러 유형들은 현재 시점에서 단상으로 말하거나 현재에 과거의 감각을 회상해서 재구성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참가자들은 그들이 배경을 제공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참가자들은 일반화된 상황에 대해 말을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는 그림의 틀 안에 자신을 결코 자리매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림 안에 자신을 자리매김하지만 돈과는 분명한 상관이 없는 것들을 상세하게 파고 듭니다. 어떤 이들은 단상을 써내기는 하나 그들이 기술한 것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자기-검열 없이 돈에 대해 말하는 능력을 드러냅니다.

사회적, 정서적, 정치적 주제와 같은 어려운 주제에 대한 공포는 타당합니다. 이 연습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를 자기 자신만의 경험에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서전적인 이야기 속에 자기를 자리매김하고 이야기를 자기자신에 자리매김하는 것은 글이 만든 그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디서 위치하고 있는가를 성찰할 수 있게 합니다. 돈에 대한 단상의 대부분은 권력을 내포하므로, 그것들은 사회관계는 물론 권력관계도 강조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위치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밖에 누가 있는가라

는 질문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행해지고 목격되고 말해지며 사고되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라는 종종, 상처로 얼룩지거나 당혹스러운 느낌, 분노, 공포, 부끄러움, 자부심, 슬픔, 깨달음과 같이 토론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를 꼬집어냅니다. 모임 분과에서 단상을 읽거나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말은 일련의 고백이 펼쳐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과 결합되면서 방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바의, 돈의 복잡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들은 이야기에 대해 다소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첫 번째 단상이 부정적인 어조라면 두 번째 단상은 긍정적인 것으로 또한 그 반대로, 두 번째 단상을 쓰는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몇몇 참석자가 “돈과 나”라는 제목으로 긍정적인 단상을 써내는 데 어려워 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은 첫 번째의 “부정적” 단상을 되풀이 하는데,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교실 구조에서 그들이 처한 위치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켜 긍정적으로 이해되거나 경제적 용어로 볼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변화시킵니다.

연습은 아드리enne 리치(Adrienne Rich)가 “위치의 정치학”이라 명한 것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킵니다. 과거의 특정한 순간을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것은 특수하게 자리매김되어 있는 경험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위계 체계에서 일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며 모든 사람이 다양한 “장”(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게 합니다. 그 누구도 단순한 피해자나 가해자, 피억압자나 억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정한 장에서 일정한 면에, 그리고 일정한시간에 모종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우리의 복잡한 “위치의 정치학”은 혼합된 감정과 사회관계에서의 뒤엉킴을 빚어내는데, 보통 전통적인 학교 교육은 이런 것들을 인식하거나 명료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연습에서 언급되는 단상은 어제, 오늘, 지난 주나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단상을 듣는 것은 민주주의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고 “담화의 장이 고르다”는 생각이 퍼져 나갑니다. 그러나 자료나 논거를 추상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교과서를 만드는” 연습은 미국의 A.K.Rice Group Relation 대회에서 종종 언급되는 통찰, 즉 “자료는 교실에 있다”는 것은 확인시켜주기도 합니다. 미국에

서 계급관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투표소에 가거나 다른 교과서들을 찾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서는 우리에게 의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작동됩니다. 내 생각은 이화 학생들의 교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정서적, 정치적 배움의 도전은 교실에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요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상이 경제학 이론 연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단상은 관련되는 것들을 배우는 토대가 되며 학생들은 이미 그들의 경험 속에서 경제학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급여, 승진, 압력, 칭찬, 상, 위신과 권력을 위시한 재화와 자원을 보다 더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학의 영역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성을 연구하고 여성학을 대학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려 애쓰고 있던 20년 전에, 전통적으로 훈련받은 백인 교수의 위치에서 본, 다섯가지의 상호작용하는 정신의 틀을 기술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교과과정과 개인 변화의 “상호작용적인 다섯 국면”을 기술하였는데, 이 변화는 전통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1국면: 무지. 당신은 여성을 연구하지도 않으며 당신이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2국면: 예외. 당신은 “다른 류”(unlike their kind)로 이해되는 여성, 따라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여성을 연구합니다. 3국면: 문제제기. 당신은 권력관계,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이성애주의, 식민주의, 반유태주의, 계급주의, 군국주의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합니다. 이것은 무지와 예외의 1국면과 2국면보다는 엄청난 향상이지만 여기서 문제제기를 멈추고 더 멀리 나가지 못한다면, 당신은 여성주의 가치를 지닌 배움 공동체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 2, 3국면 모두 삶은 꼭대기 대 바닥, 억압자 대 피억압자, 가해자 대 피해자, 식민자 대 피식민인간의 전쟁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승/패, 이거나/아니거나의 이같은 도식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만의 개인적 영혼의 위엄과 복잡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추상적이며 많은 갈등으로 뒤덮인 문제제기 국면을 넘어섬으로써, 4국면: 체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의 못에 존재하는 모든 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식인이며, 모두 선생이며 모두 학생이며 배우는 모든 것은 진보적으로 작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움의 토대는 자아에 기초하는 학문과 강단 위의 학문과의 적절

한 혼합입니다. 우리는 교과서를 읽고 우리의 삶으로 교과서를 만듭니다. 앞에서 기술한 세가지 연습은, 3국면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체현되어 우리 자신의 기초 자료로 되기 위해서는 4국면에 다가가야 합니다. 3국면 없는 4국면의 이야기는 감상적이라는 말했지만, 4국면의 체험 없는 3국면의 문제들은 모든 것을 거둬들여 나 와 너, 이집과 짐, 죽음과 죽임을 당함, 정의와 불의와 같은 단순한 갈등의 똑같은 이야기로 만들어버립니다.

5국면은 포괄성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질서를 부수며 사는(국면 I-III) 능력과 공생적 삶(국면 IV)을 만들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국면 IV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능력을 보며 발전시킵니다. 미국 사회에서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공식적으로 받는 학교 교육은 직업, 재산, 명성과 권력을 얻기 위한 전쟁으로서의 삶, 그리고 사회의 단위로서의 개인에 너무나도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관계, 돌봄, 창의성, 상호관계, 다양하게 복합된 정신과 영혼을 탐구하는 데 지적인 힘과 사랑의 힘은 거의 쓰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이같은 배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사회와 세계의 짜임새에 어떻게 손상을 입히고 있는지를 연구할 지적인 힘이나 정서적인 힘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인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정한 도구로 시간을 얻어내고 정확하게 말하는 교수법을 제공해 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철학적 용어로 인식론적 자각으로 부르겠습니다.

여성주의 가치에 몸담고 있는 학자는 때로는 지지적이며 비논쟁적인 집단 구조 내에서 4국면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문과 공동체 생활을 엮는 대학교 밖에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I 국면의 방식으로 강의하거나 II 국면의 방식으로 몇몇 학생들과 "토론하며" 자료를 학문적으로 검토함으로써 III 국면에 빠져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I, II, III 국면은 여성주의 가치를 지닌 배움 공동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은, 자기 생활을 지식(Knowledge)의 일부 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시켜야 하며 학생이 자기 자신의 체험, 특히 회피된 교과과정이라는 그녀의 체험에 유일한 권위는 아닐지라도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과제나 기획 또는 인턴십이나 여행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을 믿는 학생이 바로 미래의 희망이다. 그것은 학생들이 아는 것을 믿을 것을 가르

치는 용기를 내게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아는 것이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은 스스로 교육받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성인들에게 부끄럽고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 학교와 대학교들에서 가르쳐 온 세월들 속에서, 상호적인 4국면의 연습을 고안하기 시작했던 때만큼 고맙고 즐거운 때가 없습니다. 나는 내 학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힘을 얻고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격리에 종지부를 찍고 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성주의를 가르치는 논문과 책에서 많은 유용한 주제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만의 특수한 가정에서 겪었던 IV국면의 체험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하는 데 이는 가르침, 배움, 알,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하는 대화의 정신에 기인합니다. 이것들에 대한 재고는 나에게 모든 종속의 전통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기여할 뿐인 많은 두꺼운 책들과는 반대되는, 체현된 알과 소박한 고백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1985년 장필화 교수의 수업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 프로그램은 21명의 여성학 석사 후보를 두고 있는 세계 "최초"의 것이었습니다. 장교수는 나의 맨 처음 국면 이론 논문(1983)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꼼꼼하게 읽었고 우리가 매우 다르고 반대되는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세계를 반 바퀴나 돈 먼 곳에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서로를 진지하게 대한다는 사실에 경외감이 들었고 감동받았습니다. 다음에는 1995년에 장교수, 셔리 미스키(Shirley Miske), 정대현 교수와 함께 아시아 여성학 대회를 조직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나는 여성학을 매우 진지하게 대하며 언어가 사고와 행위를 어떻게 형태지우는가에 대한 자신만의 깊고 세심한 인식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정교수에게 대단한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이 학자분들과 대화여대는 진실로, 미국의 미래 교육을 발전시켜 가기 위해 그 외의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외부인인 우리를 초대해주신 것에 대해, 그들이 차이를 넘어서 진정으로 배움 공동체를 키워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운 것보다도 서로 서로 더 공평하고 더 공정하게, 그리고 즐겁게도 사는 것이 핵심적인 여성주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References

- Belenky, Mary, Blythe Clinchy, Nancy Goldberger, and Jill Mattuck Tarule. *Women's Ways of Knowing: The Development of Self, Voice, and Mind*. New York: Basic Books, 1986.
- Bunch, Charlotte, and Sandra Pollack. *Learning Our Way: Essays in Feminist Education*. Trumansburg, N.Y.: The Crossing Press, 1983.
- Clark, Beverly Lyon, Heather Braun, Susan Dearing, Kerry-Beth Garvey, Karen Gennari, Becky Hemperly, and Michelle Henneberry. "Giving Voice to Feminist Criticism, a Conversation." In *Teaching Theory to Undergraduates*, edited by William Cain and Dianne Sadoff.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1993.
- Collins, Patricia Hill.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Boston: Unwin Hyman, 1990.
- Culley, Margo, and Catherine Portuges, eds. *Gendered Subjects: The Dynamics of Feminist Teaching*. Boston: Unwin Hyman, 1990.
- Culley, Margo, and Catherine Portuges, eds. *Gendered Subjects: The Dynamics of Feminist Teaching*.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5.
- Davis, Barbara Hillyer. "Teaching the Feminist Minority" *Women's Studies Quarterly* 9, no.4 (Winter 1981): 7-9.
- Elbow, Peter. *Writing Without Teacher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Fisher, Berenice. "What Is Feminist Pedagogy?" *Radical Teacher* 6 (1978): 18, 20-25.
- Freire, Paulo. *The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1970.
- Gabriel, Susan, and Isiah Smithson, eds. *Gender in the Classroom: Power and Pedagogy*. Urbana and Chicago: Univesity of Illinois Press, 1990.
- Gilligan, Carol, Nona Lyons, and Trudy Hammer. *Making Connections: The Relational Worlds of Adolescent Girls at Emma Willard School*.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Hartman, Joan E., and Ellen Messer-Davidow, eds. *Engendering Knowledge Feminists in Academe*.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91.
- Hooks, bell. *Ain't I a Woman: Black Women and Feminism*. Boston: south Band Press, 1982.
- Krupnick, Catherine. "Women and Men in the Classroom: Inequality and Its Remedies." In *On Teaching and Learning*. Journal of the Derek Bok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Harvard University (May 1985): 18-25.
- Logan, Judy. *Teaching Stories*. New York: Kodansha International, 1997.
- Lorde, Audre. *Sister Outsider*. Freedom, Calif: Crossing Press, 1984.
- Luke, Carmen. "Feminist Politics in Radical Pedagogy.." In *Feminisms and Critical Pedagogy*, edited by Carmen Luke, and Jennifer Gore, pp.25-53.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92.
- Maher, Frances. "Toward a Richer Theory of Feminist Pedagogy." *Journal of Education* 169, no. 3(1987): 91-99.
- Maher, Frances A. and May Kay Thompson Tetrault. *The Feminist Classroom: An Inside Look at How Professors and Students Are Transforming Higher Education for a Diverse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1994.
- Martin, Jane Roland. "Becoming Educated: A Journey of Alienation or Intergration." *Journal of Education* 167, no.3(1985): 871-84.
- McIntosh, Peggy. "Feeling Like a Fraud I" Working Paper No. 18, Stone Center. Wellesley College, 1985.
- _____. "Feeling Like a Fraud, II" Working Paper No. 37, Stone Center, Wellesley College, 1985.
- _____. "Interactive Phases of Curricular Re-Vision: A Feminist Perspective." Working Paper No. 124. Wellesley College, Wellesley, MA, 1983.
- _____. "Interactive Phases of Curricular and Persoal Re-Vision with Regard to Race." Working Paper No.219,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Wellesley, MA, 1990.
- _____. "White Privilege and Male Privilege: A Personal Account of Coming to See Correspondences through Work in Women's Studies." Working Paper No. 189,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Wellesley College, Wellesley, MA, 1988.
- McIntosh, Peggy and Emily J. Style. "Faculty-Centered Faculty Development." From *Looking Ahead: Independent School Issues & Answers*, edited by Patrick F. Bassett & Louis M. Crosier, 1994, Avocus Publishing, Inc., Washington, DC., pp.125-131.
- _____. "Social Emotional, and Political Learning" Printed in *Educating Minds and Heart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nd the Passage into Adolescen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99, pp.137-157.
- Miller, Jean Baker. *Toward a New Psychology of Women*. Boston: Beacon Press, 1986.
- Nelson, Cathy and Kimm Wilson, eds. *Seeding the Proc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 Anthology*. Plymouth, MN: Minnesota Inclusiveness Program, 1998.

- Rich, Adrienne.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5, no.4(1980): 631-60.
- Schniedewind, Nancy, and Frances Maher, eds. "Feminist Pedagogy." *Women's Studies Quarterly*(Fall & Winter 1987), special issue.
- Spelman, Elizabeth V. *Inessential Woman: Problems of Exclusion in Feminist Thought*. Boston: Beacon Press, 1988.
- Style, Emily J. "Curriculum as Window and Mirror." In "Listening for All Voices: Gender Balancing the School Curriculum." Summit, NJ: Oak Knoll School of the Holy Child, pp.6-12.
- . "In Our Own Hands: Diversity Literacy." *Transformations* 6, no.2(Fall 1995) 64-83. The New Jersey Project Journal.
- Tannen, Deborah. "Teachers' Classroom Strategies Should Recognize That Men and Women Use Language Differently." *Chronical of Higher Education*, June 19, 1991, B1-B1.
- Wehmiller, Paula Lawrence. "The Miracle of the Bread Dough Rising." Philadelphia, PA. Friends Council on Education, 1887.

논평: A Learning Community with Feminist Values

김 태 현

성신여대 가정관리학

1. 이 글은 여성학자들의 (과거의 여성학에서 전진한) 보편적인 주장을 반영하여, 한국의 여자대학 특히 이화여대에서 이러한 주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쓴 글이다. 결국 인간발달과 관련한 철학적인 관점에 기반을 두고 글을 썼다. 그리고 16쪽부터의 5개의 interactive frames of mind (Oblivion, Exceptions, Issues, Experience, Inclusiveness)에 관한 부분이 이 글의 독창적인 주장이며 높이 평가한다.

2. 우선 이론적인 주장을 보면, learning, community, feminist value 모두 노년학 분야에서 주장하는 성인 및 노인기의 바람직한 발달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 (1) learning(knowledge): 기존의 가치체계나 학문체계에서 확립된 explicit knowledge가 아닌 everyday life에 관한 implicit knowledge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내면과 외부세계의 주체가 되는 인간상의 육성을 교육의 목표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어떠한 기존의 지식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 보다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통합하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2) community: 스스로 지식체계의 주체가 되는 능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공유하는 (compare, discuss) 경험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내면 self를 재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다

양한 것들을 수용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반응적인 성향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3) feminist value: 필자는 feminist value야 말로 바로 위에서 언급한 특성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가치체계라고 본다.

필자의 주장은 두가지로 나뉜다. 기존의 사회질서에서 획득한 the habit of observing and naming patterns of power를 벗어나야 하고, 또한 여성 만이 아니라 남성까지 통합하는 완성된 의미에서의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위의 3가지 개념에서 나타난 것은 보다 '성숙한 사고력'을 갖춘 여성의 양성이 라는 교육 목표이다. 이 성숙한 사고력을, 토론자가 보기에는, 여성학적 가치에 갖다 붙인 것은 좀 무리한 느낌이 들고, 오히려 노년학에서 말하는 postformal thinking, wisdom등의 개념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4. 필자가 제시한 방향은 여자대학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경향과 부합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말하는 성숙한 사고력은 21세기의 지도자적 자질에 필수적이다. 그러면서 여자대학 특히 이화여대의 특성-여성을 위한 교육기관, 여성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일류지향의 목표, 기독교적 정신-을 살리는데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대학은 청년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는 최종 교육기관이므로, 성인으로서의 성숙된 자질을 키워준다는 점에서도 부합된다.

5. 한편으로는 유교적 인간관과도 유사하다. feminist value의 learning community의 개념이나 성숙한 사고력의 노년학 개념이나 모두 유교에서의 이상적인 인간관과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한국의 여자대학이 이 방향을 지향하는 것은 지나치게 서구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한다는 명분도 설 것이다.

6. 그렇다면, 어떻게 성숙한 사고력을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이다. 대학에서 여성의 발달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지만 필자는 feminist value에서 언급한 '기존의 사회질서에서 획득한 the habit of observing and

naming patterns of power를 벗어나야 하고, 또한 여성 만이 아니라 남성까지 통합하는 완성된 의미에서의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mind frame을 약간 제시하기는 하였다. 필자의 주장으로서 five interactive frames of mind을 보면 phase 4와 5에 가서야 성숙한 사고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일 뿐 다른 방안은 없는 것 같다.

7. 한국에서도 여자대학이 학부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 (1) 전공영역 중 수요자 중심이니 하면서 인기전공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 (2) 성숙한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전공영역도 역시 병행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삶의 본질에 대한 숙고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 종교학 및 인간 삶의 중심인 everyday life에 대한 knowledge와 insight, planning을 다루는 응용학문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에 대한 논평

전 호 련
동국대 불교학

여성학을 전공하지도 아니한 제가 여성학의 센터인 이화여대에서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새 천년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Peggy McIntosh 교수님의 논문에 논평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고도 외람되이 생각합니다.

폐기 교수님의 말씀대로 여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성주의자가 되고 각기 다양한 경험의 다문화적 세계를 공동체라 할 때, 여러분과 다른 복색인 승복을 입은 저도 불교적 입장에서 생각한 견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이 학술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문제에 대한 불교 내에서의 제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폐기 교수님의 논문과 관련하여 몇 말씀 올리는 것이 충분히 양해되리라 믿습니다.

교수님이 재 정의한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는 불교의 평등공동체를 강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당시 카스트 계급제도의 사회에서 계급제도를 철저히 비판하고 평등한 불교공동체를 형성하여 확산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불교공동체내의 모든 제자는 똑같은 한 부처님 제자로 불리었으니 마치 어떠한 강물이라도 바다에 도달하면 원래의 이름을 버리고 대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로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교 교단 내에 여성출가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평등한 불교공동체는 우리들의 행위인 업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라문교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하고 천한 종성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귀하고 천함은 그 사

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업이 ‘인’이 되어 주위의 ‘연’과 함께 화합해서 과보가 발생하는 인과관계를 연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일성인 평등의 자각과 공존의 법칙인 연기의 자각이 나와 다른 이를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다양함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은 공동체 삶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폐기 교수님이 제시한 “배우는 공동체”의 세 가지 배움의 방법이 새시대의 공동체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게 합니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교수님의 방법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수님이 소개하신 연습의 방법이 “여성적 가치의 배움의 공동체”의 네 가지요소를 모두 포함하지만 학문적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만약 학문적으로 논한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요?

둘째, 현재로는 단지 “여성적 가치를 지닌 배우는 공동체”만이 “소년과 소녀”라고 불리는 그러한 연습을 진지한 것으로 간주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소수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이가 바로 그 배우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일원이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바꾸어 말하면 여성문제나 여성적 가치에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쉽게 대화의 장소에 참여시킬 수 있는지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우며, 여성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대다수의 남성들이 여성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셋째, 수학자서전이라는 방법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아 과거의 초상화를 현재에 재구성하는 연습이며, 이 연습은 현재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보통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당시는 깨닫지 못하다가 먼 훗날 세월이 흐른 뒤에야 흘러간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 당시 달리 행동했더라면 하는 반성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미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과거화 시켜서 미래의 과거로서의 현재인 지금의 초

상화를 그려보는 일을 연습하는 것 또한 현재의 삶을 스스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같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나 현재의 초상화를 그리는 대신에 현재를 미래의 시점에서 그리는 현재의 초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넷째, 새 시대를 맞이하여 새 공동체의 구성을 논의하는 일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대나 장소와 상관없이 본질적인 인간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종교와 여성의 문제도 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종교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며 지구인의 대다수가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성학이 발달하여 여성조건이 많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종교의 보수성은 여전히 미해결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종교와 여성문제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 천년을 기획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신 한국문화연구원장이신 정대현 교수님을 비롯하여 조형 장필화 이상화 선생님 등 주최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성학의 미래-일본의 관점에서

히로코 하라

Hiroko Hara

放送大學 · 여성학 · 일본

에머리투스

Emeritus

Institute for Gender studies 전임연구소장,
Ochanomizu University · 여성학 · 일본

1. 서론

나는 이화여자 대학교의 한국 문화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여성적 가치의 지성 공동체 라는 이번 회합(conference)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이번 회합을 개최하시는 데 노고가 크신 정대현 교수님과 동료 교수이신 조 형 교수님, 장 필화 교수님, 그리고 이상화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나는 1970년대 이래로 인도의 자매들과 협력하여 여성학을 특히 아시아적 관점에 입각해서 학문 분과로 개척하고 설립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온 이화 여자 대학교의 전체 지적 공동체에 대해서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다.

오늘, 나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에 대해 이미 익숙한 분들이 계실 줄 알지마는 우선 일본의 최근 흐름을 접하지 못한 참석자들에게 여성학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거칠게 개괄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에 나는 여성적 가치의 지적 공동체의 영역에서 여성학의 미래에 대해 제가 바라는 바를 묘사하려고 한다. 이 글의 두 번째 부분에서 나는 (1) 여성학과 남성학, 그리고 性(gender)에 대한 연구와 (2) 인도적인 인간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문제들(issues)을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나는 상아탑과 적극적 행동주의 사이의 상호 관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II. 일본에서 과거와 현재의 여성학

II-1. 일본에서는 여성학의 설립 이전에 여성들이 있었다

1925년 여성의 능력(Imo no Chikara)이라는 소논문에서 뛰어난 남성 민속학자인 야나기타 쿠니오(Yanagita Kunio)는 얼마만큼 일본 여성들이 일본 문화와 사회에서 본질적 구성 인자인가를 기술한 바 있으며, 일본 문화와 민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일상 생활과 활동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것이 제대로 문서화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래서 그는 일본 전역에 걸쳐서 학계 외부에 놓여 있는 여성 민속학자들과 민속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들로 하여금 일상적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러한 여성들의 발견을 출판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마을과 도시들을 방문하도록 격려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성 민속 연구 집단(Josei Minzokugaku Kenkyukai)이 (1934년에) 설립되었고, 광범위한 정보가 교환되었다. 1942년에서 1944년에 이르는 2년 동안에 모리구치 타리(Moriguchi Tari)의 가족 안에서의 사람들의 삶(Machi no minzoku)을 비롯해서 야마카와 키쿠에(Yamakawa Kikue)의 사무라이 가족의 여성들(Bike no josei), 오토 유키(Oto Yuki)의 일본의 아동 양육(Koyarai)와 에마 미에코의 히다라는 山村의 여성들(Hida no onnatachi)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저서들이 출판되었다. 이 출판-시기는 일본 사회와 역사에 대한 야나기타와 미쿠니 쇼보(Mikuni shobo) 출판사의 깊은 통찰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이와오(Iwao)와 하라(Hara)의 저서, 1979, 100쪽] 그렇지만 저의 의견으로는 그가 계층화되고 性-차별(gender-biased)을 지닌 사회에서 한결같지 않은 권력 분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는 1차 세계 대전이 종식될 즈음에 前戰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 최초로 가장 잘 알려진 논쟁인 모성에 대한 보호와 지지에 관한 논쟁을 벌이는 동안에 표면화되었고[자세한 사항은 카메다(Kameda)와 후지무라 판세로우(Fujimura-Fanselow)의 저서, 1995년 157쪽 참조], 1950년대의 가정 주부들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1950년대 중엽의 소위 주부 논쟁(Housewife Debate)[위의 책, 174쪽]을 통해서 가시화되었다.

II-2. 학문적 분과로서의 여성학

1970년대 후반 동안에 미국의 여성주의 학문의 영향하에서 4개의 전문적 조직들이 일본에서 형성되었다. [위의 책, 172~173쪽] 그것들은 국제 여성학 집단(Kokusai josei gakkai/International Group for the Study of Women), 일본 여성학 협회(Nihon Joseigaku Kenkyukai/Womens Studies Society of Japan<WSSJ>), 일본 여성학 학회(Joseigaku Kenkyukai/Society for Women Studies-Japan)와 일본 여성학 연합(Nihon Joseigakkai/Womens Studies Association of Japan)인데, 일본의 가장 큰 집단은 그 회원이 대략 600명에 이르고, 1991년 이래로 일본 학술원(the Science Council of Japan<SCJ>)에 등록되었다. 일본 학술원의 제15차 회기(1991-1994) 동안, 카토 하루에코(Kato Harueko)는 사회학의 후원자에서 회원이 되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를 통해서 학문 분과로서의 여성학의 적절한 방향과 목표에 관련된 소위 이노우에(Inoue) 對 하라(Hara)와 이와오(Iwao)의 논쟁이 있었다. 일본 여성학 학회의 회원인 이노우에는 여성학이 여성을 위한, 여성에 관한, 여성에 의한 것 이어야 하고 엄격하게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국제 여성학 집단에 속한 하라와 이와오(1979)는 여성학이 기존의 학과들의 연구에 혁신적이고 가치 있는 접근 방식을 제공해야 하고 그 결과 타분과와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했다. 나의 짧은 에피소드가 제가 말하려는 바를 분명히 밝혀줄 것이다. 내가 미국의 3개 도시인 필라델피아와 시카고,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여성 해방 운동과 처음으로 조우했던 1970년 이래로 저의 의향은 결코 남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구조를 발생케 하고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이노우에의 저서, 1981과 하라의 저서, 1981] 성-차별적이 아니거나 혹은 여성주의에 호의적인 남성 학자들을 선택하고 여성 상대자들과 협력하는 것이었다.

여성학 연구와 관련 강의들을 행하는 수많은 대학과 대학교에 의해서 일본은 꾸준하지만 다소 느린 진보를 이룩해 왔다. 1983년 이래로 코쿠리쥬 쥬진 교이쿠 카이칸(Kokuritsu Fujin Kyoiku Kaikan)이나 혹은 전국 여성 교육 센터(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re<NWEC>)에 의해서 시행된 전국의 고등 교육에서 제공된 여성학 강의에 대한 연별 조사는 이러한 경향을 밝혀주고 있다(그림 1). 2천 년대의 대학교

가운데 단 3개의 대학들만이 여성학으로 학사나 혹은 이보다 더 고등 과정에 해당하는 대학원에서의 박사과 석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두 개의 국립 여자 대학교 가운데 하나인 오차노미즈 대학교(Ochanomizu University)와 공립 대학교인 오사카 여자 대학교(Osaka Womens University)와 한 곳의 사립 대학교인 요사이 국제 대학교(Josai International University)가 그러한다. 1999년 오사카 여자 대학교는 부전공으로서 여성학에 대한 학사 학위를 수여하기 시작했다.

II-3. 대학 내 연구소들과 기타 유사 기관들의 역할

2000년 4월 현재 일본에는 15개의 연구소나 연구기관들이 있고, 그 중 12개가 대학과 전문대(junior college) 내에 위치한 것이다(표 2). 그들 중 대부분은 연구원이 부족하고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연구자들과 관련된 개개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 남성 관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경에서 기차로 한 시간 거리인 Saitama 현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 여성 교육 센터(NWEC)는 1978년 설립된 이래로 국내 외의 연구자, 행동가(activist), 공무원, NGO 구성원들, 그리고 관련된 개개인들을 위한 회합의 장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여성이지만 남성 참여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II-4. 여성 문화 및 여성학에 대한 연구와 젠더 연구

이 분야에 있어서의 다른 학과 안에서는, 연구자들과 일본 정부 간에 괴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안정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왔다. 나는 우선 이것을 도움이 될만한 두 개의 에피소드로 설명할 것이다.

1976년에 여성 문화에 대한 문서보관소(Archive)인 Josei-bunka Shiryo-kan은 오차노미즈 대학 도서관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일차적으로 "여성 문화(Women's Culture)"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이차적으로 연구를 맡고 있다. 내가 그곳의 교수로 있었던 1986년에, 이 문서보관소는 문자 그대로 풀면 여성 문화 연구 센터라고 번역되는 Josei-bunka Kenku Sentah로 바뀌었다. 나의 동료인 TSUTSUMI

Seiji교수와 TACHI Kaoru교수와 오랜 토론 끝에, 우리는 이 문자 그대로의 번역을 채택하지 않고, 우리의 연구소를 "여성학 연구소(The Institute for Women's Studies)"라고 명명하기로 결정했다. 1985년에 여성 문화에 대한 문서보관소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가 Ministry of Education에 제출했을 때, 우리는 여성학(Women's Studies)이라는 용어 혹은 일본어로 Josei-gaku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대학 행정자들은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 급진적"이라면서 사용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우리가 Josei-bunka 와 같은 보다 온건한 표현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Ministry of Education은 그 당시 일본에 있는 98개 국립대학(현재 99개)중 하나인, 오차노미즈 대학에 있는 연구소의 변형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에 관해 Ministry of Finance와 협상을 하지 못했다(TSUTSUMI, 1987, pp.125-126).

다음 에피소드는 1980년대 중반에 일어난 것으로, 그때는 여성학 연구소가 JendahKenku Sentah로 바뀌고 있을 때였다. 1994년 우리가 우리 연구소의 확장과 변형 건에 대해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오차노미즈 대학의 최고 행정자가 jendah(gender)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반대하면서, Josei-gaku(women's Studies)로 대체하라고 권고했으며, 반면, TOSHITANI Nobuyoshi교수와 TACHI Kaoru교수, 그리고 나는 "gender"란 말을 사용하고 싶었다. 흥미롭게도, 더 자유주의적(liberal) 관점을 가진 새로운 최고 행정자가 도착한 1995년 4월에, 상황은 완전히 변했다. 그는 "gender"란 말이 우리가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gender"란 말에 해당하는 일본어의 대체어를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소는 일본어로 JendahKenku Sentah, 영어로 Institute for Gender Studies라는 공식 명칭 하에 1996년에 문을 열었다. (TOSHITANI 1998, pp.3-8) 우리 연구소와 다른 유사 기관들의 개원으로 젠더 연구는 비록 느리게나마 그 단어가 일반적인 공식용어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진보를 이루고 있었다. TACHI Kaoru는 특별히 젠더의 개념에 대한 분석적 논문들과 그녀가 주도하고 있는 젠더 연구소 안에서의 여러 프로젝트들로 인해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TACHI1994; TACHI1996; TACHI1998; TACHI1998; TACHI 1999).

최종적으로 빠뜨려서는 안되는 중요한 질문은 단지 여성학만이 여성의 문제들을 조명하도록 추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젠더 연구와 여성학이 상호 공존해야 하되, 젠

더 평등의 원리에 따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건설적인 전망을 보여주는데 있어서 총체적/통합적이며 유망한 젠더 연구 쪽에 좀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를 문제이다. 나는 물론 후자의 관점이다; 사실 나는 1980년대의 여성학의 성격과 목표에 관한 논쟁- Inoue대 Hara와 Iwao로 잘 알려진-의 주요 논쟁자 중의 한 사람이다 (KAMEDA와 FUJIMURA-FANSELOW, 1995, p.164).

III. 일본에서의 여성학과 젠더 연구의 미래

III-1. 나의 개인적 견해

나는 거시적 관점으로부터 여성학과 젠더연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힌 통찰력있고 인상적인 주장을 해온 인도의 여성학의 선구자인 Neera DESAI에 전적으로 동조한다. Pooja Juyal이 언급한 것처럼 그녀는 1999년에 NWEF에서 개최한 여성학과 젠더 연구 교육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하나의 직업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로서의 교육의 목적을 확고히 하려 노력하고 있는 도상에 있다."

나는 지식은 젠더, 계급, 민족성, 그리고 다른 사회문화적 규준의 문맥 안에서 여성의 권한 부여를 위해 현실세계 안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것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그들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 여성학, 남성학, 그리고 젠더 연구 간의 공생과 시너지의 가능성에 달려 있다. TACHI Kaoru는 이것이 몇몇 단계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한다(TACHI 1999, pp.28-39): 우선, "지식"은 그 자체를 여성학과 젠더 연구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혁신시켜야 하며, 그 때 근대 학문들은 젠더화 en-gendered되어야 하며, 모든 영역의 연구를 중요시하는 관점을 수립해야 한다.

III-2. 특수 목표

여기에 그들 영역들을 열거할 것인데, 내가 생각하여 제안한 연구의 주제들은 여성학, 남성학, 젠더 연구의 세 분과의 연구 안에서 특별한 발전을 보여야 한다.

- (a) 몸에 관한 연구: 신체 이미지, 섹슈얼리티, 건강, 가족 계획, 의학/간호학, 생체 공학, 노화, 불임 치료/요법, 인구 연구(population studies)

- (b) 여성과 약자에 대한 폭력 연구
(c) 세계 경제와 노동; 노동자의 교섭, 매춘, 국가 경제에 대한 연구
(d) 국가 정세, 계급, 소수 계층에 대한 연구
(e) 사회 정책(사회 복지에서부터, 복리와 인권 향상에 이르기까지의)
(f) 여성주의 관점에 의한 법률 연구
(g) 교육에 대한 연구
(h) 젠더, 계급, 그리고 민족성ethnicity의 관점으로부터의 인류 역사에 대한 연구: 후기-식민주의, 식민화된 경험과 식민통치를 한 경험, 중심부에 의한 역사와 주변성에 의한 역사
(i) 환경적 조사environmental research: 환경과 발전 유지
(j) 사회 발전과 인류 발전으로서의 발전에 대한 문제들
(k) 예술art 연구
(l) 기술technology에 대한 연구
(m) 정보 공학과 인터넷 문헌에 대한 연구, 그리고
(n) 기타의 주제들

IV. 결론

요약하자면, 여성학과 젠더 연구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지식의 조직organization을 재구성함으로써, 번영하는 세계와 푸르른 지구를 위하여 인간과 인간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사명을 위해 "상아탑"과 "행동주의" 간의 상호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Bibliography

Books/Articles in English

- Fujieda, Miyoko and Kumiko Fujimura-Fanselow, "Women's Studies: An Overview," In *Japanese Women: New Feminist Perspectives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Kumiko Fujimura-Fanselow and Atsuko Kameda (eds.), The Feminist Press, 1995, pp. 155-180.
- Fujimura-Fanselow, Kumiko and Atsuko Kameda (eds.), *Japanese Women: New Feminist Perspectives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e Feminist Press, 1995.

Books/Articles in Japanese

- ミランダデービス編, 鈴木研一譯『世界の女性と暴力』明石書店, 1998 (Davis, Miranda (ed.), translated by Ken-ichi Suzuki, *Sekai no josei to boryoku*, Akashi shoten, 1998, originally published as *Women and Violence*, Zed Books, 1994)
- 合穀美江, 齊藤毅憲監修『女性のキャリア開発とメンタリング—行政組織を事例にして—』文眞堂, 1998 (Gotani, Miye, supervised by ? Saito, *Josei no kyaria kaihatsu to mentaringu—gyoseisoshiki wo jirei ni shite*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Mentoring—In the Case of a Bureaucratic System), Bunshindo, 1998)
- 萩原弘子船橋邦子「専門教育科目としての女性学—大阪女子大学の場へ」日本女性学会学会誌六號編集委員会編『女性学』vol. 6, 1998, pp. 71-81. (Hagiwara, Hiroko and Kuniko Funabashi, "Senmon kyoiku kamoku toshiteno joseigaku Osaka joshi daigaku no baai (Advanced Curriculum in Women's Studies: A Report from Osaka Women's University)," *Joseigaku* (Women's Studies), Nihon Josei Gakkai shi 6 go henshu iinkai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Women Studies Association of Japan) (ed.), *Joseigaku* (Women's Studies), vol. 6, 1998, pp. 71-81)
- 韓明淑「韓國の女性政策定過程における女性運動の役割—『性暴力特別法』制定運動の事例を中心として」日本女性学会学会誌五號編集委員会編『女性学』vol. 5, 1997, pp. 86-107. (Han, Myeong Sook, *Kankoku no josei seisaku kettei katei ni oiten josei undo no yakuwari—Seiboryoku tokubetsuho seitei undo no jirei wo chushin toshite* (The Role of the Women's Movement in the Making of Women's Policy in Korea: The Case of the Special Law Against Sexual Violence), *Joseigaku* (Women's Studies), Nihon Josei Gakkai shi 5 go henshu iinkai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Women Studies Association of Japan) (ed.), vol. 5, 1997, pp. 86-107)
- 原ひろ子「女性文化研究也ソターの十年(昭和 61年~平成7年度)」お茶の水女子大学女性文化研究也 ソター年報 第9, 10号, 1996, pp.209-244(HARA, Hiroko, "Josei-bunka Kenkyu Sentah no junen CA Decade of the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Ochanomizu University(1986-1996)", *Ochanomizu Joshi Daigaku Josei*

Bunka Kenkyu Sentah Nenpo(Bulletin of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nos. 9 and 10, 1996, pp.209-244)

- 原ひろ子「人間研究の視点としこ」女性学研究会編『女性学をつくる』勁草書房, 1981, pp.67-72(HARA, Hiroko, "Ningen Kenkyu no Shiten toshite" In *Joseigaku wo tsukuru*(Establishing Women's Studies), Joseigaku Kenkyukai(society for Women's Studies-Japan)(ed.), Keiso shobo, 1981, pp.67-72)
- 井上輝子「女性の, 女性による, 女性のための学問」女性学研究会編『女性学をつくる』勁草書房, 1981, pp.55-61(INOUE, Teroko, "Josei no josei niyoru joseino tameno gakumon(studies for women, about women, and by women)" In *Joseigaku wo tsukuru*(Establishing Women's Studies), Joseigaku Kenkyukai(Society for Women's Studies-Japan)(ed.) Keiso shobo, 1981, pp.55-61)*
- 井上輝子『女性学への招待』新版, 有斐閣, 1997 (Inoue, Teroko, *Joseigaku heno shoutai* (Introduction to Women's Studies), new edition, Yuhikaku, 1997)*
- 岩本美砂子「女のいない政治過程—日本の五五季體製における政策定を中々に」日本女性学会学会誌五號編集委員会編『女性学』vol. 5, 1997, pp. 8-39 (Iwamoto, Misako, *Onna no inai seiji katei—Nihon no 55 nen taisei ni okeru seisaku kettei wo chushin ni* (Political Process Without Women: Japanese Political Decision-Making under 55-nen Taisei)," *Joseigaku* (Women's Studies), Nihon Josei Gakkai shi 5 go henshu iinkai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Women Studies Association of Japan) (ed.), vol. 5, 1997, pp. 8-39) 岩男麻美子, 原ひろ子「女性学とはじめ」講談社, 1979 (Iwao, Sumiko and Hiroko Hara, *Joseigaku kotohajime* (Introduction to Women's Studies), Kodansha, 1979.
- 女性学研究会編『女性学をつくる』勁草書房, 1981(Joseigaku Kenkyukai (Society for Women's Studies-Japan) (ed.), *Joseigaku wo tsukuru* (Establishing Women's Studies), Keiso shobo, 1981)
- 金井淑子「女性学の『週辺』からの『女性学』再考—日本の女性学の次なるステージへ」日本女性学会学会誌六號編集委員会編『女性学』vol. 6, 1998, pp. 82-92. (Kanai, Yoshiko, *Joseigaku no shuhen karano joseigaku saiko—nihon no joseigaku no jinaru suteji he* (Reconsidering Women's Studies from the Margin), *Joseigaku* (Women's Studies), Nihon Josei Gakkai shi 6 go henshu iinkai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Women Studies Association of Japan) (ed.), *Joseigaku* (Women's Studies), vol. 6, 1998, pp. 82-92.)
- 賀穀恵美子「男女共学の内実と男女平等教育—公立高校の現場から」日本女性学会学会誌六號編集委員会編『女性学』vol. 6, 1998, pp. 58-70. (Kaya, Emiko, *Danjo kyogaku no naijitsu to danjo byodo kyoiku* (Co-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in Japanese Schools—The Case of a Public High School), *Joseigaku* (Women's Studies), Nihon Josei Gakkai shi 6 go henshu iinkai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Women Studies Association of Japan) (ed.), *Joseigaku* (Women's Studies), vol. 6, 1998, pp. 58-70.)
- 日本ジェンダー学会編, 富士穀あつ子, 伊藤公雄監修『ジェンダー学を学ぶのために』世界思想社, 2000 (Nihon Jenda Gakkai (Gender Studies Society in Japan)

- (ed.), supervised by Atsuko Fujitani and Kimio Ito, *Jendagaku wo manabu hito no tameni* (For People Learning Gender Studies), Sekaishissha, 2000)
- 日本女性學會學會誌五號編集委員會編『女性學』特集女性と政策定過程, vol. 5, 1997 (Nihon Josei Gakkai shi 5 go henshu iinkai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Women Studies Association of Japan) (ed.), *Joseigaku* (Women's Studies), Special Issue Josei to saisaku kettei katei (Women and Policy-Making Process), vol. 5, 1997)
 - 日本女性學會學會誌六號編集委員會編『女性學』特集教育の場からジェンダーを問う, vol. 6, 1998 (Nihon Josei Gakkai shi 6 go henshu iinkai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Women Studies Association of Japan) (ed.), *Joseigaku* (Women's Studies), Special Issue Kyoiku no ba kara jenda wo tou (Interrogating Gender from the Education Front), vol. 6, 1998)
 - 西川祐子, 荻野美穂編『男性論』イ文書院, 1999 (Nishikawa, Yuko and Miho Ogino (eds.), *Dansei ron* (Male Theories), Jinbun shoin, 1999.)
 - 太田ふみ子「『ジェンダー』が市民権を得るまで—性教育の多様化からスタートして」日本女性學會學會誌六號編集委員會編『女性學』vol. 6, 1998, pp. 46-57. (Ota, Fumiko, Jenda ga shiminken wo erumade—seikyoiku no tayoka kara sutato shite (Getting Citizen's Rights for Gender: Starting from the Diversification of Sex Education), *Joseigaku* (Women's Studies), Nihon Josei Gakkai shi 6 go henshu iinkai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Women Studies Association of Japan) (ed.), *Joseigaku* (Women's Studies), vol. 6, 1998, pp. 46-57.)
 - 館かおる「日本及び諸外国における大學等の女性學研究施設」『お茶の水女子大學女性文化研究センター年報』第8号, 1994, pg. 147-222. (Tachi, Kaoru, Nihon oyobi shogaikoku ni okeru daigaku to no joseigaku kenkyu shisetsu (Institutes for Women's Studies in Universities in Japan and Overseas), *Ochanomizu Joshi Daigaku Josei Bunka Kenkyu Senta Nenpo* (Bulletin of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no. 8, 1994, pg. 147-222.)
 - 館かおる『女性學とジェンダー』『お茶の水女子大學女性文化研究センター年報』第9, 10号, 1996, pp.87-196 (TACHI, Kaoru, "Joseigaku to Jendah (Women's Studies and Gender)", *Ochanomizu Joshi Daigaku Josei Bunka Kenkyu Senta Nenpo* (bulletin of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9-10, 1996, pp.87-196.
 - 館かおる「學校におけるジェンダーフリー教育と女性學」日本女性學會學會誌六號編集委員會編『女性學』vol. 6, 1998, pp. 8-29. (Tachi, Kaoru, Gakko ni okeru jenda furii kyoiku to joseigaku (Gender-Free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Its Linkage to Women's Studies), *Joseigaku* (Women's Studies), Nihon Josei Gakkai shi 6 go henshu iinkai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Women Studies Association of Japan) (ed.), vol. 6, 1998, pp. 8-29.)
 - 館かおる「ジェンダー概念の検討」『お茶の水女子大學ジェンダー研究センター年報 ジェンダー研究』第1号, 1998, pp.81-96. (TACHI, Kaoru, "Jendah Kenkyu Senta no genjo to tenbo (Present and Future Status of the Institute for Gender Studies)", *Ochanomizu Joshi Daigaku Jendah Kenkyu Senta Nenpo* (Journal of

Gender Studies, Ochanomizu University), no. 1, 1998, pp.3-8.

- 館かおる「大學における教養教育とジェンダー—女性學ジェンダー論講座による『知』の轉回—」『教育學研究』第66巻, 第44號, 1999, pp. 28-38. (Tachi, Kaoru, Daigaku niokeru kyoyo kyoiku to jenda-joseigaku-jenda ron koza niyoruu chi no tenkai—(Liberal Arts Education and Gender at Universities—Revolution of Knowledge through Lectures on Women's Studies and Gender Theory, *Kyoikugaku kenkyu* (Pedagogic Studies), vol. 66, no. 44, 1999, pp. 28-38.)
- 利谷信義「ジェンダー研究センターの現状と展望」『お茶の水女子大學ジェンダー研究センター年報 ジェンダー研究』第1号, 1998, pp.3-8 (TOSHITANI, Nobuyoshi, "Jendah Kenkyu Senta no genjo to tenbo (President and Future Status of the Institute for Gender Studies)", *Ochanomizu Joshi Daigaku Jendah Kenkyu Senta Nenpo* (Journal of Gender Studies, Ochanomizu University), no. 1, 1998, pp.3-8.
- 堤精二「女性文化研究センター設#にあつこ」『お茶の水女子大學女性文化研究センター年報』堤一号, 1987, pp.125-126. (TSUTSUMI, Seiji, "Josei-bunka Kenkyu Senta secchi ni atatte (Establishing the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Ochanomizu Joshi Daigaku Josi Bunka Kenkyu Senta Nenpo* (Bulletin of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no. 1, 1987, pp.125-126)*
- 上野千鶴子「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青土社, 1999 (Ueno, Chizuko, *Nashonarizumu ando jenda* (Nationalism and Gender), Seidosha, 1999)
- VAWW-NET Japan (バウネットジャパン)編『戦時性暴力をどう裁くか』國連マクドゥーガル報告全譯, 凱風社, 1998 (VAWW-NET Japan (ed.), *Senji Seiboryoku wo do sabakuka* (How Should Wartime Sexual Violence Be Ruled in Court), translation of UN McDougall Report, Gaifusha, 1998)*
- 渡邊和子, 金谷千恵子編『女性學教育ネットワーク '95: 關西の女性學教育の調査・實踐報告』, 1995 (WATANABE Kazuko and Chieko KANETANI (eds.) *Joseigaku kyoiku nettowaku '95: Kansai no joseigaku kyoiku no chosa/jissen hokoku* (network for women's studies education in '95: Survey and working report on women's studies education in Kansai), 1995)*
- サンドラ・ウィットワース, 武者小路公秀他監譯『國際ジェンダー關係論—批判理論的政治經濟學に向けて』藤原書店, 2000 (Sandra Whitworth, Kokusai Jenda kankei ron Hihanriron teki seijikeizaigaku ni mukete, translated by Kimihide? Mushakoji et al., Fujiwarashoten, 2000, originally published as *Femin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owards a Political Economy of Gender in Interstate and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Macmillan Press, 1994, 1997)

- (ed.), supervised by Atsuko Fujitani and Kimio Ito, *Jendagaku wo manabu hito no tameni* (For People Learning Gender Studies), Sekaishissha, 2000)
- 日本女性學會學會誌五號編集委員會編『女性學』特集女性と政策定過程, vol. 5, 1997 (Nihon Josei Gakkai shi 5 go henshu iinkai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Women Studies Association of Japan) (ed.), *Joseigaku* (Women's Studies), Special Issue Josei to saisaku kettei katei (Women and Policy-Making Process), vol. 5, 1997)
 - 日本女性學會學會誌六號編集委員會編『女性學』特集教育の場からジェンダーを問う, vol. 6, 1998 (Nihon Josei Gakkai shi 6 go henshu iinkai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Women Studies Association of Japan) (ed.), *Joseigaku* (Women's Studies), Special Issue Kyoiku no ba kara jenda wo tou (Interrogating Gender from the Education Front), vol. 6, 1998)
 - 西川祐子, 萩野美穂編『男性論』イ文書院, 1999 (Nishikawa, Yuko and Miho Ogino (eds.), *Dansei ron* (Male Theories), Jinbun shoin, 1999.)
 - 太田ふみ子「『ジェンダー』が市民権を得るまで—性教育の多様化からスタートして」日本女性學會學會誌六號編集委員會編『女性學』vol. 6, 1998, pp. 46-57. (Ota, Fumiko, Jenda ga shiminken wo erumade—seikyoiku no tayoka kara sutato shite (Getting Citizen's Rights for Gender: Starting from the Diversification of Sex Education), *Joseigaku* (Women's Studies), Nihon Josei Gakkai shi 6 go henshu iinkai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Women Studies Association of Japan) (ed.), *Joseigaku* (Women's Studies), vol. 6, 1998, pp. 46-57.)
 - 館かおる「日本及び諸外国における大學等の女性學研究施設」『お茶の水女子大學女性文化研究センター季報』第8號, 1994, pg. 147-222. (Tachi, Kaoru, Nihon oyobi shogaikoku ni okeru daigaku to no joseigaku kenkyu shisetsu (Institutes for Women's Studies in Universities in Japan and Overseas), *Ochanomizu Joshi Daigaku Josei Bunka Kenkyu Senta Nenpo* (Bulletin of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no. 8, 1994, pg. 147-222.)
 - 館かおる『女性學とジェンダー』『お茶の水女子大學女性文化研究センター年報』第9, 10号, 1996, pp.87-196 (TACHI, Kaoru, "Joseigaku to Jendah (Women's Studies and Gender)", *Ochanomizu Joshi Daigaku Josei Bunka Kenkyu Senta Nenpo* (bulletin of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9-10, 1996, pp.87-196.
 - 館かおる「學校におけるジェンダーフリー教育と女性學」日本女性學會學會誌六號編集委員會編『女性學』vol. 6, 1998, pp. 8-29. (Tachi, Kaoru, Gakko ni okeru jenda furii kyoiku to joseigaku (Gender-Free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Its Linkage to Women's Studies), *Joseigaku* (Women's Studies), Nihon Josei Gakkai shi 6 go henshu iinkai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Women Studies Association of Japan) (ed.), vol. 6, 1998, pp. 8-29.)
 - 館かおる「ジェンダー概念の検討」『お茶の水女子大學ジェンダー研究センター年報 ジェンダー研究』第1号, 1998, pp.81-96. (TACHI, Kaoru, "Jendah Kenkyu Senta no genjo to tenbo (Present and Future Status of the Institute for Gender Studies)", *Ochanomizu Joshi Daigaku Jendah Kenkyu Senta Nenpo* (Journal of

Gender Studies, Ochanomizu University), no. 1, 1998, pp.3-8.

- 館かおる「大學における教養教育とジェンダー—女性學ジェンダー論講座による「知」の轉回—」『教育學研究』第66卷, 第44號, 1999, pp. 28-38. (Tachi, Kaoru, Daigaku niokeru kyoyo kyoiku to jenda-joseigaku-jenda ron koza niyoruu chi no tenkai—(Liberal Arts Education and Gender at Universities—Revolution of Knowledge through Lectures on Women's Studies and Gender Theory, *Kyoikugaku kenkyu* (Pedagogic Studies), vol. 66, no. 44, 1999, pp. 28-38.)
- 利谷信義「ジェンダー研究センターの現状と展望」『お茶の水女子大學ジェンダー研究センター年報 ジェンダー研究』第1号, 1998, pp.3-8 (TOSHITANI, Nobuyoshi, "Jendah Kenkyu Senta no genjo to tenbo (President and Future Status of the Institute for Gender Studies)", *Ochanomizu Joshi Daigaku Jendah Kenkyu Senta Nenpo* (Journal of Gender Studies, Ochanomizu University), no. 1, 1998, pp.3-8.
- 堤精二「女性文化研究センター設#にあつこ」『お茶の水女子大學女性文化研究センター年報』堤一号, 1987, pp.125-126. (TSUTSUMI, Seiji, "Josei-bunka Kenkyu Senta secchi ni atatte (Establishing the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Ochanomizu Joshi Daigaku Josi Bunka Kenkyu Senta Nenpo* (Bulletin of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no. 1, 1987, pp.125-126)*
- 上野千鶴子「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青土社, 1999 (Ueno, Chizuko, *Nashonarizumu ando jenda* (Nationalism and Gender), Seidosha, 1999)
- VAWW-NET Japan (パウネットジャパン)編譯『戦時性暴力をどう裁くか』國連マクドゥーガル報告全譯, 凱風社, 1998 (VAWW-NET Japan (ed.), *Senji Seiboryoku wo do sabakuka* (How Should Wartime Sexual Violence Be Ruled in Court), translation of UN McDougall Report, Gaifusha, 1998)*
- 渡邊和子, 金谷千穂子編『女性學教育ネットワーク '95: 關西の女性學教育の調査・實踐報告』, 1995 (WATANABE Kazuko and Chieko KANETANI (eds.) *Joseigaku kyoiku nettowaku '95: Kansai no joseigaku kyoiku no chosa/jissen hokoku* (network for women's studies education in '95: Survey and working report on women's studies education in Kansai), 1995)*
- サンドラ・ウィットワース, 武者小路公秀他監譯『國際ジェンダー關係論—批判理論的政治經濟學に向けて』藤原書店, 2000 (Sandra Whitworth, Kokusai Jenda kankei ron Hihanriron teki seijikeizaigaku ni mukete, translated by Kimihide? Mushakoji et al., Fujiwarashoten, 2000, originally published as *Femin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owards a Political Economy of Gender in Interstate and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Macmillan Press, 1994, 1997)

Table 1

Number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Offering Women's Studies and Related Courses

	Number of Institutions						Number of Courses Offered					
	1983	1985	1987	1990	1992	1996	1983	1985	1987	1990	1992	1996
Four-year universities:												
National	10	17	21	27	37	42	13	31	43	54	79	106
Public	5	4	6	10	9	8	5	7	9	13	16	17
Private	34	35	45	86	88	132	45	66	88	167	195	363
Junior colleges:												
National	0	0	0	1	1	4	0	0	0	1	1	4
Public	3	6	6	10	14	14	3	13	14	20	24	27
Private	23	34	50	117	119	155	28	49	107	208	197	268
University of the Air	0	0	0	0	0	1	0	0	0	0	0	5
Total	75	96	128	251	268	351	94	166	261	463	512	786

Sources: Kokuritsu Fujin Kyoiku Kaikan. *Heisei ninendo koto kyoiku kikan ni okeru joseigaku kanren koza kaisetsu jokyō chosa kekka hokoku*(Survey of courses on women's studies and related subjects i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Japan[fiscal 1990]) (Saitama-ken: Kokuritsu Fujin Kyoiku Kaikan, 1991); Kokuritsu Fujin Kyoiku Kaikan, *Koto kyoiku kikan ni okeru joseigaku kanren kamokuto no jokyō-Heisei gonen dochosa hokoku*(Status of courses on women's studies and related subjects i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Japan-1993 survey report) (Saitamaken: Kokuritsu Fujin Kyoiku Kaikan, 1994); Kokuritsu Fujin Kyoiku Kaikan, *Koto kyoiku kikan ni okeru joseigaku kanren kamoku detabesu*(Databases on women's studies and related subjects i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Japan) (Saitamaken: Kokuritsu Fujin Kyoiku Kaikan, 1997)

Table 2

Research Institutes for Women's Studies in Universities, Colleges, and Other Similar Organs (as of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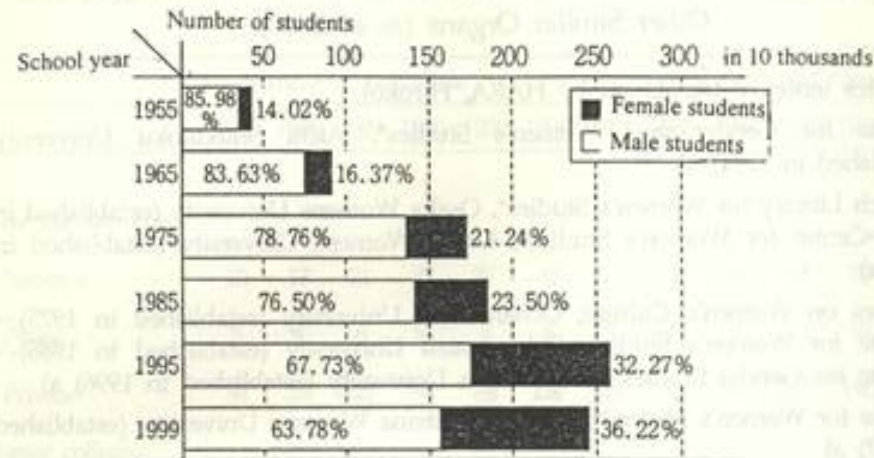
(* indicates tentative translation by HARA, Hiroko)

- Institute for Gender and Women's Studies*, Aichi Shukutoku University (established in 1994) a)
- Research Library for Women's Studies*, Osaka Womens University (established in 1990)→Center for Women's Studies*, Osaka Womens University (established in 1996) a)
- Archives on Women's Culture, Ochanomizu University (established in 1975)→Institute for Women's Studies, Ochanomizu University (established in 1986)→Institute for Gender Studies, Ochanomizu University (established in 1996) a)
- Institute for Women's History*, Kyoto Tachibana Womens University (established in 1992) a)
-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Kobe College (established in 1985)
-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Showa Women's University (established in 1986) a)
- Womens Studies Center, Center for Comparative Culture*, Tokyo Woman's University (established in 1978)→Institute for Women's Studie's*, Tokyo Woman's University (established in 1990) a)
- Center for Women's Education*, Japan Women's University (established in 1964, abolished in 1995, integrated into Research Institute*, Japan Women's University) a)
- The Center for Women's Studies*, Toyoko Women's College Cestablished in 1979) a)
- Center for Research on Culture of Everyday Life, Nagoya Municipal Women's Junior College (established in 1989) a)
-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Hijiyama Women's Junior College (established in 1982) a)
- Women's Education Center*, Mejiro Gakuen (established in 1967) a)
- Kokuritsu Fujin Kyoiku Kaikan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re) (NVEC) (a facility for life education under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established in 1977) a)
- Kitakyushu Forum on Asian Women (KFAW)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0) a)
- Tokai Institute for Gender Studies (established in 1996) b)

Source a) Tachi, Kaoru, "Nihon oyobi shogaikoku ni okeru daigaku to no joseigaku kenkyū shisetsu (Institutes for Women's Studies in Universities in Japan and Overseas), *Ochanomizu Joshi Daigaku Josei Bunka Kenkyū Senta Nenpo*, no. 8, 1994, p.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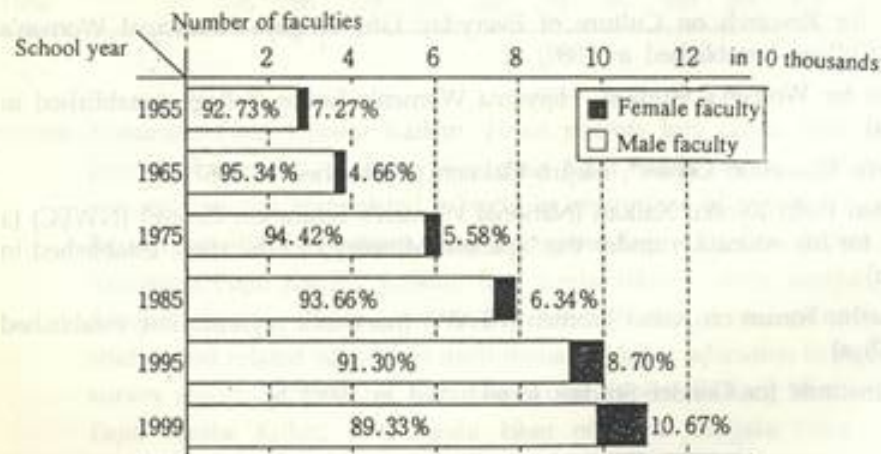
b) Takai Foundation of Gender Studies, newsletter *Libra*, no.6, June 1996

Figure 1: Changes in the Number of Undergraduate Students at Four-year Universities in Japan



Sourc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Basic School Survey* (1955, 1965, 1975, 1985, and 1995),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Interim Report on Basic School Survey* (1999)

Figure 2: Changes in the Number of Faculties (excepting assistants) at Four-year Universities in Japan



Sourc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Basic School Survey* (1955, 1965, 1975, 1985, and 1995),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Interim Report on Basic School Survey* (1999)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학술회의
2000. 5. 25 - 5. 26

논평: 여성학의 미래

(The Future of Women's/Gender Studies-A View from Japan)

이영자
가톨릭대학 사회학

하라 히로코(Hara Hiroko)교수의 ("The Future of Women's/Gender Studies-A View from Japan")에 대한 논평으로 다음의 몇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우선 내가 히로코 교수의 입장에 동의하는 점은 젠더 연구와 여성학이 상호공존해야 할 뿐 아니라 성평등의 원리를 토대로 여성, 남성을 위해 건설적인 비전들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유망하고 총체적/통합적인 젠더 연구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both gender studies and women's studies should co-exist, with more weight on the former because it is more promising and holistic/integrative in presenting constructive visions for both women and men on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내가 1991년 11월 한국의 사회학대회에서 "사회학의 사회학:페미니스트 패러다임의 사회학을 위한 시론"(Sociology of Sociology: A Study for the Sociology of Feminist Paradigm)을 발표한 것은 바로 사회학에서 젠더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젠더 연구의 관점에서 주류 사회학의 패러다임을 재조명/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 발표에서 특히 실증주의 사회학(positivist sociology)에서의 물성주의(asexual approach)의 모순, - 즉 여성의 불가시성(invisibility), 성(gender)의 생물학적 결정론(biological determinism), 성이원론적 인식론(sex-dichotomy epistemology) - 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 글은 사회학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볼때 페미니즘 관점의 젠더 연구가 어떻게 사회학의 자기성찰적/해방적/진보적/실천지향적 입장과 선택적 친화성(elective affinity)을 지니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그 당시 남성사회학자들의 반응은 동요적이었으며 당시 사회학회 회장은 "여성 사회학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들은 적이 있다. 여성사회학자들은 이 발표로 자못 고무된 분위기였다. 그러한 분위기에 힘입어서 그 이후 여성 사회학자들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로 공동집필한 [성평등의 사회학]이 1993년에 출간된 바 있다.

2.

지난 10여년동안에 사회학 내에서의 젠더 연구는 점점 활발해졌고 젠더 연구에 관심을 갖는 여성사회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사회학자들의 경우 젠더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젠더연구는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여성학적 인식론과 방법론을 사회학과 접목시키거나 이를 통해 주류 사회학의 패러다임을 재조명해보는 학문적 풍토가 조성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젠더 연구는 사회학내에서 여성학자들의 전담분야로 고착되어 성별분업(sexual division of labor)을 초래하거나 사회학내의 한 분야로 게토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사회학이 젠더 연구에 대해 폐쇄적/배타적이지 않다는 것과, 따라서 한국사회학이 결코 성차별주의적인 학문(sexist discipline)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학 내에서 젠더 연구가 새로운 사회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을 지배하는 개념, 이론, 인식론, 방법론을 재조명/재구성하는 작업들이 요구된다. 이러한 학문적 도전은 결코 여성사회학자들에게만 맡겨질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성사회학자들이 젠더 연구를 여성의 몫으로 제쳐놓은채 남성중심적인 시각(male-centered perspective)에서 남성중심적인 사회현실을 기정사실화하는 학문연구를 지속하는 상태에서 젠더 연구는 단지 사회학의 한 분야로 첨가되는 것이상으로 발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3.

나는 여성학이 성의 관점(gender perspective)에 입각한 인식론, 방법론, 이론을 새롭게 개발해냄으로써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젠더 연구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자원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여성학은 여성들의 현실과 문제들에 천착하는 학문이자 성평등을 위한 사회실천적 운동의 과제와 접근방법들을 제시하는 학문으로서 그 고유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여성학의 미래를 논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나는 보다 밀도있는 논의들을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질문과 나의 견해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히로코 교수의 입장을 개진해주기 바란다.

- '여성은 과연 하나의 동질적인 범주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여성학의 연구 자체도 여성들간에 차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 일반적인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상으로 '어떤 여성'을 지칭하는가를 명시할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학에서도 독자적인 변수로서 '여성'보다는 '젠더'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닐까?

-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사회화되어온 여성은 가부장적 가치와 규범과 세계관을 내면화한다고 볼때, 여성학에서 '여성적 가치', '여성적 관점'은 어떠한 의미로 규정되는 것인가? 이것들이 기존의 남성중심적 가치와 관점에 대한 대안적인 것으로 이해된다고 할 때,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이러한 개념들이 '여성'에 내재하는 가부장적 요소나 성이분법적 한계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가부장제에서 사회화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탈여성화/탈남성화의 문제를 경시한채, 여성을 본질주의적으로 또는 비현실적으로 이상화(idealize)할 우려가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 못지 않게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하는 문제를 여성학이나 여성운동에서 소홀히 취급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여권향상과 여성의 현실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들에게 잠재해있는 가부장적 요소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은 바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 다른 하나는 '여성적 가치'나 '여성적 관점'이 대안적 가치나 관점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여성'이라는 용어에 그대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탈성별화된(degendered) 개념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안

적 가치로서 '여성적 가치'를 말하게 될 경우 성(gender)의 범주로 국한시킴으로써 문명과 사회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의미를 오히려 희석시키기 때문이다. 탈성별화된 개념의 '여성적 가치'는 여성뿐 아니라 성불평등을 포함한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서 주변화되어온(marginalized) 다양한 범주의 약자들(alienated groups), 또는 평등을 지향하는 약자의 대변자들, 그리고 약자들을 지배해온 문명과 그 가치체계들에 도전하는 새로운 대안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 이렇게 볼 때 여성학은 성불평등사회에서의 여성 공동의 경험과 현실에 그 존립기반을 두는 여성연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하라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학문세계(modern academics)를 젠더화(engender) 하는 것이지만, 여성학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사회와 학문세계가 탈젠더화되는(degendered)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닐까?

여성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궁극적 목적은 또 하나의 여성직업창출을 위한 교육이나 여성엘리트층을 보강시켜주는 또 하나의 지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학은 또한 여성들끼리 여성들만을 위한 지성공동체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학문도 아니다. 여성학의 미래는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기존의 학문세계와 사회현실의 모순/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모색/발전시켜가는 것에 있는 것이다.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학술회의
2000. 5. 25 - 5. 26

“일본의 관점에서 본 여성학의 미래” 논평

장 연 집
서울여대 아동학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여성적 가치의 지적 공동체 conference에 참여하여 일본 여성학 연구의 권위자이신 Hara 교수의 원고를 논평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Hara Hiriko 교수께서 다룬 “일본의 관점에서 본 여성학의 미래” 원고는 일본 여성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게 한다. 이는 한국여성학의 과거와 현재를 반추케하며 여성학이라는 학문의 미래 접근 방향에 관하여심사숙고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Hara Hiriko 교수의 글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

첫째, 여성학이 설립되지 않았던 시기(1925년-1950년대 중반)의 일본 여성 삶과 과거 일본 여성의 삶과 활동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일본의 문화, 사회, 역사를 연계 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여성학이 과학적 학문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던 과거에도 여전히 여성과 여성의 삶은 존재하였다. 오늘날의 여성학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과거 일본 여성의 삶은 계층화되어 있고 성차별화(gender-biased)된 사회속에서 주체가 되는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를 잡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둘째, 오늘날의 일본 여성학(1970년대 후반-2000년도)

일본의 경우 여성학은 느리지만 꾸준한 진보를 해왔다. 이는 오늘날 일본 대학중 여성학 학부과정이나 석·박사과정이 개설된 학교는 3곳이고, 대학내에 12개의 여성

연구소가 있으며, 기타 3개의 유사기관들이 있는 것에 잘 반영되어 있다. Hara Hiroko교수는 이들 기관의 연구원과 예산의 부족이 있으나 최근 남성관계자들의 참여와 증가는 일본 여성학 발전의 희망적 싸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셋째, 미래의 일본 여성학

Hara Hiroko교수는 여성학 발전은 대학 최고 행정가들의 여성학 관련 지식 및 가치관 수준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예를 들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대학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여성문제는 여성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만 다루어져야 하는지의 물음을 통해 평등함과 통합성이란 측면에서 다 학문 분야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본다. Hara Hiroko교수가 보는 미래의 일본여성학이 보다 생동감을 갖기 위하여는 여성학, 남성학, Gender 연구가 하나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보며 gender의 연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Hara Hiroko교수는 특히 근대 학문들이 en-gendered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미래 여성학에서는 14가지의 측면(Hara Hiroko교수의 원고내용 참조)에서의 통합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과거 일본 여성의 삶과 오늘날의 일본여성학을 토대로 일본 여성학의 미래를 조망한 Hara Hiroko교수의 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시켜 볼 수 있다.

첫째는 일본여성학은 여성지성공동체와 여성생활 공동체의 간격을 좁히고 상호관계를 매우 중요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여성학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는 남성을 배제시키지 말고 여성주의에 호의를 갖고 있는 남성학자들과 협력하되 개혁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Hara Hiroko교수의 글은 1925년대 작은 논문으로부터 시작되어 2000년에 보는 일본여성학의 미래 조망을 5페이지로 일축해 놓고 있다. 글에서는 그녀의 삶이 여성학과 함께 해온 삶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고 인류학자로서의 향기를 맡게 한다. 그녀의 글에는 남녀연구의 질적 수준 고취를 통합해 보고픈 소망이 드러나 있다.

Hara Hiroko교수의 글을 접하면서 여성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한국여성학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본인은, 일본여성학에 비해 한국여성학은 보다 힘이 있고 소리가 있지만 다분히 서구적이란 느낌을 받았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미래 한국여성학은 궁

극적으로 여성학과 남성학의 세분화보다는 통합된 인간학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이는 일본여성학의 발전을 위하여 남성을 배제시키지 말고 여성주의에 호의를 갖고 있는 남성학자들과 협력하되 개혁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보는 Hara Hiroko 교수의 접근 가능성 제시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Hara Hiroko교수가 본 일본여성학의 과거와 현재의 내용 중에는 한국여성학의 상황과 유사한 중첩부분이 많다. 70년대부터 이천년대인 오늘날까지 지난 30여년간 한국여성학이 걸어온 발자취는 어떻게 축약하여 말할 수 있으며 미래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이의 답은 여성학자와 관심있는 관련자들께서 이미 갖고 계실 것이다. 다만 첨언한다면 21C의 paradigm shift는 분명 여성학 연구 분야에도 오고 있고, 여성학이 시대를 앞서가는 학문으로 자리하기 위하여는 인류의 삶의 양태 변화가 엄청나게 변화할 것이며, 이에 인간의 Quality of Life 주장은 더욱 큰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을 참조하면 어떨까라는 제언을 해본다. 변화란 오늘날은 속도가 중요한 변수가 되었지만 무엇이 변화하였는가는 내용도 중요시 되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점차 과거에 비해 신체적으로 편안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삶의 양태와는 달리 우리는 정신의 피폐현상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심신건강과 삶의 질 고취를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가, 정신적 리더십 개발을 위한 노력, 정신문화의 부흥과 지혜로운 인간상 제시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여성학은 물론이고 관련 분야에서의 연구를 진행시켜 한국여성학이 상아탑속에서의 연구를 주도하고 긍정적이고 힘을 모아주는 살아있는 학문으로 자리하기를 희망한다.

여성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여성학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본인은 감히 한국여성학 현·미래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논평의 말미로 남긴다.

- 한국여성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총체적인 삶에 어떠한 기여를 해 왔는가?
- 한국여성학이 살아있는 학문이 되기 위해 생활공동체의 간격을 어떠한 노력으로 메꿀 것인가?
- 한국여성학의 연구방향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 한국여성학은 세계의 여성학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고,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21세기 여자대학의 미래: 이중전략에서 양면전략으로

김 혜 숙
이화여대 철학

1. 대학의 개념과 여자대학

“대학교육은 이제껏 항상 소중하게 여겨왔던 인문학과 선구적 연구의 이상으로부터 물러나면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그 행태는 마치 2,500억 달러짜리 비즈니스 처럼 변모했다...지난 세기동안 전통적 대학을 정의해왔던 대형 강의실, 교수 임용, 독립된 학과와 기타의 측면에 대해 대학은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직업인, 커뮤니티, 학생들에게 좀 더 적절한 교과목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대학들은 수십년간 원하는 대로 확장해온 조직에 책임을 강요하면서 재정적 차원의 단련을 피하고 있다.”¹⁾

오늘날 대학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보편적 경제 형식으로 자리잡아가면서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진전되는 상황 하에서, 우리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를 많은 영역에서 경험하게 되었다. 교육과 관련해서 생각해본다면, 이전에는 인본적 가치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졌던 교육이 하나의 상품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과 다양한 강의매체의 개발이 큰 변화일 것이다. 학생을 하나의 소비자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교육을 상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대학사회의 운용구조와 규범을 변화시켰고 다양한 정보매체의 발달은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

의 관계변화 뿐만 아니라 수업방식 변화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학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가 대학 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지식과 교육의 질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제 대학은 시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의 브랜드로 하여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하고 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미국대학들은 하버드나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과 같은 유수의 대학을 모델로 해서 성장을 꾀하고자 하였지만 이제는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각각 모색하고 있다. 고도의 질 높은 강의와 연구를 적절한 비용 하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새로 창출되는 직업의 2/3가량은 상당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고 향상된 생산성과 경제적 성장은 고비용의 고등교육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어떤 사람은 고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외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의 분화로 보기도 한다.²⁾

서양의 중세 시대에 대학이 처음 출현했을 때 그것은 다분히 실용적 목적을 갖는 것이었다. 교회수도승, 법률사, 의사들을 길러내는 일종의 직업학교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전통적인 7개의 인문 과목(문법, 논리학, 수사학, 산수, 기하학, 음악, 천문학) 안에 통합되어있었던 넓은 의미의 과학과 예술은 신학, 법학, 의학을 위한 단순한 예비학처럼 간주되었다.³⁾ 순수한 지식 추구하고 배움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개념은 르네상스에 이르러 순수한 지적 호기심을 배경으로 하는 사설 연구회와 아카데미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학은 순수한 지식 탐구의 장으로서의 성격과 사회적인 실용적 요구에 부응하여 일정정도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배출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은 대학 안에서 상호 갈등하기도 하고 양립하기도 하면서 오늘날 대학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기술학원이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실질적 기술학교 등의 출현은 대학의 주요 기능이 실용적인 관점에서만 규정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또 오늘날처럼 대학교육이 대중화된 상황 안에서 순수 지식 추구라는 이상만을 강조할 수도 없는 상황이

1) "The New U: A tough market is reshaping colleges," *Business Week*, New York, December 22, 1997.

2) 앞 글.

3) D. W. Hamlyn, "The Concept of a University," *Philosophy* 71, 1996, 205 쪽 참조.

다. 따라서 대학은 일정 정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순수한 지식 추구의 관점에 서 지식의 전선을 확장시키고 고귀한 인간적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양면적 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양면적 책임의 양상은 대학의 기능이 세분화, 전문화되어있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위에서 기술한 대학의 기능은 여자대학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여자대학은 어떠한 모델을 설정해야 하며 대학의 이념적 기능과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굳이 여자대학이어야 하는 근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제껏 여자대학이 지녀왔던 여성교육에 대한 소명적 의식과 규범적 자기정당화의 논리는 21세기에도 통용될 수 있을 것인가? 여자대학은 변화된 자본주의 문화 안에서 상품적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한 예로 1960년대에 190개에 달하던 미국 내의 캐톨릭 계 여자대학이 현재는 28개로 줄어들었다. 남자들만 갈 수 있었던 대학들이 점차 여학생들을 받아들이면서 여학생들의 여자대학 선호는 빛을 잃게 되었고 여자대학을 지원하던 캐톨릭 계 단체들이 여자대학에 대한 지원보다는 빈민구호에로 눈을 돌리면서 캐톨릭 계 여자대학들은 고사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위싱턴에 있는 Trinity College는 여자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쓰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중 하나가 나이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소수인종과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한 것이었다. 이로써 대학은 살아남 수 있었지만 이전의 화려한 특권적 지위는 상실하였고 졸업생들의 실망은 커졌으며 졸업생들은 자신의 딸들을 모교보다는 예일이나 브라운과 같은 곳으로 보내려 하였다.⁴⁾ Trinity College의 변화는 여자대학으로서의 소명의식(여성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을 지키면서 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었다. Smith 여대도 Ada Comstock Scholars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대학연령이 지난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재정적 원조, 탁아, 기타 필요한 후원까지 제공해주는 계속 교육(continuing education)의 유형"⁵⁾이다.

오늘날 여자대학은 자신의 시장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수요를 개발하지 않

을 수 없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생교육, 부분 시간제(part-time) 프로그램, 주말 교육, 원거리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보여주는 바는 여자대학은 선택의 여지없이 여성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과 여성 삶의 경험과 특성에 기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껏 남녀공학의 교육프로그램과 별로 차별화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던 한국의 여자대학들이 더욱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여자대학에서의 교육은 단순한 여성용 교육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여성의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성용 교육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특별히 여성의 욕구와 경험을 반영하지 않는 것인 반면 여성의 교육은 "1. 여성을 위해서 여성에 의해서 제공되는 교육이고 2. 여성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며 3. 여성에 관하여 설계된 교육"⁶⁾이다.

특수하고 제한된 목적을 지닌 사회교육의 프로그램에 위와 같은 여성의, 여성을 위한 교육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많은 여자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이 거두고 있는 성공에서도 알 수 있다. 만일 여자대학들이 이런 종류의 실용적 사회적 요구에의 부응과 성공만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여서 21세기 여자대학의 미래를 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화여대와 같이 큰 규모의 일반 대학이 지식의 추구라고 하는 보편적 학문 작업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이념과 여성교육은 여성 삶과 경험에 기반하고 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여성의 인간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여자대학으로서의 소명**을 어떻게 접합시키는가 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이화여대가 아주 독특한 존재라는 점에 있다. 여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의대, 법대, 공대를 갖고 있다는 점, 그 규모에 있어서 세계의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크다는 점이 이화여대를 특이한 지점에 놓이게 한다. 왜 전문인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역에서조차 굳이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대규모 차원의 교육을 해야 하는가? 다른 남녀공학 의대나 법대에서의 여학생 비율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화여대는 자기 정당화의 논리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은 궁극적으로 보편적인 대학의 이념을 공유하면서 가부장제적 세계 안에서의 여자대학으로서 갖게 되는 과당

4) Abigail McCarthy, "Catholic Women's Colleges," *Commonweal*, New York, Nov. 21, 1997.
5) 김현우, "미국 여자대학의 변화와 교육적 역할," 『(부산여대)학생생활연구』 12 (1992. 12), 20쪽.

6) 김현우, "평생 학습하는 사회에서의 여자대학의 역할," 『교육학 연구』 34, 1996, 415쪽. 재인용. Coats, M. *Women's Education*, PA: SRHE and Open University Press, pp. 1-2.

성과 정치적인 성격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물음으로 귀착된다고 생각한다. 이 화여대가 전자의 특성에 집착하여 대학으로서의 수월성 추구를 1차적 목적으로 삼는다면 굳이 여성들만을 받아 교육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후자의 특성에만 집착한다면 일반 남녀공학대학과 다른 학생 모집 기준과 교육 방식, 수월성 추구의 방식을 고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학이 된다면 여성집단의 제도화된 힘과 발판을 잃게 되어 사회적, 정치적, 지성적 힘으로서의 여성을 드러낼 계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학생 모집이나 교육, 수월성 추구에 있어 여자대학으로서의 특수하고 비관행화된 방식을 택한다면 주변화될 위험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진퇴양난이 아닐 수가 없다. 양자택일이 이화여대에게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둘을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조화는 여성적 가치와 여성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학문 패러다임의 모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한국사회 안에서의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능

2-1. 여성교육의 대중화

중국에서 애초에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은 유교에 의한 남성들의 교화가 어느정도 진전된 이후에 남성을 내조하는 여성들의 교화가 필요해진 때문이었다. 후한의 반소가 여제를 지은 이래 여성교육을 위한 내훈서들이 여럿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종의 어머니인 소혜왕후 한씨가 “한 나라의 정치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내조의 공에 의해 좌우되는 일이 많은데, 여자들은 덕행의 높음을 알지 못하니 심히 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내훈』을 지었고 국가에서는 중국의 여훈을 비롯한 내훈서들을 직접 보급하였다. 5-6세경에 시작해서 일생 정진해야 하는 남아교육이 격물치지와 수행에 치중했던 반면 7세에 시작해서 15세경에 끝나는 여성교육의 주된 내용은 부모공경, 예절, 형제친척의 위계질서 준수 및 화목유지, 봉제사, 여공(女工), 집빈객, 육아, 자녀교육, 노비다루기, 음식, 의복만들기 등 여성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우는 것이었다.⁷⁾ 조순경 교수는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을 명

7) 소혜왕후 한씨, 『내훈』 황길현 역해 (중앙교육출판공사, 1986), 9쪽.

8) 유교사회 안에서의 여성교육에 대해서는 조경원, “조선시대 여성교육에 대한 철학적 고찰,”

확하게 분리하고,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엄격히 구분하는 전통 하에서 공간의 분리가 요구되었다고 본다. “철저한 직분 분리는 철저한 성별 공간 분리 및 일상의 영역에서 최소한의 관계만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⁹⁾ 공간의 분리는 『예기』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천명되고 있다.

예는 부부의 구별을 삼가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에 밖과 안을 구별하여 남자는 밖에 거처하고 여자는 안에 거처하도록 하여 서로간의 왕래가 없도록 문 단속을 철저히 한다. 남자는 필요한 때가 아니면 여자의 방에 들어가지 않고 여자는 예의상 필요하지 않으면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¹⁰⁾

공간의 분리라는 이념적 요구는 교육이 대중화되는 근대 이후에도 여자교육을 따로 담당할 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필요를 낳았고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이화여자대학교를 출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서구에서 대학이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대학이 생겼던 배경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애초에 여학교가 분리되어 설립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대학이 여학생들을 받아들이면서 여자대학이 급격하게 무너졌던 서구의 경우와 달리 남녀공학이 있음에도 나름의 규모를 유지, 혹은 확장하면서 여전히 건재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¹¹⁾ 강한 분리주의 문화, 그리고 각각의 분리된 공간 안에서 상대적 자율을 허용했던 문화가 이화여대 및 기타 큰 규모의 여자대학을 수용가능하게 했던 것이고 여전히 이화여대가 건재하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

강한 성분업 구조 하에서 여자대학은 제한적이거나 자율과 자유(안방마님의 자율)

『유교문화의 전통과 변형 속의 여성』, 1994년도 서남재단 학술연구보고서 참조.

9) 조순경, “유교사상과 성별분업,” 앞의 책, 111쪽.

10) 『예기』, 『내측』 제 12, 권오돈 역주 (홍신 문화사, 1982).

11) 1975년에서 1990년까지의 문교통계연보에 따르면 75년 당시 13개의 여대가 있었으나 90년에는 10개가 있다. 현재에는 7개의 여대가 있다. 미국의 여대가 갑작스러운 감소추세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된다. 1908년에 대학이 공학으로 된 이후 여자대학은 하나도 없었던 독일의 경우와는 더욱 현격하게 대비된다. 90년 당시 전국 111개 대학 중에서 여대가 10개로 숫적으로는 10%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여대에 재학하는 여학생 비율은 전체 여대생의 1/3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86, 180쪽)을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 전역에서 233 개에 달했던 여대의 수는 1986년 90개 (17개의 2년제 여대 포함)로 줄어 들어서 전체 대학의 2.3%를 차지한다. 1986년 당시 여대생은 전체 대학생의 52%를 구성하지만 여대에 재학하는 학생은 겨우 2%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와 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김 현우 (1992) 참조.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 안에서 여자대학이 지니는 역동성 및 사회적 기능을 좀더 적극적인 시각에서 평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를 누릴 수 있었고 여성교육의 기회는 확대되었다. 여자대학은 여성교육의 대중화와 여성유대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으며 여성유대는 한국여성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초석이 되었다. 한국사회 안에서 여자대학은 어머니-여성과 아가씨-여성의 이중적 모습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효를 중시하는 문화 안에서 생성된 어머니 권위에 대한 인정과 뿌리깊은 남존여비의 전통은 여자대학에 대한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사회인식을 낳았으며 여자대학은 이러한 이중적 사회인식을 기반으로 생존을 위한 이중전략을 구사했다. 이중전략은 의도된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의 효용성을 지니면서 여자대학의 오늘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

여자대학은 비록 그 교육내용에 있어서 소위 여성적인 능력 배양에 힘쓴 측면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문학, 언어, 가정학, 간호, 교육, 예술 부문에 교육이 치중되었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지적 힘을 키우면서 체제 순응적 여성과 체제 저항적 여성을 동시에 길러내었다. 여자대학이 자체로 의도하지 않았어도 집단화되어있는 여성들 사이에서 싹튼 여성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각성과 여성유대감의 형성은 많은 여자대학 졸업생¹²⁾들로 하여금 각종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힘과 조직력, 지도력을 갖게 했던 것이다. 여성의 힘에 대한 확인은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이것은 우리 문화 밑바닥에 잠재해있으면서 우리 문화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대하고 강인한 어머니의 힘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바깥의 아버지 문화는 이러한 힘을 용인하려 하지 않았고 그런 문화에서 살

12) 한 자료에 의하면 대학에서 교육받고 전문 분야에 진출해서 개별적 성취를 이룬 여성들의 경우 공학 출신 여자들이 여대 출신자보다 더 많다. 건축이나 자연과학과 엔지니어, 법조계에서는 여대출신자들이 특히 뒤처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여성 단체 활동에 있어서 공학 출신은 전체의 1/3밖에 되지 않는다. 문 은희, "남성 문화 안에서 잃어버린 여성의 목소리," 『현상과 인식』 69호 (1996. 7) 120-21 참조. 이 글에서 글쓴이는 "이 영역에서 공학 출신이 뒤처지고 있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의미심장한 사실이다. 고등 교육이 목표로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회의 지도적인 인물을 길러내서 좀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면, 고등교육의 성과를 재는 지표로서 이 영역은 중요한 것이라고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대 출신자들은 대학 재학 당시의 여성 간 유대와 협력의 기반 위에서 조직능력을 키우고 단합된 힘과 사회 지도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반면 공학 출신 여성들은 여성들 간 상호협력의 경험이 부족하고 개인적 활동과 성취로 만족하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대가 여성의 정치적 힘을 결집시키고 여성의 지도력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졸업생 개인의 사회적 성취를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성의 인간화와 남녀 차별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여대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힘을 어떻게 긍정적 차원으로 전화시킬 것인가는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남기 위해서는 이중적 전략이 필요했다.

2-2 생존전략으로서의 이중 전략

이중 전략의 시작: 아가씨-여성들이 보호되고 분리된 영역에서 자기들만의 공간을 형성하면서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 안의 적극적 힘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힘은 나름의 운동원리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양(陽)과의 대대적 관계에서 음(陰)은 언제나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은폐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대대적 관계를 벗어난 음은 상대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절대적 차원에서 자신의 긍정적 힘을 끌어내어 움직여야 하고 은폐되어있던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역동적인 양의 세계까지 스스로 안에 포괄하면서 음양적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양이 없는 세계에서 음은 더 이상 정(靜)의 논리가 아니며 스스로 안에서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내야 한다.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힘에 의해 자식들과 자신이 함께 살 세계를 만들어가야 하고 궁극에는 아버지의 힘까지도 포괄하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바깥의 거대한 아버지 세계는 힘이 넘치는 어머니를 용납할 수가 없고 어머니는 안전한 아낙으로 자신을 위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다. 여기서 어머니-여성과 아가씨-여성은 공생의 관계를 이루면서 산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위장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가씨-여성으로 위장하기에 어머니-여성의 존재가 너무 커져버렸고 아버지 세계도 이제 어느 정도 힘센 어머니를 용인하고 나아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제 어머니-여성은 자신 안의 아가씨-여성을 어떻게 해야 하며 아버지 세계와 어떤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가?

이중전략의 딜레마: 어머니-여성과 아가씨-여성은 서로가 서로의 힘을 상쇄시키고 약화시키는 시점에 이르른 것으로 보인다. 이중 전략의 딜레마는, 한편으로 이중 전략을 계속 취하면 그 전략이 목적으로 하는 바를 성취할 수가 없고(이중 전략은 이미 많은 부분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 효용성을 잃었다), 이중 전략을 버리고 양자택일을 한다면 진퇴양난의 결과에 빠진다는 데 있다. 이중 전략은 남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껏 여대가 취해왔던 이중 전략이 상

당 부분 노출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효율성을 가질 수가 없다. 이중 전략이 노출된 상황에서 어머니-여성과 아가씨-여성은 서로의 힘을 보강시켜 주기보다는 서로를 상쇄시킨다. 어머니-여성인 체 하지만 사실은 아가씨-여성이라는 여대에 대한 비난(eg. 이화여대가 과연 하나의 제대로 된 대학인가, 이대생들은 멋으로 학교를 다니고 멋으로 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여교수가 학자인가 하는 여성의 진지성에 대한 끈질긴 의심)과 아가씨-여성인 체 하지만 사실은 권력을 탐내는 징그럽게 힘센 어머니-여성이라는 비난(가산점 관련해서 남성들이 보인 이대혐오증과 “배꽃하나회”라는 조어의 출현)은 이중 전략이 더 이상 효율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중 전략을 버리고 어머니-여성과 아가씨-여성 중 하나를 택한다고 해도 여자대학의 자리는 편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가씨-여성으로서의 여자대학의 존재는 더 이상 대학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고 어머니-여성으로서의 여자대학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강력하게 성별화된 문화가 배태한 공간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커져버린 힘을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힘센 아버지 세계에 양도할 것인가, 아니면 베일을 걷고 부드럽지만 강한 어머니만의 얼굴로 아버지를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하나의 운유로서 여자대학의 사회·역사적 의미를 생각해보고 미래를 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여성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전통적 여자대학의 존재이유가 공학에 진학하는 여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퇴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껏 여성교육은 남성교육과 별로 차별화되지 않은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남성들을 중심으로 편성된 교육항목을 여성을 대상으로 가르치거나 여성에 적합하다고 여겨져 온 학문(가정, 간호, 언어, 문학, 교육, 예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공학에 진학하는 여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이나 여성용 교육이라는 측면에서의 여자대학이 지녔던 매력은 상실되었다.

2) 자칫 여자대학은 주변화됨으로써 여성평등권의 확보에 위협이 되는 아이러니를 초래할 수 있다. 공학 출신 여성들이 남성과 대등한 관계 안에서 경쟁 또는 협력하고 일하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여 바깥 사회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우고 대등한 동료로

일함으로써 여성평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데 반해 여대 출신들은 그러한 기회를 결여함으로써 여성을 계속 제2의 성으로서 하급 시민의 지위에 머무르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즉 여자대학의 존재는 자기는박적이 될 수 있다).

3) 이제껏 여성적 학문영역에 치중해온 여자대학이 현대 과학기술시대가 요구하는 전문화된 고비용 지식에 대한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가?

4) 여전히 성차별적 구조를 지닌 세계 안에서 생겨나는 여자대학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어떻게 위에서 제기한 1), 2), 3)의 문제들 안에서 확립할 것인가?

3. 여자대학과 페미니즘¹³⁾

위의 문제들은 여자대학이 페미니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된다고 생각한다. 여자대학이 적당히 변형되고 품질저하된 교육—주변적이고 부담이 크지 않으며 전문적이지 않은 영역의 교육—을 여성용 교육의 항목으로 설정하여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한다는 목표를 갖고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한 편 여자대학이 필요한 사회적 환경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여자대학은 어쩔 수 없이 구체적인 여성을 위한, 그리고 여성의 경험에 기반한 전문화된 교육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자대학이 집중해야 할 가치로 한 연구자는 “(a) 여성경험을 중심적인 것으로 놓는) 재중심화, (b) 다양성, (c) 협동적 배움, (d) 전체주의적 접근, (e) 연결된 지식”¹⁴⁾을 꼽고 있다. 다양한 여성 경험에 기반하여 다양하게 발생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식을 확장시켜주는 교육은 여성적 가치(femine values)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 차원으로 고양시키는 교육임과 동시에 여성주의적 가치(feminist values)¹⁵⁾와 관점을 수용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적 가치는 생물학적 관점에서이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이건, 여성에게 속하는

13) 여성주의라는 말보다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여성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대한 좀더 일반화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되어 ‘여성주의’ 대신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14) DeFrancisco, Victoria Leto, “The world of designing women: A narrative account of focus group plans for a women’s university,” *Communication Education* 45 (Oct. 1996).

15) Rosemarie Tong, *Feminine and Feminist Ethic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Belmont, California, 1993), 1 장 참조.

것으로 여겨져왔던 가치들, 예를 들어 보살핌, 배려, 관계중심성, 감성을 지칭한다. 이와 달리 여성주의적 가치는 성차별과 여성 억압을 제거하여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지향으로서 여성주의 이론들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바의 것이다. 이 두 가치는 상호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적 가치에 대한 강조도 여성을 중심에 두고 궁극적으로 여성 삶의 의미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배타적 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글에서 여자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제 3의 길로서 이중전략 대신 여성적 가치와 여성주의적 가치 모두를 포괄하고 가로지르는 양면 혹은 양날개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여성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태도는 여자대학으로 하여금 유아교육이나 간호학, 예술, 디자인, 여성학과 같은 학문영역을 주변적인 것으로 놓지 않고 자신의 특화된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학제적인 노력을 통해 그러한 영역이 고차원적으로 전문화된 지식영역 안에 자리잡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엄밀학으로서의 여성적 학문의 가능성은 학부대학(college)이 아닌 대학원 대학(university)의 정체성을 지닌 큰 규모의 여자대학이 정립할 수밖에 없다. 여자대학은 여성적 학문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지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적 학문이 주변적 학문으로부터 엄밀한 과학으로 설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또한 참된 대학의 기능이기도 하다. 여자대학이 어떻게 여성주의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지는 마지막 장에서 시대적 상황의 변화 안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여성적 경험을 중심에 두는 학문 작업은 불가피하게 기존의 학문적 작업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여자대학은 여성적 가치와 여성주의적 가치가 개입된 새로운 대안적 이론, 대안적 학문패러다임과 교육패러다임을 만드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이유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 학문의 보수성과 위계성 안에 갇혀있어서는 안되며 학문간의 횡적 연결과 개방성에 바탕한 자유로운 연구작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작업이 성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며 무엇보다도 여자대학 성원간에 이러한 여자대학으로서의 진취적이고 탐험적인 학문의 자세에 관한 암묵적 공감에 있어야 한다.

여자대학은 여성의 경험이 그 안에서 숨쉬고 있는 이론과, 이론에 의해 지지됨으로

써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아도 되는 여성 경험이 이성적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표현되는 곳이다. 그럼으로써 여자대학은 단지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배우는 것을 여자들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곳, 그래서 남자대학(남자들이 주를 이루는 남녀공학)보다 조금 열등할 뿐만 아니라 결코 남자대학을 능가할 수 없는 대학이 아니라 새로운 학문 패러다임이 창출될 수 있는 참된 의미의 대학으로서의 여자대학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학문작업과 여성교육은 공학에서는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학에서는 이를 수행할 의욕을 전혀 느끼지 않을 종류의 것이다. 독자적인 학문적 발판을 마련하려는 여자대학의 노력없이 여성의 시대는 오지 않으며 설사 주변의 여건이 여성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창조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성을 위한 형식적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여성들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여성학 센터들이 생겨났던 것은 교실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사회변혁을 여자대학이 인지하면서 그에 대한 독자적인 이론적 지지대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여성학 센터는 대학 안과 밖의 여성들에게 물리적, 심리적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여성들의 광범위한 요구와 열망을 담아내고자 했다.¹⁶⁾

여성 중심의 학문과 교육을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의 내적, 외적 환경을 적극적 방식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며 여자대학의 학문적 과제에 공감하고 참여할 열성적인 연구집단(이러한 연구집단은 학자가 주축이 되지만 예술가, 여성운동가, 작가, 경제전문가 등 다양한 여성경험과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녀야 한다)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집단이 없는 여자대학은 요란하게 여자로 화장한 빈껍데기 대학으로서 언젠가는 자신의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연구집단 혹은 지성공동체가 형성될 때에만 여자대학은 여성적 가치를 중심에 두면서도 주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

여성적 가치와 여성주의적 가치를 중심에 두는 것을 대부분의 여자대학들이 꺼리는 것(이는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은 그것이 여자대학을 주변화시키고 주류 문화로부터 소외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강력한 지성의 힘을 갖춘 연구집

16) Jane Gould, "Personal Reflections on Building a Women's Center in a Women's College," *Women's Studies Quarterly* XII: 1 (Spring, 1984), 6쪽 참조.

단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주변화는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주변화되지 않기 위한 고도의 전략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모색은 여자대학이 페미니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와 연관되며 여자대학들 간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관된다.

여자대학과 페미니즘을 분리함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기모순처럼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여성교육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여성을 남성과 대등한 하나의 인간으로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페미니즘적인 이상에 바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여자대학이 페미니즘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자대학과 페미니즘은 그렇게 행복한 관계만은 아니다. 미국의 많은 여자대학들이 여성학 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망설였던 것은 대외적 이미지에 신경을 쓴 때문이었고, 특히 기부금 기탁자들에게 대학이 과격한 여권론자로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자대학들이 여성들이 광범위한 정치적 맥락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학은 보수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때때로 대학이 여성문제에 관여하고 있음을 증명해보이기 위해서 여성학 센터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의 근거에는 "남자대학만 못하다, 혹은 남자대학과 다르다 혹은 '레스비언들의 학교'이다"¹⁷⁾라고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놓여있었다. 이런 상황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여자대학이 여성적 가치나 여성주의적 가치의 추구를 적극적으로 천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럴 경우 남녀공학만 못한 대학으로, 남녀공학과는 다른 대학답지 못한 대학으로,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여성문화를 조장하고 키우는 대학으로 사회가 낙인찍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여자대학 내에서조차도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서 여자대학과 페미니즘 사이에 놓여있는 긴장은 때때로 대학 당국과 여성학 센터 사이의 긴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미국 Barnard 대학의 경우 대학 내 친-생명 그룹에서 자신들의 프로그램의 스폰서가 되어주기를 여성학 센터에 요구한 일이

있었다. 대학 당국은 센터는 대학 내 부속기관으로 학생활동지원비로부터 지원을 받는 곳이므로 모든 이슈에 대해 모든 관점을 반영해야 하며 따라서 스폰서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센터는 그것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낙태를 둘러싸고 학내의 캐톨릭 그룹과도 생겨난다.¹⁸⁾ 이런 긴장에 대처하는 방식은 여성학 센터는 일관되게 페미니즘적 입장을 취하고 대학 당국은 중립적인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함으로써이다. 그러나 여성학 센터도 시위나 로비활동, 피켓팅을 직접 주도하지는 않는다.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인 단위로 움직이지만 1978년 워싱턴에서 있었던 ERA 운동에 당시 총장이었던 재클린 뎀펠드의 전적인 승인 아래에서 바나드대학 여성학 센터가 버스를 대절해서 시위에 참여했던 것은 예외였다. 여성학 센터의 기능은 실험적 학문영역을 넓히고 다지는 역할에서부터 '응급대출기금'을 마련하여 낙태를 원하는 돈없는 학생들에게 대여도 하는 등 다양하다. 유행에 따라 도서관을 매번 지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여성도서관 건립에 반대했던 도서관장 덕택에 센터는 지금은 작은 도서관 규모로 성장하여 전세계의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독립적인 도서체계를 갖고 있다. 여자대학이 페미니즘과 갖고 있는 긴장관계는 대학 내 여성학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의 제도로서의 여자대학이 안정적 발판을 유지하면서도 대안적 학문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내의 연구소나 센터를 새롭게 실험적인 학문영역을 개척하는 침병으로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 결과를 제도 안에 프로그램화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연구집단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 대학 내에서 소규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 파급력이나 영향력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여성적 가치와 여성주의적 가치의 학문 영역 내의 구현은 주변적이고 하찮은 것으로 남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여자대학들 간의 연대적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그 파장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연대 안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학문 패러다임은 비로소 여자대학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줄 것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해지도록 여

17) 앞 글, 7쪽.

18) 앞 글, 8쪽.

자대학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자대학은 점차적인 여권의 신장과 공학진학 여학생들의 증가에 따라서 자연 소멸하거나 미미한 존재로 주변화되어 보이지도 않게 되는 공멸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될 것이다.

4. 시대적 변화와 집단화된 지성적 힘으로서의 여자대학

여성적 가치와 여성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학문 패러다임의 모색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세계시장의 등장, 정보사회로의 이전, 과학기술시대의 도래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1) 세계시장의 등장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일반화 안에서 여자대학은 대학의 변화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제 형식의 변화가 여성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 개념의 약화와 교육의 브랜드화는 학생들의 유동을 어느때보다도 활발하게 할 것이다. 가상대학의 출현은 굳이 공간 이동을 하지 않고 외국 대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킬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특수한 요구에 맞추어 교육프로그램을 짚 소 규모 고비용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들이 출현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빠른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을 매우 융통성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시장의 흐름을 적절히 따를 수 있는 소규모의 체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오랜 역사와 전통, 특권을 지녀왔던 대규모의 대학들은 이런 상황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자본주의 세계 내에서 노동시장은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유연화될 것이며 노동력의 이동 또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지식의 표준화와 정보매체의 표준화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속에서 여성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 그에 적응하기 위해 여자대학은 어떤 교육 내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 시대의 변화 안에서 지식 경쟁력을 갖춘 여성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잘 재단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정보사회로의 이전은 인간 삶의 방식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에 지대한 변화를 초래시키리라고 생각한다. 정보화가 주로 남성 집단, 남성적 관점을 반영하는

기업과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정보화 사회를 지배할 가치와 규범 또한 남성중심적으로 형성될 확률이 높다. 그런 한 여성들은 다시 한 번 주류 의사소통 구조 안에서 자신들을 표현할 언어와 문법을 잃게 될 것이고 타자화될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성집단이 정보화의 과정 안에 개입하고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규칙과 규범을 정하는 데 있어 여성관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여자대학은 이러한 여성의 집단화된 노력을 키울 수 있는 지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여자대학은 성평등적인 정보화사회를 이루기 위한 집단화된 노력과 지식이 가능한 유일한 장소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다시 여성적 가치와 여성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지성공동체로서의 여자대학의 역할이 막대한 책임을 지니게 된다. 정보화사회로의 이전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물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여자대학들 간의 두뇌 풀을 만들어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과학기술의 발달은 앞으로 도래할 미래 사회에 대한 꿈과 절망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관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복제와 같은 재생산 기술의 발달이 초래할 여성 삶의 변화와 여성과 남성과의 관계 변화는 예측을 불허한다. 과학기술이 지니고 있는 가공할 힘 때문에 여성들은 과학기술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대개 남성이고 그들이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관점을 고수한다면 여성들의 미래는 결코 낙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 몸에 관한 과학기술의 통제가 남성 기술에 의한 여성 몸의 통제로 나타날 경우 성평등적 사회의 도래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며 여성의 예측은 영속화할 우려가 있다. 여자대학은 여성과학기술 인력을 배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과 권력의 연계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모든 여성의 권익을 위하여 남성적 과학기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오직 여성적 가치와 여성주의적 가치에 바탕한 여성과학기술인 집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서 이러한 지성공동체가 가능한 유일한 장소가 여자대학인 것이다.

기존의 체계로부터 유능한 여성들을 분리시키고 고립시킨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의 여자대학 설립의 꿈을 이룬 Metz-Goeckel 교수와 Sauter-Bailliet 교수는 여자대학은 “자신만만하고 비판적인 여자 지성을 키우고, 아주 우수한 여성들이 대학에 자리잡고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권력과 영향력을 자신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여성이 사회적·정치적·지성적 책임을 걸머주는 것을 허용하고, 여성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논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한다”¹⁹⁾고 주장한다. 이들은 여자대학이 정체해있는 대학체계를 개조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서 여성주의 학문의 대안적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시대적인 변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변화를 꿈꾸어 온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온 것이고 그들이 원하고 계획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여성들은 이제 역사적 변화의 주변에서 박수나 치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버리고 변화를 꿈꾸고 주도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대학은 여성들에게 그러한 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때에야 비로소 여자대학은 왜 여자대학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정당화의 논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할 것인가? 아마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설사 형식적 평등이 달성되었다고 해도 그 평등의 내용은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한다. 여성적 가치와 여성주의적 가치의 사회 내에서의 구현을 통해 여성의 경험 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고, 여성경험이 비하 또는 경멸 당하지 않는 사회, 여성경험이 ‘아줌마이야기’로 비하되어 회화화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를 실현하고 경영하기 위해 여자대학은 필요하다. 이화여대와 같은 대규모의 여대는 남성의 힘까지를 포괄하는 어머니-여성으로서, 여성적 가치와 여성주의적 가치의 두 날개를 가진 강인한 어머니-여성으로서, 세계적인 여성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거대한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9) Tobe Levin, "Women's Studies in Germany," *Women's Studies Quarterly*, vol. XXIV(1996, spring/summer), 310쪽.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학술회의
2000. 5. 25 - 5. 26

김혜숙 교수의 “여자대학의 미래”에 대한 논평

구미코 후지무라-판셀로우

Kumiko Fujimura-Fanselow
東洋英和女學院大學 · 여성학

김교수님이 묘사한 한국 여자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현재 일본의 여자대학 및 대학교들이 직면해 있는 것과 많은 부분에서 공통적이다. 한국의 경우처럼 일본의 여성 기관들은 수세에 몰리고 있으며, 자신들의 지속되어온 존재를 정당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마찬가지로 30년 전에 미국의 여자대학들도 유사한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김교수님의 논문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여자 대학 및 대학교들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논쟁들의 근거가 되는 몇몇 세력들, 즉 교육과 대형화된 사회 양자간의 세력들을 이해하기 위한 가치있는 분석틀을 제공해 준다.

김교수님의 논문은 자본주의/소비주의, 대중 고등교육, 통신과 정보 기술에서의 혁명적 발전 등에 의해서 특징지워진 시대에 어떻게 대학 전체의 역할과 기능이 극적인 변화들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김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학문을 추구하고,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 배우는 장소로서의 대학 개념은 대학들이 더욱 실용적인, 즉 시장의 논리에 부합하는 학생들/소비자들의 수요에 봉사해야 한다는 요구들에 의해서 도전 받아 왔다. 오늘날 더욱 경쟁적인 교육시장 안에서 모든 고등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도전은 이 기능들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자신의 적소(適所, niche)를 주장하는 한편 학생 대중들의 존립가능한 분할을 유인해내기 위해서 기관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 매우 거대한 맥락 안에서 김교수님은 여자 대학 및 대학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교수님이 (많은/대부분의?) 한국 여자대학교들에 대해서 가하는 주된 비판은 그들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들과 과정들이 모든 연령층 여성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특별히 기획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그들은 남녀 공학 대학들로부터 자신들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여성들만의 기관이 존재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자 대학교들이 제공해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여성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들의 관심을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에 놓아야 하고, 여성적인 가치(여기서 여성적인 가치라는 표현은 "문화적으로 내지 생물학적으로 유래되었는지 간에 여성들과 전통적으로 연관되었던 성별 특징들, 특히 양육, 공감, 배려 등의 특징들을" 의미한다)들을 높이 평가해야 하며, 여성주의적인 가치들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김교수님은 주장한다. 여자 대학교의 단과대학과 연구자들은 여성들의 체험과 여성주의적 관점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이론적인 패러다임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교수님이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여성주의의 옹호는 종종 일반 대중과 광범위한 남성중심적 지성 공동체에 의한 반격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적이고 여성주의적인 가치에 기초한 지성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그 자신이 부파한 과제에 스스로를 투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자 대학교를 위한 다른 선택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김교수님은 주장한다.

본 논평자는 여자 대학과 대학교들이 여성주의적 가치들을 발전시키는 데에 스스로 투신해야 한다는 김교수님의 주장을 진심으로 지지한다. 이런 투신의 부분은 그들의 교과과정에 여성주의적인 전망들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여성학을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분야들에서 내용과 연구 방법, 수업 등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격려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본인은 여성학의 여전히 불확실한 위치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깨닫고 있다. 일본의 많은 여자 대학에서 (남녀 공학 대학에서는 더 적게) 여성학 과정을 현재 개설하고 있는 반면, 이 과정이 '이데올로기적'이라고 한다거나 여성학은 계속해서 수강해야 할 '진정한 학문분야'가 되지는 않는다는 비난이 가해지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축되고 있고, 불가피하게 구조 재편성(본인이 최근에 방문했던 뉴질랜드에서는 '위치 재편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여성학부가 자신의 미래

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다)을 결과로 하는 교과과정의 개혁 속에서 여성학은 중대한 위협에 처해 있다.

여자 대학들의 성장과 미래의 생존능력을 보증하기 위해 제안된 두번째 안건은 이러한 기관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변화들, 말하자면 세계시장의 출현, 정보사회로의 이행, 중대하는 과학과 기술의 지배를 충분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전들은 불가피하게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여자 대학들은 교육적인 프로그램들, 연구, 구조 등등에서 쇄신을 꾀함으로써 여성들의 필요에서 결과되고 있는 변화들에 적응해야만 한다. 특히 이러한 기관들은 여성들이 점차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고용시장내에서 재정적인 독립을 확보하고, 새로운 정보 사회에서 소외되기보다는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더욱이 그 기관들은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서 여성 전문가들을 배양해야 하고 또한 새로운 기술들, 특히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기술들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그들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들의 대상 (혹은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인은 여자 대학 및 대학교들이 김교수님이 묘사한 일련의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주의해야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여성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각 기관이 이 변화들에 응답할 수 있거나 응답해야만 하는 정도는 각 기관마다 다를 것인데, 단과 대학, 그 대학의 규모 등뿐만 아니라 재원의 활용가능성에 달려 있다. 각 여자 대학교들은 어떤 점에서 독특함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그로 인해 다양한 관심과 필요를 지닌 학생들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각 기관은 그들의 (필수적인 갱신을 포함한) 전통적인 교과과정과 새로운 연구 계획을 추가하는 것 사이에서 그자신만의 독특한 균형과 조화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김교수님이 제창한 여성적이고 여성주의적인 가치들에 기초한 지성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데에 확고한 투신은 모든 여자대학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김교수님의 말처럼 "도피하는 여성주의는 자기-부정"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투신을 실행하는 것은 그렇게 투신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미 그 기관들의 지도자 지위를 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요청한다. 그런 여성들이 정책과 의사-결정 위치에서 우세함을 나타내지 않고는 김교수님이 윤곽을 제시하는 일련의 개혁들이 실현된다고, 또한 현재

대부분 기관들의 주도적인 가치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들에 기초한 보다 인간적인 교육환경- 그리고 그러한 세계-의 창조가 실현된다고 보기를 희망할 수 없다.

끝으로 나는 김교수님이 말씀하신 몇가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여성들이 계속해서 차별, 폭력, 자기 가치의 부정과 부딪히게 되는 사회, 더 나아가 세계 안에서 여자 대학교들은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들을 확립할 수 있는 장소, 아마도 유일한 장소로서 일할 수 있다. 이 장소로부터 여성들은 자신들의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김교수님은 여자 대학교들이 아마도 여성들을 격리시키고, 그들에게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여성이 동등권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약간의 우려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본인은 이 견해를 반박하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미국 연구자들에 의해 수집된 증거를 제시하고 싶다. 그 증거는 남자 대학생들과 나란히 공부하는 것이 결코 여성들에게 동등한 교육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든가 또한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남성들과 더욱 성공적으로 경쟁할 능력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능력부여가 여자 교육기관이 존재한다는 결과로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것은 오직 한 교육기관의 모든 구성원 - 대학당국, 전교직원, 이사진, 동창생, 후원인, 학생들-각각의 합의된 노력과 그런 목표를 위한 투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학술회의
2000. 5. 25 - 5. 26

김혜숙 교수가 발표한 여자대학의 미래에 관한 논평

리사 울프-웬델

Lisa Wolf-Wendel

University of Kansas · 교육학 · 미국

김박사님이 발표한 논문은 내가 읽어본 여자대학에 관한 글 가운데서도 아주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박사의 논문은 생각해볼 점을 많이 제기하지만, 나는 김박사 제기한 두가지 문제, 즉, 여자대학의 필요성을 여성의 교육에 대한 요구에 봉사하기 위한 사명과 동일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여자대학이 필요한지 아니면 남녀공학이 여성을 위한 평등한 교육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인가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논평할까 합니다.

첫째로, 김박사님의 논문으로부터 분명한 점은 한국의 여자대학들이 1960년대말, 70년대초에 미국에 있는 여자대학들이 처했던 상황과 유사한 기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화대학과 같은 여자대학들은 존속되어야 할 그들만의 이유와 목적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여자대학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했는가하는 것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여자대학들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즉, 1) 다른 기회가 열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 여성들이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어낼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여성 교육은 출산능력과 다른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그리고 3) 여성들의 필요에 적합한 교육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대학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로 설립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 설립된 대학들은 애초부터 여성의 여성적인 측면을 격려하고 권장하였습니

다. 따라서 그러한 대학들은 진지하게 교육하는 일보다는 학교를 마치기(졸업하는) 위한 곳으로 간주되었습니다(Horositz, 1984; Harworth, 1997; Lucas, 1994; Solomon, 1985; Tidball, Smith, Tidball & Wolf-Wendel, 1999). 이러한 역사적인 정보를 아는 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1970년대 무렵에는 여권운동이나 1972년 교육법 9조항의 통과와 같은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여성들이 남녀공학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더 이상 “학교를 마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고, 대부분 여성은 자기 자신이나 사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도 교육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여자대학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도 여자대학이 필요한 것인가? 여자대학은 고등교육에서 여전히 의미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자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좀더 맥락화하기 위해, 1960-70년대 미국에서 여자대학들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든 몇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소규모의 사립 기숙대학들 -- 남녀공학 대학과 남자대학, 여자대학 --은 급속한 등록학생수의 감소와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이 시기동안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더 많은 자유를 얻고, 덜 비싼 교육을 받기 위해, 그리고 “전통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규모가 큰 공립학교를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많은 소규모의 사립 인문대학들이 폐교하게 되었습니다. (Horowitz, 1987; Lucas, 1994). 대부분의 이 작은 대학들은 “보이지 않는 대학들”로 일컬어집니다. (Astin & Lee, 1972). 이 보이지 않는 대학들은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등록학생수가 적고 무시할 입학전형 정책을 가진 사립학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학은 미국에서 전체 4년제 대학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점에서 이 보이지 않는 대학들은 “전형적”인 미국 대학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인상)과 닮아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일반 대중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곳들입니다. 이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여자대학이라 하면, 흔히 (신입생을) 선발하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the seven sisters”(일곱 자매학교)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자대학들, 즉 나머지 73개 대학은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지역(학교 소재지) 중심으로 학생을 모집하며 보이지 않는 대학으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 학생기숙사 시설이 있는 대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문을 닫지

않은 모든 작은 대학들은 보다 많은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남자만의 대학과 여자만의 대학 모두를 위해 결국 남녀공학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대개 이러한 논의들은 교육철학적인 문제 보다는 재정상의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질문은 “만약 우리가 남학생(혹은 여학생)을 받아들인다면 등록생수와 기부금 면에서 형편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남자대학의 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여성의 입학율 허용함으로써 이전의 남자대학들은 등록학생수가 더 확대되었고, 학생선발이 증가되었으며 재정자원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남자대학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남자대학들이 여학생을 받아들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남자대학으로 남아있는 곳은 인디애나의 와바시(Wabash in Indiana) 대학 뿐입니다.

남자대학에 있어 이러한 결정은 이전의 남자대학의 구조나 조직을 많이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모든 대학들이 새로운 여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화장실을 개조하였습니다.¹⁾ 이와 반대로, 남학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여자대학들은 이전에 여자대학이었다는 낙인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남자들이 (이전에 탁월한 학문적 명성을 지니고 있던 여자대학인) 바빠”에 들어가겠는가?”고 물었습니다. 남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자대학들은 더 많은 남자교수들을 고용하였고, 교과과정을 바꾸고 체육시설을 보강시키고 개선시켰습니다. 남학생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 이전의 여자대학들에게는 무척 비용 부담이 많은 일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바빠대학과 같은 곳들은 수적인 면에서 남녀 성비가 동등하지 못합니다. 돌이켜 보면, “남녀공학이 되는 것”은 여자대학 보다는 남자대학에게 더 쉽고 더 수지맞는 일이었습니다(Chamberlain, 1988; Harworth, 1997; Tidball, Smith, Tidball & Wolf-Wendel, 1999).

1969년까지 남학생을 받아들이는 아이디어에 반대한 여자대학들은 지혜와 경험을 결집시키기 위해 자신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8개의 여자대학 지도자들이 펜실베이니아 알렌타운(Allentown)의 시다크레스트대학(Cedar Crest College)에 모여

1) 시타델(Citadel)과 같은 이전의 남자들만의 사립학교들도 여학생을 받아들였다. 다른 남자대학들과는 달리 이러한 대학에서의 남녀공학의 결정은 법적 압력의 결과 때문이었다. 사립학교는 법적으로 공공기관이며 따라서 여성들의 입학율 막을 수 없다.

미국의 여자대학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지도자들은 증대되고 있는 시장경쟁 속에서 여성 교육의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한 데 모였던 것입니다. 시다크레스트대학 총장인 폴린 톰프킨스(Pauline Tompkins)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착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Cedar Crest, 1969, 75 as cited in Tidball, Smith, Tidball & Wolf-Wendel, 1999). 이것이 여자대학들로 남아 있던 대학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설립동기가 여하튼간에, 나머지 여자대학들은 앞서 언급한 세 번째 이유인 여성적인 것보다 더 페미니스트적인 면모를 도입하였습니다 - 그래서 여성의 요구와 필요에 적합한 독특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Tidball, Smith, Tidball & Wolf-Wendel, 1999).

살아남은 여자대학들은 현재상황을 시인하고 그들이 한 때 그랬던 것처럼 "여자대학"으로 남아있기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대학"이 되기위해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다크레스트 회의 참석했던 18개 여자대학은 모두 현재까지도 존속해 있습니다. 이들과 다른 여자대학들은 교과과정 프로그램에서부터 유색인종 여성들 및 노인 여성들을 포함하는 특수한 여성집단에 대한 배려 등을 망라하는 다양한 변화를 주도하였습니다. 어슬린(Ursuline)대학은 베렌키(Belenky)의 앎(지식)에 대한 여성적 방법에 관한 이론에 기반하여 교양교육의 교과과정을 개편함으로써 이러한 교과과정 개혁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이보다는 덜 극단적이거나 여성지향적인 접근을 채택하였습니다. 김박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여자대학들이 나이트 여성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스미스 대학의 Ada Comstock 프로그램과 차탐(Chatham) 대학의 Gateway 프로그램 등의 예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여자대학들이 여성 교육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동시에 많은 대학들은 약산 양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를 착수하였습니다. 김박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많은 여자대학들, 특히 가장 저명한 대학들은 여성학 내지 페미니스트적인 교과과정의 변화를 도입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은 다르지 않다는 믿음과 관련되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그들의 설립 목적으로 거

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양가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여자대학들은 각자 그들의 여학생들에게 보다 분명한 목적있는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변화시켰다.

이것이 우리를 오늘 여기에 오게 하였습니다. 김박사가 말한 바와 같이, 이화는 한국에서 여성 교육의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강하게 영향 미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매 여자대학들의 선례로부터, 나는 이화가 여성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잘 헤아리기를 제안합니다. 나는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노력할 따름입니다.

김박사의 논문에 대해 내가 말하고 싶은 두 번째 점은 우리가 아직도 여자대학이 필요한가, 아니면 남녀공학이 여성들의 평등추구를 위해 더 나은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한 성만을 위한 교육이 남녀공학으로 대체된 것은 여성들이 남성과의 평등을 이룩한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Lasser (1987)에 의하면, "옹호이던 비판이던 모두 똑같이 의심할 여지없이 여성과 남성에 대한 평등한 교육은 남녀공학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p.2)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남녀) 분리된 교육이 남녀공학보다 여성에게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편해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에서는 사람들이 여성의 지위를 폄하하는 방법으로 여자대학의 공헌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Talbot, 1994). 특히 그들은 만약 여성은 여자대학에 다녀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여성은 남성과는 다르다거나 또는 심지어는 열등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여자대학에 다니는 여성들은 남자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따라서 "현실세계"에서 경쟁하고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잘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자대학에 대한 가장 널리 퍼진 비판 가운데 하나는 그들(여대 졸업생들)이 현실세계에 대해 비현실적인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공적인 교육이란 현실의 복사판과 같은 환경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현실에 대비하고, 현실과 관련된 환경 속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며, 그렇지만 현실에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대학들은 "현실세계" 속에서 "여성이 있을 곳"에 대해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여자대학들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일부는 그러한 가정들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고, 반면 다른 곳에서는 교육받은 여성들이 참여는 하지만 싸우지는 않게 하는 식입니다. 설립이념과는 무관하게, 이 대학들은 그러한 "현실세계" 문제와 씨름해 오고 있으며, 고정관념과 현실의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교육 환경을 여성에게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시켜 오고 있습니다.

여자대학들은 여성들에게 베풀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성(젠더) 불평등 문제가 존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대학들은 여성을 세력화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번성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약 여성이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라면 남녀공학 대학들이 그랬을 법한 것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부 학생의 절반 이상이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남녀공학이 그 해답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남자들만의 학교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봉사하는 학교로 변화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달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적이면서도 강력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의 한 신문기사는 이 점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인문대학들은 남자들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묻고 있다"라는 제목의 그 기사는 미국 전역에 걸쳐 학부 학생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에 대해 많은 대학에서 강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학에 미칠지도 모를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 우려하고 있는 대학 지도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격이 미달되더라도 남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지 모른다는 데 대한 공포와 불안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일부 대학에서 여학생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부분의 남녀공학 학교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은 것은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데, 여학생이 52%인 것이 근심거리가 된단 말입니까?

이 기사가 말해주듯이, 얼마간 묻혀지긴 했으나 아직도 여성이 교육받는데 대해서는 거부감과 양가적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들이 점점 더 많이 남녀공학으로 되

어감에 따라, 연구는 이러한 대학에서의 여성들의 경험이 동료 남학생들의 경험과 언제나 똑같지는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며, 교실과 캠퍼스에서 그리고 또래 학생들로부터 반드시 공정하게 대접받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를 교육하는 것은 대학과 그 후원자 측에서의 진지한 헌신과 이해를 요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학생들을 위한 고용과 요구에 있어 일정 수준의 계획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높은 기대에 대한 포괄적인 헌신과 성공에 대한 학생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 대해 주의와 관심이 계획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충분치 못할 것입니다.

남녀공학과 여자대학을 연구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가장 평등한" 것이 반드시 "가장 공평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자대학들은 여학생을 교육시킬 뿐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여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느냐에 대한 역할도 계속 수행해야만 합니다. 김박사님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나의 논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때 보다도 더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할 강력한 여자대학들을 필요로 한다."

References

- Astin, A.W. & Lee, C.B. (1972), *The Invisible Colleges: A Profile of Small, Private Colleges with Limited Resources*, New York: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 Chamberlain, M.K. (1988), *Women in Academic: Progress and Prospects*,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Harwarth, I, Maline, M. & DeBra, E. (1997), *Women's Colleges in the United States: History, Issues, and Challeng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Horowitz, H.L. (1987), *Campus Life: Undergraduate Cultures from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4), *Alma Mater: Design and Experience in Women's Colleges*

- from *Their Nineteenth Century Beginnings to the 1930s*, New York: Alfred A. Knopf.
- Lasser, C. (ed.) (1987), *Educating Men and Women Together: Coeducation in a Changing World*, Urbana, 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Lucas, C.J. (1994), *American Higher Education: A History*, New York: Saint Martins Press.
- Solomon, B.M. (1985), *In the Company of Educated Wome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Talbot, M. (1994, November 20), "The Gender Trap. Are Women's College Bad for Women," *Washington Post Magazine*.
- Tidball, E., Smith, D., Tidball, C., & Wolf-Wendel, L. (1999), *Taking Women Seriously: Lessons and Legacies for Higher Education from Women's Colleges*, Phenix, AZ: ACE/Oryx Press.

패널 I

여성학의 미래 · 학문다양성과 여성공동체

여성학의 미래: 학문다양성과 지성공동체	조주현	87
생물학자가 본 여성적 가치와 여성학	최재천	91
여성학의 미래와 여성지성 공동체	김은실	96
정보사회 속의 미술문화와 여성주의적 논의	오진경	101
여성학의 미래	페기 매킨토시	105

- from Their Nineteenth Century Experiences in the U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tzer, G. (ed.) (1987), *Education: Men and Women Together*, Copenhagen: In a Changing World, Uppsala, Swede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Lewis, C. (1991) *Women's Education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 Robson, H.M. (1981), *In the Company of Educated Wome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Talbot, M. (1984, November 22), "The Gender Trap: Are Women's Colleges Still for Women?" *Washington Post Magazine*.
- Tidball, E., Smith, D., Tidball, C., & Wolf-Wendel, L. (1999), *Telling Women's Stories: Lessons and Legacies for Higher Education from Women's Colleges*, Phoenix, AZ: ACE/Clay Press.

1. 여성학의 이론과 방법	김영희
2. 여성학의 방법론	김영희
3. 여성학의 이론과 방법	김영희
4. 여성학의 방법론	김영희
5. 여성학의 이론과 방법	김영희
6. 여성학의 방법론	김영희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학술회의
2000. 5. 25 - 5. 26

여성학의 미래: 학문다양성과 지성공동체

조 주 현
계명대 여성학

1. '여성적 가치'와 여성학의 미래

21세기 미래사회는 기술과학이 주도하는 지식정보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단일 코드로의 통합에 있다. 현재 우리는 지구적 차원의 규격화, 상호호환성, 탈맥락화, 보편성이 편제하는 사회로의 재편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추상화된 보편적 지식에 대한 요구와 그를 통한 보편성의 편제는 인간의 능동성(차이와 역사성)을 무화시키고 모두가 대상화되는 사회구조를 보장하는 측면을 지닌다. 한편, 20세기에 우리는 지배와 발전과 진보에 대한 욕망이 결과한 생태계의 총체적 위기가 보편화된 지식에 대한 요구가 야기할 수 있는 한 단면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에 대한 반론으로 전개된 국 지성에 대한 지식체계, 즉 어디서나 진리가 구성될 수 있으며, 그것은 보편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인식론적 상대주의는 자신의 지식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여성적 가치”는 이런 추상적인 보편주의와 객관성에 대한 저항이면서, 동시에 지식을 언어적 게임으로 환원시키는 상대주의에 대한 저항 가치로 자리잡는다. 여성적 가치의 패러다임에서는 지식대상의 경험을 자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의 경험으로 보며, 연구자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자신의 설명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여성적 가치”의 지식이란 나눔과 배려의 가치, 성찰성, 관계지향성, 사랑과 보살핌의 시각에서 얻어지는 지식이며 권력과 지배의 근대적

패러다임을 균형과 조화의 패러다임으로 대체하는데 적용되는 것이다. 여성학의 미래는 “여성적 가치”(페미니스트 세계관)를 지성공동체에 하나의 해석틀로 자리잡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다.

그 동안 역사적으로 각 사회는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성적 가치”(과학적 객관성, 보편성)에 의존하여 페미니즘이 출현하는 것을 목격하였었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 전개된 산업화는 개인을 출현시켰고, 여성은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에 의존하여 여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21세기 사회는 “남성적 가치”에 의존한 지식체계의 공과에 근거해, 그 출구로서 그 동안 산업사회에서 폄하되어 왔던 “여성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여성적 가치”가 그 시대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인식에서 볼 때 여성학은 이제 남녀평등을 주장해 오던 패러다임에서 더 나아가 “여성적 가치”로 패러다임을 재구성하는,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본다. 여성학의 미래는 시대가 여성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성학 연구자들이 그에 답할만한 연구결과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여성학의 쇠퇴에 대한 기우는 기우일 뿐이라고 본다. 여성학이 대학에서 뿌리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여성학이 쓰임새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성학이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바꾸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서 기존 체제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학을 의식적으로 따돌리거나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학이 자리잡게 되면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모든 학문은 간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었다. 여성학도 예외가 아니다. 여성학의 미래는 여성학이 쓰일만한 학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2. “여성적 가치”와 지식생산

이 같은 “여성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식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균형과 조화의 패러다임이 권력과 지배의 패러다임에 대해 경쟁력이 있을지의 여부는 사회전체의 조건에 달려 있다. 사회의 분위기가 권력과 지배의 패러다임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성적 가치”를 수용하는 상황이라면 “여성적 가치”는 약점이 되

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여성적 가치”의 지식 추구가 연구력이나 동기유발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권력과 지배의 패러다임이 생산성이 높았던 것은 공격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가 전체적으로 여성적인 관점으로 자연과 사회를 보는 관점이 팽배해 진다면, ‘여성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지성공동체에 ‘여성적 가치’의 지식을 어떻게 자리잡게 할 수 있을까?... 먼저 대상집단을 준비된 집단과 준비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여성적 가치”의 지식 생산은 준비된 집단으로서, 여자대학을 중심으로 지식 정비작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각 학문마다 “남성적 가치”의 관점이 그 동안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는가를 조사해 볼 수 있으며, 그 관점을 “여성적 가치”의 관점으로 바꿨을 때 연구의 성격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적 가치”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분야가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다. 인류학과 생물학에서는 이런 경향이 이미 보이고 있고, 이것은 경제학과 자연과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즉 여성적 가치의 도입으로 연구목표와 연구관심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여성적 가치의 도입이 모든 학문분과에 동일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영역은 학문의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연구자들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관점이 변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영역은 학문의 성격과 구성원들의 관점이 모두 변할 수 있다. 특정분야(예, 경제학, 생물학)를 선택해서 세밀히 연구한 후에야 “여성적 가치”가 미칠 영향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적 가치”의 학문다양성과 여성학의 역할

모든 학문은 인간생활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진다. 인문학은 물론이고, 사회과학(예,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역시 인간관에 근거해 기본 입장이 이루어지며, 공학과 자연과학의 경우, 비교적 인간적 가치와 독립적인 자연관에 근거해 기본 입장이 이루어지지만, 그 연구행위가 인간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간생활과 관련되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여성학은 어떤 학문이든 그 학문의 지식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

는 부문에서 여성학적 개입을 할 수 있다.

여성학의 역할은 각 학문을 여성학 내에 통합시킨다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여성적 가치의 분석틀(도구)을 다양한 학문에 제공해주는 데 있다. 예를 들어보자. 자연과학은 현상을 분석하려는 특정 틀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다. 이 틀이 "여성적 가치"에 근거한 틀로 대체된다면, 새로운 분석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Demonic Males* (Wrangham & Peterson, 1996)나 Bonobo 원숭이에 대한 영장류학의 고찰들은 "여성적 가치"의 관점이 그 분야에 자리잡지 않았더라면 쉽게 취할 수 없는 관점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또 법학은 법을 해석할 때 "여성적 가치"의 관점으로 본다면 기존의 해석과는 많이 다르거나 상반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4. "여성적 가치"와 여자대학의 역할

"여성적 가치"와 관련한 여자대학의 역할은 "여성적 가치"의 지식을 생산하는 것과 여성적 삶의 공동체의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지금까지 말해온 바와 같이, "여성적 가치"의 지식을 정비하는 중심 장이 되는 것이다. 여성학은 여자대학에서 "여성적 가치"의 분석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여성적 가치"가 삶의 가치로 자리잡는 지성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즉 "남성적 가치"가 주도했던 사회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자대학 내 구성원들 사이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을 시도할 수 있으며, 또 성차별 문제나 성희롱 같은 여성주의 운동에서 제기했던 사회적 병폐들을 자연스럽게 치유할 수 있는 남녀관계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어쩌면 관료제의 병폐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공동체 개념을 도입하는 시범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학술회의
2000. 5. 25 - 5. 26

생물학자가 본 여성적 가치와 여성학

최 재 천
서울대학교 생물학

나는 금년 초 TV 강연을 통해 과감하게 '여성의 세기'가 열렸음을 만천하에 알렸다. 유엔이 평가하는 여성권한지수로 볼 때 80위권에 머무는 여권후진국에서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인가 하겠지만 여성의 세기가 오고 있음은 그냥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 세기말 새로운 세기를 맞으며 미래학자들은 많은 예측들을 제시했다. 21세기를 가리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간성 회복의 세기가 될 것이라 하기도 하며, 자연과학 중에서도 생물학의 발달이 두드러져 생명과학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위의 예측들이 상당부분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인데 반해 여성의 세기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나는 이 짙막한 논평을 통해 생물학자로서 분석한 여성적 가치를 제조명하고자 한다. 나는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하여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생물학자이다. 진화 생물학자로서 여성학을 논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진화론과 여성학은 매우 불행한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진화생물학의 한 분야인 사회생물학(E.O. Wilson, 1975. *Sociobiology: The New Synthesi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이 처음으로 소개되었을 때 사회생물학이 단순히 유전자 결정론을 옹호하는 학문이라고 오해한 페미니스트들이 진화론 자체를

반여성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두 이론은 악연의 역사를 걷게 되었다.

다윈도 어쩔 수 없이 빅토리아시대의 남성이었기 때문에 종종 남성우월적 또는 여성비하적인 표현을 썼지만 그의 이론은 철저하게 여성중심적이다. 다윈의 자연질서에 따르면 자식이 먼저이고 그 자식을 생산하는 여성이 그 다음이며 남성은 어쩔 수 없이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다윈은 1859년 <종의 기원 On the Origin of Species>을 출간한 지 12년 후인 1871년 <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를 발표하며 자연선택설에 덧붙여 성선택설(sexual selection)의 개념을 소개했다. 생물의 형질 중에는 비록 자연선택에 의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지만 오로지 번식에 유리하다는 특성 덕분에 이른바 '성선택'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주체는 거의 예외 없이 암컷이다.

다윈은 자연계를 통틀어 더 아름답고 노래도 더 잘 하고 춤도 더 잘 추는 것들은 거의 언제나 수컷들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그 모두가 암컷에게 선택받기 위한 수컷들의 진화적 적응이다. 다윈은 이를 성간선택(intersexual selection)이라 불렀다. 성에 관한 한 그 선택권이 대체로 암컷에게 있다 하여 암컷선택(female choice)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컷들은 이처럼 암컷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자신을 보다 매력적으로 치장하게 되었는가 하면 다른 면으로는 암컷에게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 끊임 없이 경쟁한다. 자연계를 둘러보면 그래서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 것들은 거의 모두 수컷들이다. 다윈은 이 같은 경쟁과정을 성내선택(intrasexual selection) 또는 수컷경쟁(male-male competition)이라 불렀다.

다윈의 성선택설은 그의 자연선택설보다 당시 영국 남성들에게 훨씬 큰 충격을 주었다. 인간과 원숭이가 공동 조상을 지녔다는 자연선택설의 설명보다도 성의 선택권이 여성에게 있다는 것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론이었다. 엄청난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연선택에 관한 연구는 <종의 기원>의 출간과 더불어 곧바로 시작된 반면 성선택에 관한 연구는 거의 100년 가까이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간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성선택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여권신장운동과 거의 때를 같이 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의 결정권이 대부분의 경우 암컷에게 있는 이유는 한 마디로 번식에 대한 암컷의 투자가 수컷의 투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우선 난자와 정자만 비교하더라도 정자는

그야말로 수컷의 DNA에 꼬리만 하나 달아놓은 격이지만 난자는 암컷의 DNA 외에도 초기발생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갖추고 있다. 정자가 난자를 파고드는 장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마치 달 표면에 내려앉는 우주선을 방불케 한다. 이 세상에 정자처럼 경제적으로 제작된 기계는 또 없을 것이다. 배우자를 만드는 과정을 제외한 번식의 다른 과정에서 수컷이 암컷에 비해 훨씬 더 큰 투자를 하지 않는 한 거의 모든 생물에서 성에 관한 결정권은 암컷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경우 종종 혼인이나 성생활에서 남성의 결정권이 상당한 것으로 보일 때가 있으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수준에서 결정권은 역시 여성에게 있다. 인간도 엄연히 포유류의 일종이고 진화의 산물이고 보면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겠건만 표면적으로나마 남성에게 결정권이 있는 이유는 아마도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며 부의 축적이 가능해졌고 부의 대부분이 남성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여성의 경제력이 증가하면 결혼제도나 부부생활의 남녀간 불평등구조가 매우 달라질 것이다.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염색체의 차이가 있고, 따라서 유전자의 구성도 약간 다르며 그에 따른 형태적인 차이가 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남녀의 사회적 기능과 위치가 달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근육의 힘 차이에 의해 남녀의 작업이 분업화되던 시절은 막을 내리고 있다. 현대사회의 산업구조는 정보통신산업이 주축을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성이라고 불리할 이유가 없는, 어떤 의미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산업구조로 바뀌고 있다. 실제로 외국에는 많은 여성 기업가들이 등장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집사람'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하며 가사를 비교적 균등하게 분담하거나 둘 중 경제력이 우월한 쪽이 주로 바깥일을 하고 그렇지 못한 쪽이 가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현명해질 시기가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동물로 치다면 갈매기 부부와 같은 관계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갈매기 부부의 하루 일과를 관찰해보면 거의 정확하게 반씩 나눠 바깥일과 집안일을 한다. 남성이 집안일에 소질이 없다는 식의 궤변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많은 가정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인 변화가 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간다고 해도 인간은 엄연

히 포유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단 수태가 되면 여성이 9개월간의 임신 부담을 안는다. 대부분의 포유류에서는 바로 이 기간동안 수컷들은 다른 암컷을 찾아나설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므로 대개 일부다처제의 짝짓기 구조를 갖추게 된다. 현대문명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남녀가 일부일처제의 가족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종족의 수를 조사해보면 인간도 어쩔 수 없이 일부다처제 동물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불균형도 바야흐로 사라질 즈음에 있다. 시험관아기는 물론 대리모와 인공자궁에서 심지어는 복제인간과 맞춤인간도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다. 이제 머지 않아 부부는 병원 또는 태아관리기관에서 정자와 난자만 제공하면 인공자궁 또는 자신의 자궁세포로 복제한 체외자궁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된다. 그런 기술이 완벽한 수준에 달하고 세상의 거의 모든 여성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게 될 때에도 구태여 9개월씩이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고생을 자초할 여성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여성이라고 해서 임신의 명예를 혼자 뒤집어쓰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 오면 그만큼 남녀평등은 한 걸음 더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나는 이 같은 변화가 우리 나라에서는 한층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라 예측한다. 지나친 아들선호로 인한 남성편중의 성비가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동물들의 짝짓기 구조를 보면 희귀한 성이 선택권을 쥔다. 전세계에서 가장 불균형한 성비를 갖고 있는 우리 나라의 여성의 가치는 무서운 속도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한다. 거기다 여성들이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게 되면 혼인이나 다른 많은 사회관계에서 남성의 위치는 엄청나게 위축될 것이다. 아들을 무작정 선호했던 어머니들 덕분에 여권의 성장이 한층 더 빨라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나라가 매우 작은 나라라는 사실이다. 생태학적으로 작은 집단에서는 큰 집단에 비해 급격한 변화가 자주 일어난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변화속도는 가공할 지경이다. 일단 여성중심으로 분위기가 잡히고 나면 순식간에 가속도가 붙는 사건들이 잇달아 벌어질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들에 걸린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이다.

셋째, 우리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우수하다는 사실이다. 스포츠를 비롯하여 거의 전 분야에서 우리 나라 여성들은 국제 무대에서 외국 여성들에 비해 월등함을 과시해왔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우리 나라 여성들은 타고난 형질 자체

도 우수하지만 교육수준도 최정상급이다. 지금은 사회가 구조적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엄청난 국제경쟁력을 지닐 것이다.

나는 동물의 세계에서 암컷의 위치가 이러하니 인간 사회에서도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식의 이른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남성에게 유리하도록 꾸며져 있던 자연주의적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것뿐이다.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가 절규했던 '제2의 성(The Second Sex, 1949)'이 불과 50년만에 헬렌 피셔(Helen Fisher)의 '제1의 성(The First Sex, 1999)'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제 바야흐로 남성학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여성학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 사회의 반쪽으로서 여성의 권익을 부르짖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의 성원으로서 여성의 위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나는 여자대학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학술회의
2000. 5. 25 - 5. 26

여성학의 미래와 여성지성 공동체

김 은 실
이화여대 여성학

미래는 과거를 망각하거나 과거를 지워 욕망하는/새로운 것을 말한다고 오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미래는 현재로부터 즉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조직들의 재결합 혹은 그것들의 틈새에서 새롭게 등장한다. 그래서 미래를 논한다는 것/ 구상해본다는 것은 현재와 현재를 구성해내는 과거의 경험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틈새들을 들여다보면서 상상해낼 수밖에 없다.

지난 1999년 5월에 이대에서는 김활란 박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20세기 한국사회에서의 여성교육의 의미, 여자대학의 역할 등에 관한 논의들을 진행시킨바 있다. 본 패널의 주제인 여성학의 미래와 여성지성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작년의 주제와 맥락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작년 김활란 학술대회에서 나온 가장 상징적인 말이 '끼어들기'와 '새판짜기'였다. 끼어들기와 새판짜기는 이후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새천년의 길목에서 여성지식인들의 과제 혹은 여성학의 위상을 정체화하는 말로 여러 곳에서 회자되었다.

'끼어들기'란 여성들이 지식사회(지성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들을 받고, 여성 지식인들이 배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은 지식사회에서의 남녀의 비율(남녀 대학생의 비율이나 남녀교수비율 등)이나 남녀의 사회참여율 등을 통해 얼마나 끼어들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다. 지난 1세기 동안 진행된 여성들의 끼어들기는 충분히 그 의미와 역할이 있었지만, 끼어들기의 모델은 공/사, 남/녀의 이분법에 근거한 가치

의 위계를 수용하면서 진행된 것이 었다. 즉 공적 영역에 있는 남성들의 가치를 여성들이 습득해야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끼어들기는 사적영역에서 경험되는 여성적 삶의 자기부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일지라도 자기긍정을 통한 역사적 주체로 자신을 만들고/주장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 최근 한국에서 소위 일류라고 일컬어지는 남녀공학을 나온 여성 대학졸업자들의 자기 경험을 담은 '그 많던 여학생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나는 페미니스트이다'라는 책들은 20세기 말 한국 여성들의 '끼어들기'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

근대지식 사회에 여자들이 끼어든다는 것이 여성들의 삶과 경험을 지식으로 구성해내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정하고 타자화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질문은 70년대 이후 등장한 여성학에 의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즉, 열심히 하면 모든 여성들은 충분히 끼어들 수 있는가, 그리고 끼어들면 그 지식들/인식들은 여성들의 삶, 경험을 충분히 가시화하고, 여성들을 대표/재현하는가, 그 끼어든 지식들/지식체계는 여성들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을 비롯하여 다른 주변인/타자들을 충분히 긍정하고 대변하는 가치를 지녔는가 하는 문제들을 제기했다. 여성학은 지식사회가 갖는 남성중심성/서구중심성/중산계급중심성 등 근대 지식체계/사회가 갖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틀이 여성이 살아온 경험과 여성들이 지니는 가치들을 부정하고 있고, 여성들을 타자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비판해왔다.

여성운동과 함께 등장한 이러한 여성주의적 시각은 여러 학제로 분리되어 있는 여성지식인들에게 광범한 영향을 주었다. 여성지식인들은 여성의 삶에 기반한 여성적 가치를 긍정하고 여성이 살아온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삶의 역사를 가시화하고 그 경험을 지식으로 전환시키게 되면서 근대 학문 혹은 지식체계가 갖는 남성중심성/서구중심성/중산계급 중심성을 비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여성지식인들로 하여금 근대적 학제구분을 넘어선 여성(주의) 지식공동체를 구성해내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지식인들의 초학제적 지성공동체의 모습은 서점의 여성학 코너나 여성학 학회지의 기고자들의 다양성, 그리고 그들이 인용하는 저서들의 다양성에서도 볼 수 있다. 20세기 초에 끼어들기를 시작한 한국여성들은 20세기 말에는 기존의 남성중심의 지식체계와 역사기술 그리고 문화를 비판하는 이러한 여성학/여성주의적 연구를 거

의 모든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학은 20세기 말에 한국대학에서 여태까지 한번도 타자의 시각과 정치학 그리고 주류 지식이 갖는 독재와 폭력성을 논해보지 않았던 한국의 지식사회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주변적이지만 유일한 레퍼런스가 되었다.

그러나 여성gender이라는 범주에 기반한 여성학은 21세기를 맞으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대립적 구조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따른 획일성, 상투성, 문제해결의 평행성 등이 지적된다. 더욱이 모든 경계가 흔들리는 후기 근대에 여성이라는 성별적 정체성은 여성들이 자신들을 이해하고 규정하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전지구적 세계화와 초국가적 문화산업의 등장, 전자미디어와 사람들의 이동/이주/여행은 지역이나 장소를 통해 획득되었던 정체성의 문제를 모호하게 하는데, 여성이라는 성별적 정체성은 여성들에게 동일한 의미를 생산하는가하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혹자는 21세기에도 여성학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실 여성학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70년대 후반 이후부터 싹트왔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에 기반한 인식틀, 그리고 여성이라는 집단 혹은 범주를 남성과 대비되는 구체적이고 파악가능한 동질적인 범주나 가치로 묶을 수 있는가하는 질문은 지난 20여년간 여성학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여성학”의 ‘여성’은 어떻게 정의되어지는 집단/범주/주체인가하는 것이다.¹⁾

여성에 대한 여성주의적/여성학적 질문은 ‘여성이 무엇인가’라는 독립적이고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에 대한 물음이 아니다. 이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위계화된 범주로 존재하는 ‘여성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즉, 자신을 ‘성별화된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여성과 그들을 ‘성별화된 여성’ 주체로 만드는, 바로 그들을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치학을 의미한다. 20세기 말에 페미니즘을 둘러싼 비판들에 대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동의하기도 한다. 페미니스트들 역시 여성의 성별을 여성 정체성의

근거로 특권화시키면서, 여성들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시에 성별을 어떠한 사회관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여성연구나 여성운동 담론들이 페미니즘을 뻔한 이론, 뻔한 정치학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비판들은 해결될 수 있는데, 다양한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구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성찰하고, 거기에 기반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대안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성들의 성별 정체성의 정치학과 여성들이 갖고 있는 다른 다중적인 정체성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제휴의 정치학을 이론화하고 정치적으로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바로 새판짜기를 위한 여성학적 제안들인데, 그 시도들은 성별을 어떻게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여성들이 갖는 다양한 삶의 현실을 어떻게 공시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지는 정치적인 차이로 사유해낼 것인가하는 것을 토론하고 이론화하는 것들이다. 경계가 유동적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정체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단선적인 시간 개념 위에서 구축되었던 발전 모델의 인식론을 벗어나야 한다. 하나의 정체성 그리고 또 다른 정체성의 출현 속에서 과거의 것을 보지 못하게하거나 지워버리는 이러한 사유방식, 인식방식으로는 전지구화되고 초국가적 맥락이 증가하는 곳에서 성별에 준거하는 여성 정체성만이 여성의 현실을 구성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21세기, 후기근대에서의 페미니즘의 이슈는 성별의 경계와 교차하는 많은 경계들이 만들어내는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다른 진보적 사회사상이나 사회운동과 함께 해결하는 제휴와 공존의 문제의식 속에서 성별의 문제를 위치시킬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거의 자연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성별에 입각한 여성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별 정체성이 다른 타자성과 공존/연대를 해야하는가를 인식하고 연습해야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라든가 인종 계급 혹은 성적정체성이 다른 여성들과 그리고 다른 종류의 타자성을 경험하는 주변인들과의 공존과 연대를 가능케 하는 공시적인 지형학적 인식론으로 여성들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새판을 짜야한다는 주장은 많지만 새판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다. 새판은 구판의 결함을 완전히 없애 완벽한 대안일 수 없다. 공존과 제휴의 원칙 위에서 구축될 새판

1) 이것은 오늘 우리논의의 핵심인 여성적 가치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하는 문제와도 맞닿아있는 질문이다. 또하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여성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영어 번역으로는 feminist value인데 이는 번역과정에 개재되는 이해/맥락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논쟁적 이슈라는 것이다.

은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가 대립 충돌하는 모습으로, 이상하고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크고 작은 것들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기존의 눈으로 볼 때는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혼성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모순적이고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공존시키는 지혜를 갖는가하는 것일 것이다. 여성에 의해 제기되는 지성공동체는 이 새판에 대한 나름의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새판에는 여성들내의 다양한 여성 주체들이 공존하는 사회적 문화적 장이 구축되어야 하고, 다른 역사적 조건 속에서 구성되어온 다른 타자들의 역사와 삶, 경험을 이해하고 재휴하는 정치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새판의 논의에서 우리사회에서 여성학은 타자성을 이해하고 배우는 상상력과 감수성 그리고 공존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연습을 하는 하나의 경험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적 가치 (여기서는 feminist value)는 이제까지 타자화되었던 여성의 경험에 부여되는 정치적 의미로 수용되어야 하고, 여성(주의) 지성공동체는 바로 근대의 이성/남성/서구 중심의 지식체계에 대한 대안적 그리고 비판적 담론 공동체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학술회의
2000. 5. 25 - 5. 26

정보사회 속의 미술문화와 여성주의적 논의

오진경
이화여대 미술사학

예술작품은 작가의 고유한 상상력과 감성에 의거하는 개인적 속성과 당대의 모든 정치, 문화, 기술적 배경을 반영하는 사회적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과 과학적 기술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대립적인 것이기보다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이며 양 영역의 발전과 변화에 필요한 추진력이야말로 이 두 요소의 상호 영향관계에서 생긴다. 이런 시각에서는 현대 미술계에서 첨단 정보과학 기술이 창조 및 전달방식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늘 “여성학의 미래: 학문 다양성과 여성공동체”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 자리에서 본인은 현대 정보사회의 시대적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미술문화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문제에 관해 생각해보려 한다. 미술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페미니즘적 논의들의 흐름을 살펴볼 때 새로운 지식 정보사회 속에서의 그 전망은 어떠한지, 또한 그 가능성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술이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개인들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능력과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개인들을 둘러싼 주변의 사회적 세력들로부터 끊임없는 영향과 간섭을 받으면서 형성되는 사회적 산물이기도 하다. 하나의 미술작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들인 사회제도들, 즉 미술학교나 미술관 그리고 미술 후원체계들은 신성한 창조자로서의 위대한 미술가라는 신화적인 의미를 만들어 낸다. 린다 녹클린의 “왜 위대한 여성미술가는 존재치 않았는가?”라는 논문은 바로 이러한 위대

한 미술가의 신화를 비판하며, '위대성'의 개념이란 여성과 남성이라는 다른 성적 존재들이 차지하는 문화 속에서의 위상에 관계된 이데올로기로부터 나온 것임을 강조한 글이다.

1970년대에 전개된 초기 페미니스트 미술사가들과 미술가들은 여성/남성의 관계를 자연적/문화적, 본능적/분석적 등의 대립적 상관관계로 보았던 미술계의 전통적 시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즉 여성적인 미술을 장식적이고 화려하며 세밀화적이거나 감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절대적이고 합리적이며 내재적인 본질을 추구하는 모더니즘미술을 남성적인 특성으로 보는 주류미술사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1세대 페미니스트 미술가들이나 미술사가, 비평가들은 주류미술사에서 제외되었거나 간과되었던 여성미술가들을 새로이 조명하고, 유화나 조각 등에 비해 저급한 미술분야로 (minor로) 취급받던 여성들의 전담분야인 수공예나 도자 등의 장르를 더욱 강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1980년대 이후의 새로운 페미니스트 2세대들은 이제 녹클린의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그 위대성에 대한 개념 자체도 비판하게 되는데, 위대한 미술가라는 것, 천재라는 개념을 거론한다는 것은 과거 전통적인 남성주의적 태도를 연장하거나 보다 강화시켜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위대함이라든가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개념은 모두 지배계급과 피지배라는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거나 반항하는 갖가지 반응들이라고 보고 있다. 여성성이 간과 당해온 과거에 대한 반응으로 그 여성적 특성을 강조하는 반응을 보였던 초기 페미니스트 1세대들의 본질주의적, 분리주의적 태도에 비하여 이 2세대들은 남성적이라든지 여성적이라든지 하는 확정된 감정적이고 심리학적인 특성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여성성을 남성성에 대비하여 고정시키려는 시도는 여성에 관한 고정되고 단일화된 상투형을 지속시키는 위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여성성을 규정하면서 예찬하려 한 다든지 그러한 여성성의 경험을 지지한다든지 하는 방식은 결국 과거 남성들이 해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여성성에 관한 또 하나의 '신화화'를 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본인 역시 권위적인 주체를 비판하고 의미생산의 문화적 해체모니를 해체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성을 끊임없이 탈 고정화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미술에 있어서의 페미니즘적 논의는 이제 권위적인 해답을 제공하거나 폐쇄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담론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의 다양성과 복수성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여성들의 공통점을 찾고 사회 속에서 여성성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그 교차점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여 이제 우리의 논의는 미술문화라는 텍스트적 체계 내에 각인되어 있는 남성적 권위의 산물인 각종 개념들에 대한 비판적 양태를 발전시키는 일을 행하면서 모든 사회구성원간에 상호 교차적인 사고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작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대 정보사회 속에서는 기존의 아날로그식 시·공의 개념이 지녔던 한계에서 벗어나 정보제공자와 수신자와의 상호 호환성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식, 문화의 공동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해진다. 본인이 정보사회 속의 미술문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미술문화에서의 페미니즘적 논의의 흐름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방법론적으로 볼 때 인종, 계급, 문화 전반에 걸쳐 학제간 교차지점에 놓여진 가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분석과 연구를 주요 학문적 태도로 취하게 된 페미니스트 미술 논의는 정보화시대 속에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학문적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이버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만남은 많은 경우 가상의 리얼리티를 전제로 하므로 대부분 생물학적 성적 정체성이 밝혀지지 않는 익명 또는 가명의 존재들의 만남이 될 수 있다. 생물학적 성이 배제된 또는 불필요해진 이러한 인간 관계에서는 성차라는 의미가 더욱 철저히 문화적인 맥락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제까지 미술계에서 행해져 왔던 여성주의적 논의들, 즉 전통적인 의미생산의 문화적 해체모니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통해 문화적,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끊임없이 탈고정화 시키고자 했던 작업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뚜렷한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태도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성적 권력이 확립한 미술계라는 체제 안에서 단순히 여성 문화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한다거나 특정한 여성공동체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넘어, 다른 제도적인 질서와 마찬가지로 미술적 가치가 이데올

로기로서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끊임없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현대 정보사회 속의 미술문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는 시각적인 재현이나 그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이념적인 권력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총체적인 비판운동의 성격을 지녀야 하며, 그런 태도야말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학술회의
2000. 5. 25 - 5. 26

여성학의 미래

페기 매킨토시

Peggy McIntosh

Center for Research on Woman

· Wellesley College · 미국

나는 여성학이 계속 전세계 대학에 퍼져 나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나는 여성학이 생산해내는 자료, 연구, 이론이 계속해서 공공 정책, 대중 매체, 인터넷 망, 법, 의학, 고기술 창안, 상품, 정부 기구 및 비정부 기구, 그리고 여성, 남성, 아이들의 일상을 포함한 대학 외부의 많은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나는 더 많은 교수직, 출판물, 기부금, 대학원 프로그램, 풀뿌리 프로그램, 여성 연구 센터, 여성 지원 센터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나는 또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여성학에 대한 저항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여성들이 여성학을 하려고 한다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일생 동안, 그리고 내다볼 수 있는 모든 미래에 여성학에 대한 가부장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저항은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모두의 안에서 일어나며, 의식적이기도 하고 무의식적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성학은 계속 수행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그것은 평화 운동과 유사할 수도 있다. 여성학과 평화 운동은 항상 저항을 받지만 어쨌든 계속된다. 전쟁에 직면해서도, 여성학과 평화 운동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성과 상식 그리고 영적 지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나는 여성학이 이미 그렇듯이 상이한 나라들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상이한 문화와 정치적 경험 때문에 사물을 보는 방식은 달라진다. 학

로기로서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끊임없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현대 정보사회 속의 미술문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는 시각적인 재현이나 그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이념적인 권력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총체적인 비판운동의 성격을 지녀야 하며, 그런 태도야말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학술회의
2000. 5. 25 - 5. 26

여성학의 미래

페기 매킨토시

Peggy McIntosh

Center for Research on Woman

· Wellesley College · 미국

나는 여성학이 계속 전세계 대학에 퍼져 나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나는 여성학이 생산해내는 자료, 연구, 이론이 계속해서 공공 정책, 대중 매체, 인터넷 망, 법, 의학, 고기술 창안, 상품, 정부 기구 및 비정부 기구, 그리고 여성, 남성, 아이들의 일상을 포함한 대학 외부의 많은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나는 더 많은 교수직, 출판물, 기부금, 대학원 프로그램, 풀뿌리 프로그램, 여성 연구 센터, 여성 지원 센터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나는 또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여성학에 대한 저항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여성들이 여성학을 하려고 한다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일생 동안, 그리고 내다볼 수 있는 모든 미래에 여성학에 대한 가부장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저항은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모두의 안에서 일어나며, 의식적이기도 하고 무의식적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성학은 계속 수행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그것은 평화 운동과 유사할 수도 있다. 여성학과 평화 운동은 항상 저항을 받지만 어쨌든 계속된다. 전쟁에 직면해서도, 여성학과 평화 운동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성과 상식 그리고 영적 지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나는 여성학이 이미 그렇듯이 상이한 나라들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상이한 문화와 정치적 경험 때문에 사물을 보는 방식은 달라진다. 학

계의 여성학은 유럽과 미국의 제도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리고 여성학 이론이 처음에는 그러한 정황에서 처음 개발되었지만,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의 많은 다른 지역에서는 사람들은 빠르게 그들의 나름의 이론을 개발하고 있다.

나는 여성학이 성차별 주의, 이성애 중심주의, 계급 차별 주의, 제국주의, 지구화, 인종 차별 주의, 지역주의, 종교 탄압, 그리고 모든 다양한 형태의 지배와 복종 사이의 상호 관련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드러내면서 학문적으로 보다 일관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여성학은 서구 백인 가부장제 안에 그리고 그것 너머에 존재하는 권력 체계를 분석하는 데 보다 많은 기술을 갖추게 될 것이다. 코카서스 인이 아닌 여성들의 말이 여성학에서 보다 중심으로 될 것이다.

나는 여성학자들이 심리 내부의 삶이 어떻게 외부의 사회적 삶을 비추는지를 아는 데 보다 심오해질 것이라고, 또한 여성학자들이 우리 스스로조차도 사회의 모든 권력 관계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더 잘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나는 이처럼 국제적 권력 관계가 여성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조건뿐 아니라 심리에도 영향을 미쳐 왔다는 것이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나는 여성학이 개인적 서사가 21세기 초 위대한 장르가 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나의 견본"이 보다 존중될 것이다. 회고록과 자서전이 보다 존중될 것이다. 나는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표어와 유사한 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믿는다: 지구적으로 보고 지역적으로 증언하라, 세계의 이야기를 듣고 너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라.

나는 지구를 돌보는 것이 점점 더 인간 존재를 돌보는 것과 병행하는 여성학의 한 주제로 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나는 여성학 프로그램이 미국과 영국에서 온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알 수 없는 포스트 모던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어떤 학생들, 선생들과, 독자들과 일반 공중을 몰아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통찰이 더 평이한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 한 여성의 현실적 일상생활과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이론들 사이가 연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역겨움을 느끼는 많은 잠재적 동맹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문화적 틀과 그것에 대한 정당화가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같은 주제들은 세계의 여성학들을 연합시켜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연대시켜 주는 다른 주제들에는 고통, 쾌락, 권력, 성, 상호관련성, 종교, 영성, 예술, 표현성, 가족, 돈, 농업, 고용, 정부, 의례, 그리고 모든 형태의 힘듦 우기가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배우기가 여성 논제들과 문제들에 대한 현재의 강조에 균형을 잡아줄 것이다.

나는 여성학의 교수법이 여성의 경험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기 위해 계속 변화할 것이며, 점차로 교육학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남학생에게도 마찬가지로 유익한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나는 여성학 분야에 여성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전략을 펼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과 긴장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예를 들어, 여성학은 여러 분야들로부터 교수진을 빌어오는 프로그램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독립 구조를 지닌 학과여야 하는가? 여성학은 다른 모든 분야에 있는 교수진을 가르쳐야 하는가, 아니면 여성 중심적인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여성학은 그 이름을 성별 연구(Gender Studies)로 바꾸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연구해야 하는가? 여성학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노동자들에게? 공동체에서 아니면 마을 센터에서? 여성학은 대학 밖에 활동가 기획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논쟁을 하는 동안 여성들은 그들 사이에 짜여 있던 직조를 찢어 버릴 것이다. 이것은 가부장제가 바라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야 한다.

나는 정부 기구들과 몇몇의 비정부 기구들이 계속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이것을 여성에 대한 의미 있는 작업으로 제시하리라고 예상한다. 그 작업은 그것들이 발견한 사실들의 의미에 대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분석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의미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구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는 여성학이 지식을 가져다 준다고 스스로를 계속 정당화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대학 내에서 가장 강력한 주장은 인간 종족의 절반을 제외시켰던 지식은 건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나는 말하겠다.

나는 여성학이 세계에서 보다 유용해지고자 한다면 "생물학적 성"과 "성별" 사이

의 기본적인 구분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1970년대 초에 이러한 구분은 미국의 여성학에서는 분명한 것이었다. 최근 30년 동안 그 구분은 미국에서 희미해졌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더 이상 개인을 넘어서 구조를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남성 통제의 대중 매체들이 여성과 남성이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생물학적 성”과 “성별”이라는 말은 상호 교환될 수 있는 말로 쓰여 왔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970년대의 이해는 이러한 것이었다. 한 아기는 생물학적인 남아나 여아로, 즉 남성이거나 여성의 생물학적인 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다. 아기가 자라기 시작하자마자 곧 가족과 사회는 그 아기에겐 생물학적 성 때문에 어떤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지를 말하면서 그 아기를 제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규칙의 집합은 창안된 것이어서 그래서 문화마다 다르며,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 변화될 수 있다. 여성학에서 우리는 이렇게 창안된 부분을 성별이라고 불렀다. 그것이 소년이나 소녀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것이고 예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문화에서 한 가지 성별에 교육은 “소년은 울지 않는다”이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소년은 운다. 사실상 그들은 “소년은 울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 이미 항상 울고 있을 것이다. 소녀들은 보통 그들이 “소녀는 나무에 오르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 이미 나무에 앉아 있다. 몇 년이 계속 흐르면 몇 년 동안 운 적이 없었던 남성은 이것이 성별 훈련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생물학적 성의 한 측면이라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말 그대로든 또는 비유적으로든 올라가지 않는 여성들은 여성들이 “오르지” 않는 것이 여성의 생물학적 성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그래서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이 되는 성별 교육은 모호한 것이며, 생물학적 성 사이의 차이는 자연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진다. 즉 그것들은 “자연화”된다. 근본주의 종교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의 모든 차이들을 “자연화한다”.

성별 교육은 검증되고, 질문되고, 버려질 수 있는 관념들의 유산으로 가득차 있다. 성별 교육은 미국의 여성들에게 여성이 의사라 되면 아이를 낳는 생물학적 능력을 훼손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의 의과 학생들의 약 절반은 여성들이고, 그들은 아이를 낳는 데 아무런 문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여성의 발은 묶어야 한다는 중국의 관념은 성별 교육이며, 그래서 그것은 변화되고 버려졌다. 여성학 연구는 무

엇이 자연적인 것이며 무엇이 “성별화된”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실제의 복합적인 자아들로부터 분리되어 각각 “반대”가 되도록 교육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될지를 밝혀내는 데 도움을 준다.

보통 성별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비판, 저항, 실험, 그리고 상상력이다. 때로는 국가적인 또는 지역적인 긴급 상황과 외침이 빠른 성별 변화를 가져온다. 여성학은 이러한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도움을 준다. 성별 기대와 예상에서 크던 작던 변화가 오늘날 여성과 남성들에게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모든 커다란 국제 연합 여성 회의들에 대규모의 여성학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있어 왔다. 나는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인터넷은 좋은 나쁜든 어떤 변화들을 가속화시킨다. 한편, 우리는 세계 곳곳의 남성들이 여성들을 돕고 여성들에게서 배우고 남성들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성별 개념들 몇 가지를, 이것들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비판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말하는 것을 듣는다. 다른 한편, 통신상에 많은 포르노그래피와 여성 혐오, 남성 폭력, 여성의 자기 비하가 있다. 그러나 대학 안에서 나는 성차별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폭력, 공격, 착취에 대한 비판으로, 체계적인 이해에 기초한 정의와 온전성에 대한 전망 그리고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으로서 남성학이 여성학과 나란히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조형

이화여대 사회학

여학생들만으로 구성된 여자대학교는 전국에 7개가 있다. 이들 여자대학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학교들로서 여자대학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지난 5-6년 사이만 해도 상명여대, 성심여대, 효성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것을 보면서 앞으로 7개의 여자대학이 모두 여자대학으로 남을 것인지에 의문을 갖는 사람도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몇 학교에서는 내부적으로 공학으로의 전환에 관한 비공식적인 토론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21세기로 접어드는 오늘날 한국의 여자대학들은 정체성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여자대학은 왜 아직도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가? 의 문제에 대한 단견을 정리해 본다.

2. 19세기말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해방이후 확산된 여학교 설치의 배경에는, 한편으로는 근대적 학교교육의 확대라는 근대화의 요구, 다른 한편으로는 모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성 교육의 필요성과 양성 분리의 원칙에 의한 여학교의 분리 설치라는 가부장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였다. 일제시기동안 식민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가 중설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여학생을 위한 여학교가 별도로 설치되었다.

지금은 남녀공학으로 변화한 대부분의 초·중등 학교에서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다

분히 성분리적(gender differentiated)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고등교육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여학생들은 인문학이나 가정학, 아동학, 간호학 등 전통적인 '여성적' 분야의 전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공학(工學)과 의학분야의 전공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느 여자대학교에도 개설되지 않았다.

여자대학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거나 사회적 문제로 여론화되지 않는 것은 실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자대학들이 가부장적 사회에 도전하기보다는 사회가 수용할 만큼의 제한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대학들은 학교의 구성, 행정, 교육과정 등에서 일반 대학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구조화되어 있다. 단지 전공분야가 제한되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이 다르지만, 이는 여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인적 자원을 공급하면서 가부장적 사회체제 유지에 기여해 온 것일 뿐이다.

3. 그러나 20세기 마지막 10년 사이에 여성 고등교육에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30%이상으로 증가되었고, 여학생들은 공학을 선호하고 여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여자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과거처럼 '현모양처' 교육을 기대하는 경우보다는 능력 있는 여성으로의 성장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여자대학도 대학이므로 여성만을 위한 교육의 특성화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거나, "여자대학으로 남아 있는 것이 대학사회에서 주변화(또는 ghetto화)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하는 여자대학들이 생겨났다. 이는 몇몇 여자대학이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외국의 여자대학들도 비슷한 도전을 받는 경험을 하였다. 특히 여학생의 공학 선호와 여대 기피, 18세 이하의 미래 대학인구의 감소는 여자대학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다가왔다. 이에 대해 지난 2-30년 동안 많은 대학들이 자기 개혁과 변신을 단행하였다. 미국에서 나타난 대표적 전략의 사례는, (1) 인근의 공학대학과의 병합 또는 공동교육 실시(Vassar-Yale, Radcliff-Harvard, Wellesley-MIT 등), (2) 연령이 많고 결혼 또는 취업경험도 있는 '비전통적' 학생의 입학 허가, (3) 일부 과정에 남학생 입학 허용 등이다.

한편, 일본의 여자대학들은 전공영역의 확충, 여성학적 시각과 교과과정의 적극적

도입, 취업여성 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의 지역 거점화, 여성간 연대 및 지적 공동체의 형성 등의 전략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한국의 경우 아직은 여자대학을 여전히 선호하는 부모 세대와 사회적 분위기 덕분에 여자대학들이 존재의 위협까지는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몇 대규모 여자대학교들은 노력으로 얻은 각각의 특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남녀공학대학보다 우수한 대학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그 동안 전통을 고수하면서 여성 고등교육에 기여해온 여자대학들은 구태여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여자대학 존속에 대한 도전은 오히려 외부로부터 올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공무원 채용시 여성 채용목표제도(할당제)의 도입과 군 필자 가산 점제도의 폐지 결정 이후 평등권 문제를 둘러싸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일어난 치열한 공방전은 여자대학에 대해 '역차별'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때가 머지 않았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상황은 여자대학들이 왜 아직도 여자대학이 필요한가, 여자대학이 앞으로 여성들에게는 물론, 국가와 세계 인류사회에 대해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한 자기 점검을 요구한다.

5. 여자대학들이 단순히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한 합리적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혹은 대사회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라는 소극적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변혁을 시도하는 적극적 접근을 할 것인가의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여자대학들은 말한다. 노동시장, 가정,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아직도 강한 가부장적 관행이 일상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차별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자기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참여적 여성을 훈련시키는 일은 여자대학이 더 효율적으로 해 낼 수 있다."라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남녀평등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을 교육시키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일은

여자대학에게 주어진 역사적 임무였고 현재까지도 중요하다. 그동안 합리주의, 자유주의, 산업주의, 팽창주의 등 20세기 근대적 교육의 사상적 근간을 이룬 남성중심적 근대성을 확대재생산하는 데에 여자대학들도 한 몫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그림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제는 마련된 체제 속에 여성을 끼워넣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체제와 세상을 바꾸는 일, 판을 새로 짜는 일,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을 시작할 단계이다. 여성들의 고유한 지성과 힘을 투입하여 종래와는 다른 언어와 다른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새로운 역사적 임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Virginia Woolf가 일찍이 *Three Guineas*(1938)에서 이렇게 말했듯이.

"We can best help you to prevent war not by repeating your words and following your methods but by finding new words and creating new methods. We can best help you to prevent war not by joining your society but by remaining outside your society but in co-operation with its aim. That aim is the same for us both. It is to assert 'the rights of all - all men and women - to the respect in their persons of the great principles of Justice and Equality and Liberty'."

7. 20세기가 성취한 고도의 과학기술혁명은 인간에게 많은 편의와 즐거움을 제공한 반면, 전쟁과 폭력을 일상화하고 인간과 환경의 파괴를 가속화했다. 세계화, 정보화도 이런 문제들에 해법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국가간, 계층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폭력과 파괴의 문화를 평화와 상생의 문화로 전환하는 것은 21세기의 전 인류적 과제이다.

이런 새 문명을 회구하는 데에는 여성과 남성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와는 다른 언어와 방법이 요구되며, 그것은 '여성적' 언어와 방법이다. 지금까지 지배적이던 사회적 가치와 문화, 게임 규칙을 여성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여자대학에게 주어진 중대한 시대적 임무라고 생각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하지만 구조적으로 남성들의 언어로 남성들의 게임을 하면서 경험해온 불편과 고통은 여자대학들이 새로운 변혁을 시도하는 데에 오히려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

8. 한국의 대학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학사회의 변혁이다. 먼저, 대학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교수와 학생이 자유로운 학문활동을 통해 인간에게 유익한 지식을 생산하고 고급의 전문지식을 논하는 것이 대학 고유의 임무라는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전문적 직능훈련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수준을 넘어 창조적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비판적 의식을 지닌 미래의 지도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학과 학문의 장(場)이 자체의 독특한 구조와 기능을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른 영역이나 조직들과 구조적 상동성(homology)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더욱이 한국 대학들은 오랫동안 한편으로는 국가의 권위적 교육행정에 자율권을 저당 당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일반인들의 높은 교육열에 편승하여 안일하게 운영되어 왔다. 사회 각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권위적 국가와 사회와 문화를 재생산하는 동반자 내지 공범자였을 뿐이다. 그리하여 한국 대학들의 주된 관심은 국내 다른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이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의 점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쫓고 쫓기는 동일한 게임에 몰입되어 자율성을 찾고 자유로운 학문적 분위기를 만들 능력을 잃어 버렸다.

이제 대학들은 이런 과거를 청산하고 일체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많은 대학들이 최근 대학제에서 학부제로의 전환, 이수 학점 감소, 복수 전공 도입 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학의 구조 변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대학의 관료적 조직과 행정의 개방화와 민주화, 학생들에게 풍부한 창의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인문학의 강화, 다양한 학문적·실천적 경험의 제공, 점수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성적체계의 변화, 학문 연구와 교육에서 교수-학생간 협력관계의 활성화 등 새로운 과제들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대학의 질적 변화를 이루는 개혁을 여자대학부터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9. 다음으로,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 교육체계의 발전을 저해해온 대학 서열체계를 깨는 일이다. 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한 대학의 위계서열은 한국 사회의 위계 구조의 극적 표현이다. 대학 서열화의 기준은 학문적 특성이나 수월성에 있기보다는 지원하는 입학생들의 성적이나 졸업생들이 만드는 연줄망 형성에 근거한 사회의 평판에 있다.

대학간 서열은 사람들에게 거의 절대적인 진리처럼 각인되어 있다. 어느 대학을 졸업하는가가 학연·학력 사회에서 개개인들의 삶의 기회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사람들이 일류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부모들은 좀 더 나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입시교육에 전념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등학교 교육은 입시교육이 된 것은 오랜 일이고, 이제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대체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교실 붕괴 사태가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대학사회에서는 정점에 있는 대학에 의한 패권적 지배가 모든 대학들에 대한 연쇄적인 영향력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 대학이 어떤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거나 변화를 모색하면 비슷한 위치의 대학들은 자신의 서열이 추락하지 않도록 다른 학교를 따라 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또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학생선발방법을 보아도 하위 대학들은 상위 대학과 거의 똑같이 채택해야만 그 학교를 지원하려고 준비한 우수 학생들을 유치할 수가 있다. 여자대학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대학들이 일렬로 나열되는 서열화 현상은 대학들의 창의성과 독자성의 발취, 그리고 특성화로 서서히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10. 대학이 스스로 거듭나 그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외부적 변화나 요구에 적당히 적응하며 현상유지를 하는 것보다 어렵고, 또 관례적인 대학의 서열체계를 깨는 일은 그 체계 안에서 상승이동을 꾀하는 일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은 명백하다.

여자대학들이 뜻을 합쳐 협력할 수 있을 때에 변혁과정이 외롭지 않고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여자의 적(敵)은 여자다” “여자가 여자를 돕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끌어 내리는 일에 급급하다” 등의 명예롭지 못한 현실을 바꾸는 일도 여자대학들이 앞서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할 과제이다.

문명적 전환의 작은 시작에 불과한 대학사회의 개혁을 위해 여자대학들이 구체적인 협력 분야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을 더불어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학술회의
2000. 5. 25 - 5. 26

여자대학의 미래

조 옥 라
서강대 사회학

한국사회에서 여자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연구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 근대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며 한국의 여자대학도 그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여자대학은 이러한 일반적인 고등교육기관의 이념에 덧붙여 여성지도자 양성과 현모양처론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가정주부를 양성하는 여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해왔다. 현재 이화대학이나 숙명대 학은 이러한 기능을 잘 하는 우수 대학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다. 실제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이러한 여자 대학에서 배출되었으며, 졸업생들은 좋은 며느리, 부인감으로 지칭되어 왔다. 현재의 여자 대학이 설립될 당시에 강조되었던 역할들은 당시에 남녀 분리에 따른 ‘남자’대학에 대비되는 ‘여자’대학으로서 여성들에게는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여자대학의 위치였다. 그러나 해방후부터 남자대학이 여성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여성들을 위한 고등교육의 기회가 열려져 여자대학의 고유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일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자대학의 위치는 중고등학교에서의 성별분리현상과 연관이 되며 여자대학의 독특한 위치가 여자고등학교의 존재와 맞물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남녀공학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어 있으며 여자대학 설립의 초기 이념이 도전받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여자 대학으로서의 독특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여자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여자 대학이 다른 대학과 동일한 차원에서 질

을 높여야 된다는 압력과 다른 한편에서는 여자대학으로서의 독특성을 강화하라는 요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현대 대학교육의 보편적인 변화요구에 직면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영역들은 다른 남녀공학 대학과 마찬가지로 정보기술의 변화에 맞추어 교육과 연구에서 이론과 실습, 조사연구들을 재조정하면서 그 기반조건들을 장만해야 되는 과제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여자 대학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이라는 대학의 역할과 '학문공동체'로서의 위치를 견지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우수한 학생과 교수진을 확보하는 데 남녀공학 대학들과 끊임없는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보편성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 당국의 투자확대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여자대학 또는 이화여자대학, 숙명여자대학이라는 특수성을 부각시킬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과정은 궁극적으로 여자대학으로서의 독특성을 정보화 사회에서 '재포장' 하여 강화시켜야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자대학의 독특성이 현대 급격화 정보산업, 지구촌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재강화될 수 있겠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여자고등학교는 나왔지만 여자대학은 다니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여자 대학의 장점과 한계를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우선, 여자대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여성'이 주도적인 학교라는 점이다. 이 의미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성취욕구와 학구열을 남성의 시각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은 이미 서구에서도 여자 대학의 존재 이유에 대한 토론 속에서 충분히 드러났다고 본다. 이러한 지적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여성들의 사회적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산실로서의 기능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지만 이러한 면이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자리잡고 있는 여자대학으로서 여성들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어 왔다는 고정관념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여성들만의 공간이라는 면이 '협박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는 곳이라는 데 방점이 주어지면서 현실적인 사회적 능력을 강화 시키기에 적절하기도 사회적으로 장애를 안고 있는 교육환경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여자 대학의 미래는 이러한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정책을 개발

해야 된다고 본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제안은 다음의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1.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중점 연구, 교육 영역 개발 (예를 들어 여성학 연구 확대, 여성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 등)
2. 미래학과 여성관련 연구 확대 및 교육 강화
미래에 대한 예측은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적 관점의 수용이 중요하다. 사회변화를 여성적 관점을 수용하여 예측할 수 있는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여성의 참여가 현재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기여가 요청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정치분석, 정당연구, 기업분석, 기업경영 등.
4. 기존의 여성 졸업생을 위한 평생 교육원의 강화와 함께 산학협동을 증대하여 여성 기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학교에 지원세력이 되도록 한다.

즉 여자 대학의 앞날은 한국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에 기반을 둔 연구, 교육 기안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획안은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장애를 뛰어 넘을 수 있어야 한다.

1. 지나치게 분리되어진 '여자대학'관은 스스로의 한계를 지나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기존 사회의 가부장적 이념 속에서 여자대학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장만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남성 조직 속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과 교육도 고려해야 한다. 이웃의 남녀공학 대학과의 교류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여성들과의 교류를 위하여 여자대학을 선택한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들을 다각도로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현대 여학생들의 다양성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유형보다는 개방적인 활동영역을 학교가 장만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여자 대학의 미래는 여자 대학으로서의 장점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여자 대학으로서의 한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획을 중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대학 자체 뿐 아니라 다른 여자대학교, 아시아 대학을 비롯한 여러 외국 대학의 여자 대학교 그리고 남녀공학대학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여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개방적 자세를 가져야겠다.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학술회의
2000. 5. 25 - 5. 26

여자대학의 미래

: 민족과 인류의 어머니를 키우는 지성 공동체

조 무 석
숙명여대 영문학

1.

통칭 여자대학이라고 하지만 각 대학이 다양한 전통과 교풍이 있어 그 특수성과 보편성이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숙명여대에서 기획처장직을 수행하면서 여자대학의 미래뿐만 아니라 교육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느끼면서도 그럴만한 여유를 갖지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화여대에서 “그 심각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들의 연대감에 큰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자대학 중의 하나인 숙명여대의 모습을 통해 여자대학 일반의 미래상을 살펴볼까 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한일 합방이 되기 4년전인 1906년 조선황실 엄황귀비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동화와 같던 시절, 여성교육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 겨레의 유구한 앞날을 밝혀 나가겠다는 용동궁의 꿈이 명신여학교로, 후에 숙명으로 탄생된 것이지요. 최초의 학교 건물은 바로 조대비가 살았던 용동궁이었고, 초대교장은 조대비의 조카 며느리인 이정숙 정경부인이었습니다. 1938년에 숙명여전 창립, 1948년에 숙명여자대학교로 승격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산실이 황실이다 보니 ‘숙명’은 오랜 기간동안 보수적인 분위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 1대는 여성인 임숙재 총장이셨으나, 그 이후로 남성총장들이 오래 학교를 맡아 운영해 오는 동안 더욱 전통적인 분위기에 보수적인 교육이 행해졌습니다. 1981년부터

김옥렬 총장, 정규선 총장 등 여성 동문 총장들이 학교를 맡아 보수적인 분위기를 점차 바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제 13대 이경숙 총장이 취임하면서 더욱 큰 변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모양처를 지향해온 그 동안의 교육이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되었고 전문적 여성과 국가와 세계의 지도자가 될 여성 지도자 양성에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 지게 되었습니다. 1995년에 제 2창학을 선언하고, 창학 100주년이 되는 2006년까지 세계적인 최상의 명문여대로 가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뜨리기 위해 “울어라 암탉아”, “뛰어라 청개구리” 등의 구호와, 지도자상을 겨냥한 “따로 있다 여자가 크는 대학”, “나와라 여자 대통령”, “여자가 커야 대한민국이 큼니다”,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숙명” 등의 광고카피는 여고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숙명도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남녀공학 대학을 경쟁 대상으로, 또 어떤 때는 여자대학의 장점들을 특화시키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며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들은 비교적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어 자신감에 찬 여성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몇 년간 연속 교육평가 우수라는 객관적 평가도 획득했습니다.

II.

최근 들어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여학생들이 남녀 공학을 선호한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는 여대가 하나 둘 늘고 있으며, 여자대학의 위기가 거론되면서 숙대는 공학을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아왔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되었는가 하는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남녀공학을 모방하든지 아니면 대항하는 교육으로 여자대학이 운영되어온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 여성들의 교육 기회 확충과 질적 향상을 위해 여자 대학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는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사회 진출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사회 각 계에서 다양한 변화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녀의 수직적 구조의 변화와 개선에 대한 노력이 때로는 남성 중심사회에서 여성 중심 사회로의 권력 이양처럼 오해 되어온 경향도 있으며 가부장적 사회의 지배적인 권위나 힘의

논리, 기득권층 중심의 고질적 구조 등을 변화시키려는 작업은 아직도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받은 여성들의 상당수가 이런 기득권층에 속하고 있기에 여성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이들의 노력이 남성들의 기득권 포기는 주장하되 자신들의 기득권은 포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계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교육의 혜택을 입은 많은 여성들이 개인적 삶의 테두리에 안주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여자대학뿐만 아니라 여성교육이 이런 만족의 수단으로 오용되어온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석현 선생님의 스승이신 다석 유영모 선생님께서는 ‘대학이 없어야 우리나라가 산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학이 진정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만 부추기는 교육으로 부패한 지도층을 양산하여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 분의 이런 주장에 강력한 반론을 제기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비리와 뇌물 스캔들로 얼룩진 총체적 부패 공화국이라는 엄연한 우리의 국가적 현실에, “우리 대학인들은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때 말하는 대학에는 물론 여자대학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가부장적 가치관과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는, 여성주의의 일반적인원리이자 가치관인 “보편적 평등, 비폭력적 문제 해결, 자연과의 화합, 남녀의 상호 부조, 다른 생명체와의 조화로운 삶”등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평등과 권리 확보 주장이 보다 넓게는 모든 인간의 평등성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틀 속에 있다고 본다면 여성들의 교육과 제반 운동들도 보다 소외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계층들을 위해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성 대립 구도에서 제 문제를 파악하던 시각에서 좀 더 확대되어 평등한 인류 공동체 건설을 외면하거나 방해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제 문제와 구조를 좀 더 철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의 비전을 함께 모색하고 제시해가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아 반성을 통한 자각에서부터 바로 여자 대학의 미래는 그 고유의 사명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찬란하게 열려질 것입니다.

III.

칼릴 지브란은 그의 「에언자」에서 결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있지는 말아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라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여자와 남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를 결혼에 비유한다면 여자대학들이 여성교육을 통해 기울어진 기둥을 바로 세운 그 사원은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찬 것이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 천년동안 내려온 남성중심의 편견의 뿌리가 과학적, 객관적, 보편적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육현장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남녀공학 대학은 남자대학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정도로 그러한 편견을 강화시키기가 아주 쉬운 남성중심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여자대학들조차도 현모양처를 지향하던 전문직 또는 여성지도자를 지향하든지 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성을 모방하여 또 하나의 욕망의 문화, 권력 지향의 탐욕의 노예가 되도록 부추겨온 혐의가 다분합니다. 그 결과는 남녀 모두 도덕적 불감증과 무지, 경쟁의식과 적자생존의 논리, 닫힌 마음과 이기적 탐욕의 사원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원의 이름을 욕망의 사원에서 아가페적 사랑의 사원으로 바꾸는 일은 바로 남과 여를 모두 잉태하고 출산하는, 즉 남과 여의 대결구도를 초월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알맞은 간격을 두고 같은 높이의 기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여성을 부르짖은 여자대학의 공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좋은 가치관들도 여성에게만 강요되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숙명여대에서는 섬김문화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큰 반발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웬 보수로의 회귀냐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여성의 시대라는 21세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자대학들은 남녀 공학 대학들을 선도하여 민족과 인류를 살릴 자각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의 대결 차원을 떠나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귀한 가치들을

발굴, 발전시키는 것과 아울러 기존의 가치들도 재정의, 재해석하여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주목할 때, 여자 대학의 진정한 가치와 활약은 지금부터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학술회의
2000. 5. 25 - 5. 26

여자대학의 사명

양 옥 승
덕성여대 유아교육학

21세기에도 대학은 전과 다름없이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다룰 지식은 그 내용 면에서 과거의 것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방법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급진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21세기의 대학은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지식을 전달하고 생산함으로써 국가와 세계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고 보는 것도 급진적인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대학은 지식이나 가치 체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시민 의식을 가진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변화의 일익을 계속해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대학은 변화의 선두에 서서 그 임무를 다해왔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세계화와 자유화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지금의 21세기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본인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계화와 자유화란 곧 '여성화'를 뜻하는(또는 '여성적'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그간 동서양 사회에서 다른 형태로 표현됐기는 했어도 권위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많은 '남성 지배적 사고'나 '남성 우위의 가치관'과 대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계화 및 자유화와 관련된 '여성화'의 개념은 인간 존엄성, 생태계와의 공존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 차이(다름)에 대한 관용성이나 다원성 존중 등으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대학 교육과 관련지어 '여성화'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과학 기술과 예술간 또는 학문적 지식과 비학문적 지식간을 상호 연결짓는 접근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세기 인간 집단의 이성과 감성의 놀라운 진전과 확산은 정보 통신의 발달을 가져왔고, 그에 따라 대학에서 여성화의 개념을 보다 명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흔히 말하는 아이디어의 다원성 수용이 과거 비학문적 지식으로 분류되었던 실천적 지식을 학문의 세계에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본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대학의 존재 가치가 학문적 지식활동이나, 실천적 지식활동이나의 양자 택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포괄성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은 지구의 운동 법칙에 비유하면 보다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지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전과 공전의 운동 법칙이 공존해야 하듯이 대학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세계 시민을 양성하고자 한다면 대학은 학문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 모두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토론자는 앞으로 여자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남녀공학 대학을 배제하고 여자대학만이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여자대학의 사명을 논할 생각은 없다. 한국의 모든 대학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남녀공학 대학은 아직 여자대학에 비해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새로운 변화는 대안의 개발과 확대가 가능한 여자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사실, 지난 20세기 한국의 여자대학들은 초창기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자 참된 의미의 여자대학을 향해 팔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학 지원자들이 남녀공동 사회 구현에 여자대학 졸업이 장애가 될 것이라고 느끼고 입학을 꺼리면서 여자대학은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여고생 자신들도 이 사회가 남성 지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자대학 교육이 남성 중심의 직업 세계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한국 여성들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힘이 미약하다는 현실 인식에서부터 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우리 대학들이 남성 지배의 문화를 재생산하며 교육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조장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변화는 현존하는 문화를 새롭게 변형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고, 이 시점에서 그 변화는 남녀공학 대학보다는 여자대학에서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토론자는 여자

대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1. 교육이념과 목적을 새로이 설정하고, 이에 부합된 교육과정을 탐구한다.

오늘날 여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여자대학의 교육과정은 형식면에서는 초창기나 10-15년 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교육 이념의 근간이 되는 철학이나 이론은 기존의 편협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의 모든 교육경험이 극도로 남성화된 지식이나 사회질서를 기본 축으로 하고 있고 그 범주 안에서 여성이 설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전통적인 가치 체계 (그 외양은 현대화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로 포장되어 있어서 여대생들이 졸업 후 어떻게 자아실현이나 긍정적인 자존 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목표나 교수 방법과 같은 교육과정 요소만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과정 변화'의 시각으로 이념적인 토대를 새로이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개발 과정에는 여성 특유의 요구, 경험, 관심과 관련지어 어떻게 여성이 21세기에 사회적 무력화를 극복할 것인지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회를 인간화하는데 여성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하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여자대학 졸업생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으로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교육 이념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새로운 연구작업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연구할 때에는 반드시 교육과정 적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직적 특성들, 이를테면 학생, 교직원, 재정 등의 요소들이 함께 분석, 검토되어야 한다.

2. 철학의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는 중핵교육과정을 조직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이를 적용한다.

편견 없는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리고 진정 학생들이 편견에 부딪혔을 때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조직하고자 한다면, 여자대학들은 현재 제시하고 있는 철학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여 뜯어고쳐야 할 부분을 수정, 재편성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철학의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는 한가지 길은 중핵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다. 중핵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상호작용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핵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생각할 내용과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해답을 주는 교수방법을 탈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과학적 탐구의 방법 이외에도 토론, 발견, 인지훈련, 집단탐색, 프로젝트 접근 등의 교수 기술과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현재 암암리에 널리 퍼져 있는 '은폐된 교육과정'이나 '영 교육과정'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생들도 교육과정이 다양성과 관용을 촉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가부장적인 가치와 지식체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교육 경험은 전통적으로 부여된 양육자로서의 여성 역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가정 밖에서의 활동을 위해 여성의 잠재적인 지적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교육 경험은 남성 중심의 사고와 철학에 기초하여 선정, 조직되었다. 여성의 '자리'는 가장 낮게는 남자의 보조자로서, 가장 높게는 자녀의 능력을 계발하는 양육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중핵 교육과정 속에 유아교육, 아동발달, 가족학, 여성학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특히 여성들은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적 능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호기심은 어떻게 발달하는지, 관용과 열린 마음은 출생이후 어떻게 계발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전통적이고 가부장적 국민들의 정서를 좇아 여성의 일차적 역할을 육아에 두고 아동, 가족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여학생을 가르치는 문화가 주류로서 자리잡고 있다. 오늘날에도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어릴 때부터 어떤 과외를 시킬지 고심하며 기획, 관리하고 있다. 부모나 교육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녀공학 대학에서 유아교육 분야를 중핵과정의 하나로 삼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만약 사회에 대한 전통적 유교관이 변하고 대학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강조하여 교육

한다면, 이 시대에 유아기가 차지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대학은 '감추어진 의제'나 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비추어 현존하는 패러다임 이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중핵 교육과정 정보 통신 분야를 포함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정보 분석자 또는 정보 종합자로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중핵 교육과정 속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제발되지 않았던 여성의 섬세함이 과거 인류 사회('Man's world' 여기서 man이라는 영어 단어에 주목하길 바란다)에서 '남성 영역'으로 분류되었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걸프전에서 승리한 원동력은 정교한 조작과 정보 분석력을 지닌 우수한 여성 군사인력에 있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4. 단설 학부대학에서 거대한 규모의 대학원 중심 대학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특성을 다양화한다.

현재 많은 여자대학들이 서로 유사한 전공을 설치하고 있음으로써 대학별로 특성 없이 대동소이한 면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여자대학들이 개별화된 보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대에서도 같이 몇몇 대학들은 한 캠퍼스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른바 멀티버시티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그 정체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대학은 특정 전공 분야를 특성화시킨 작은 규모의 단설 학부대학으로 특화할 수 있다. 덕성여대의 예를 들면, 유아교육과를 특성화시킨 학부중심 대학이다. 덕성여대와 같이 규모가 작은 대학들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화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작은 규모의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학교가 어느 대학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작은 규모의 대학은 모든 분야에 큰 규모의 학과나 전공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한 두 분야를 중심으로 설치된 학과나 전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대학원 과정도 개설하여 전문성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여성화된 가치와 지식 체계를 구성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대학간에 연대하여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모색한다.

많은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관점에서 지식이나 현실 세계를 조망해 왔고, 지금도 이런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학계에는 지식의 '여성화', 즉 다른 관점에 대한 관용이나 몇몇 서구 사회에서 일고 있는 다원성에 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자대학들은 이러한 변화된 관점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관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용될만한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 관용, 생태계의 공존에 대한 인식이나 존중과 같은 사고나 가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여자대학의 사명은 연구자들이 기존의 방법론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자대학들간의 연대 가능성을 검토한다. 필요하다면 국제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연대의 범위를 여자대학으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 편협한 권위주의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지식과 방법론을 연구, 교육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자원이나 연대로서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연결 고리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6. 평생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교육받는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학 기술이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고등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요구는 특히 복직하려는 여성에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직장을 떠난 후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들 여성들이 직면하는 커다란 심리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수진이 필요하다.

7. 평가인정제를 도입하고 실시한다.

사회적 책무성의 차원에서 여자대학들이 종합적으로 또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자율적으로 그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 인정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평가인정 기구는 비정부, 비영리 조직의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이며, 여자대학의 이념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본 토론자가 지금까지 여자대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취지는 문제나 분쟁의 소지를 안고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자 하는데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제안한 사항들은 모두 문제나 분쟁의 소지가 적은 해결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지식의 '여성화'로부터 변화 가능한 것들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방법들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다. 변화는 확실히 여성에게 사회적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교육을 통해 주도되어야 한다. 지식의 '여성화'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자유화, 민주화, 인간화를 향한 원심력이며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우리는 남녀 공학 대학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성 지배적인 권위가 학계에 깊숙이 뿌리내려져 있는 오늘의 사회에서는 지식에 대한 '여성적' 개념화를 묵시적으로 담고있는 자유화를 계발함으로써 여러 세대에 걸쳐 여성을 무력화시켰던 역사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여성들에게 사회적인 힘을 부여하는데 여자대학이 보다 큰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여성적 가치의 지성공동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학술회의
2000. 5. 25 - 5. 26

여자대학의 미래-일본에서의 개인적 견해

히로코 하라

Hiroko Hara

放送大學 · 여성학 · 일본

■ 여자대학이 현재 직면한 문제들

1. 일본 청소년 인구의 감소
2. 정치학, 경제학, 법학, 자연과학, 공학 분야의 여학생 등록 증가 추세
3. 남녀공학대학에 대한 학부 학생들의 호감 증대

■ 여자대학의 존재 이유 (독자적 기능)

1. 다양한 유형의 경험(지그재그식 변화를 경험하는 생애)을 가진 각 연령대의 대졸 여성에 대한 훈련 기회 제공을 위하여
2. 지식 생산을 위한 지적 저장고가 되기 위하여
3. 여성지도력을 훈련하기 위하여

미국 여자대학의 미래

리사 울프-웬델

Lisa Wolf-Wendel

The University of Kansas · 교육학 · 미국

20세기 후반에 여성들은 고등교육에 있어서 커다란 진보를 이룩해왔다. 미국에서 여성들은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교 교정에서 주류의 지위에 도달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있으며, 학과의 대열과 여러 고등교육 행정 기관의 교차 구조에서 서서히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과정과 병행하여 한가지 성별의 교육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 동안 미국에서 진지하게 시작된 남녀공학으로 향하는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 동안에 가장 권위있고 전적으로 남성 대학과 대학교들이 여성들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많은 여성대학들이 또한 남녀공학이 되었다. 여러 여자대학들이 이 시기에 남성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재정적인 긴박한 사정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 결과적으로 미국 여자대학의 수는, 1960년에 대략 300개에 육박하던 것이 1999년에는 80개 기관에 못 미치게 감소했다(국립 교육통계 센터, 1999).

오늘날, 미국의 여자대학들은 중등교육 이상 학력의(post-secondary) 여성들 중 1퍼센트도 안되는 여성들을 가르친다(국립 교육통계 센터, 1999). 비록 여자대학의 수와 이 기관에 의해 지원받는 여성의 비율이 무척 작기는 하지만 여자대학의 미래의 중요성은 이 숫자를 뛰어 넘는다. 정말로, 여대생들을 가르치는 임무를 지속하는 여자대학들은 그들의 탄성에너지(탄력성)의 맥락에서 뿐 아니라 또한 그 졸업생들이 이룩한 성과들의 맥락에서 볼 때 다른 교육기관들에 모델로서의 역할을 한다.

오늘날 여자대학의 특성은 무엇인가?

현재 대략 80개의 여자대학이 존재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대체로 작는데 94명에서 5,000명의 정규학생들로 구성된다. 모든 여자대학이 사립이고, 존재하는 여자대학의 절반이상이 종교적인 제후를 하고 있으며 그 중 카톨릭 교회와의 제후가 가장 빈번하다(33%). "일곱 자매들(seven sisters)¹⁾"로 알려진 가장 유수의 여자대학들은 매체와 문학연구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여자대학들은 교육기관의 여러 가지 다른 배열을 보여준다. 이 캠퍼스들 모두 잘되어 있는 기숙사를 갖고 있지만 통학하는 많은 학생들, 특히 나이트 여성들에게도 제공되고 있다. 여자대학의 배열 가운데에는 두 개의 역사적으로 복원을 위한 기관과 대략 여섯 개의 2년제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첨가하자면, 미국 여자대학들은 세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선별적인 대학, 비선별적인 대학, 그리고 석사학위와 학사학위를 주는 비선별적인 기관.

비록 여자대학들이 단순한 하나의 유형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들은 위에 언급한 부문에서 조명을 받는 공통된 특성을 공유한다. 여자대학들은 예를 들어 유색 여성 그리고 전통적인(일반적인) 연령층이 아닌 여성의 비율이 남녀공학 대학들에 비해 높다(국립 교육통계 센터, 1999). 이는 두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그들의 다양성 속에서 여성에 봉사하는 것이 많은 여자대학의 임무의 주요 구성요소다. 둘째, 존속하는 여자대학이 그들 고유의 임무가 손상되지 않으면서 살아남기 위해 여자 대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남아있게 하는데 있어서 창조적이어야 했다. 5퍼센트에도 못미치는 여고생들이 여자대학에 지원할 것인지를 고려하는데 이것은 많은 여자대학들이 나이 든 여성들, 시간제-학생들 그리고 교환학생들의 유치에 집중해야만 했던 것을 의미한다(Tidball, Smith, Tidball, & Wolf-Wendel, 1999). 여자대학들이 수학과 과학 같은 더 "남성중심적인" 영역에서 그들의 남녀공학 경쟁상대들보다 더 즐겨 여성들에게 학사학위를 준다는 것 또한 명백하다.

1) 가장 오래되고 유수한 여자대학들인 일곱 자매는 Barnard, Bryn Mawr, Mount Holyoke, Smith, Wellesley, Vassar 그리고 Radcliffe 대학이다. 목록의 마지막 두 개는 더 이상 여자대학이 아니다.

여자대학은 정말로 아직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가지 성별 교육을 남녀공학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지는 것을 획득하는 것의 한 부분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한가지 성별교육기관으로부터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이 남녀 모두에게 더 나은 것으로 믿는다. 레서(1987)에 의하면, "변론과 비평은 의심할 바 없이 여성과 남성을 위한 동등 교육이 남녀공학과 동의어라는 것을 고수한다"(p.2).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분리교육이 남녀공학보다 여성을 위하여 더 낫다는 생각에 불편해 한다. 예를 들어 윈딧은, 사람들이 여자대학의 공헌에 관한 정보를 여성 지위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Talbot, 1994). 특히 그들은 만일 여성들이 여자대학에 가야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성들이 남성들과 다르거나 열등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한가지 성별의 대학에 가는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며 그러므로 "현실 세계(real world)"에서의 기능과 경쟁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있다고 주장한다.

연구는 남녀공학에서의 여성들의 경험이 그들의 남성상대자들의 경험과 항상 같지는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남성과 여성들이 같은 대학을 다니더라도 그들은 대학을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경험하지 않으며 강의실 내에서, 교정에서, 또는 동료들에 의해서 반드시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연구자들은 남녀공학 대학에서 여성들에 대한 교정 분위기를 강의실 안팎 모두에서 "냉랭하다"고 묘사한다(Hall and Sandler, 1982, Hall and Sandler, 1984). 여성들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들을 갖고 있는 남녀공학적 환경에 관한 조사에 덧붙여 여자대학이 고등교육의 다른 부분들의 가르치는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여자대학의 효과에 대한 문헌의 또다른 실체가 있다. 특별히, 양적이고 질적인 방법 모두를 이용한 조사 프로젝트의 넓은 범위가 여자대학들이 그 안에서 여성들이 진지하고 즉각적으로 성공경험을 취하게 되는 가장 접근가능하고 고무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평하게 말하자면 여자대학에 다니는 것의 효과들만큼 특히 경력에 있어서의 영향과 대학원과정 후의 결과와 관련하여 약간의 회의주의도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

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비판에 대면하는 최선의 방법은 한번에 하나의 연구를 보는 것보다는 여자대학에 관한 문헌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정말로, 한번에 한가지를 택한 연구들은 대학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서 커다란 퍼즐의 단지 조각들을 표현한다. 각기 다른 방법들과 자료 그리고 시기를 가지고 진행된 연구의 방대한 다양성으로부터 결론이 내려질 때 조사가 가장 힘을 갖는다. 문헌들을 개괄하면서 여자대학들이 여성들이 진지하게 다루어지는 가장 접근가능하고 고무적인 환경들 가운데 있다는 결론을 보증할 만큼 조사 결과에 있어서의 지속성과 확증이 크다는 것이 확실하다.

어떤 교훈들이 여자대학에게 고등교육의 진여를 가르칠 수 있는가?

여성의 고등교육기회를 위한 카네기 위원회는 1973년에 여자대학들은 "남녀공학대학들에서 정책과 전공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가 어떻게 그들의 여학생들의 성취에 효과를 미칠 것인가를 제시한 것보다도 잠재적인 영향력의 의미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p.74)고 지적했다. 여자대학들이 진지하게 간주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일찍이 행해진 주의환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형적으로 비가시적으로 남아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고등교육 사회에서 그렇게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의 개인적인 기관으로서의 작은 규모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작은 비율의 여성들만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 그러나 그들은 고등교육의 나머지를 제공하는 수업들을 가지고 있다. 여자대학에 관한 연구들²⁾과 여자대학들에서 발견되는 환경에 대한 문헌의 광범위한 개괄에 기초해 보면, 일곱 학교의 특성들은 어떻게 여자대학들이 그들의 여학생들의 성공을 용이하게 하는지에 대해 묘사한 것으로 두드러진다. 내가 이를 행하기 전에 이 특성들의 가치가, 학교들, 특히 작은 사립학교들에서 딱히 학문적이기 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전체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욕구를 표현하는 미국 고등교육의 맥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것 같이, 이 특성들의 미국 밖의 대학들에의 적용은 미지수다. 이 특성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2) 다음의 자료와 인용은 저자의 여러 대학 캠퍼스 방문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대학들은, 그곳을 졸업하고 이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백인여성들과 유색인종 여성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에 있어서 특히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대학들이다.

고등교육의 맥락에서 모방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용해 보십시오.

여성을 중심에 놓는 임무의 명백한 설명과 의사소통

강하고 초점이 맞추어진 힘 그리고 이것이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자주 문헌에서 논의되어왔다(Astin 1985; Clark, 1991; Kuh, Schuh, Whitt, and associates, 1991). 여성교육은 여자대학 임무에 핵심적이고 교과과정 결정, 출판, 그리고 매일 배일의 그리고 긴 시간을 넘어서 있는 여러 가지의 의사결정에 반영된다. 어느 교수가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것을 위한 출발지점은 ... 당신이 달고자하는 끝과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분명하게 향해 있다."

여성들은 성취할 수 있고 그것들을 높은 기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여자대학들이 초기에 진지한 학문적 수행에 성공할 수 없다는 관념을 반박하기 위해 설립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여자대학들은 여자대학생들을 고도의 학문적 수준에 유지하는 것과 여대생들의 성공에의 능력에 대해 믿는 것의 중요성을 논증하는 것을 계속한다. 여자대학에서, "고도로 목표설정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접근방법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잠재력이 있고, 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교수진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한 학생은 이 점에 대하여 웅변적으로 상술하였다:

만일 당신이 어리석거나 무식하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진다면 당신은 그 용량을 수행하기 시작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놀랄만하고, 뛰어나다고 말해진다면, 당신은 그 수준에 맞게 달성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이 어린 여성들이 밤낮으로 듣는 것이라고 진실로 믿는다. '당신들은 놀랄만한 여성들이다.' '당신들은 뛰어나다.' '당신들은 탁월한 방식으로 일한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말해진다...나는 이것이 그들을 그들 스스로를 보는 마음으로 속으로 넣는다고 생각한다.

여자대학에서의 응답자들은 대학생들이 실패에 대한 변명으로서 그들의 배경을 이

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표출했다. 예를 들어, 교수들은 여성들은 "수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받아들여 질 수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학생들이 실패에 대한 변명으로 그들의 배경을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학문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너무 일찌감치 포기하지 않을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것은 남성 중심적인 영역에서 여성으로서, 학생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설혹 전통적으로 남성적으로 간주되는 영역에서도 성공을 거둘 능력이 있다는 점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곳에서 특히 그러하다. 어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조점은 학생들을 성공하게 돕는 데 있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숙아내는데 있지 않다."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기

여자대학의 응답자들은 흔히 졸업의 성공의 기초를 이루는 요소는 교수들과 관리자들과의 지원과 배려라고 언급했다. 여자대학의 구성원들로부터의 지원은 학문적인 의제와 관련된 지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지도와 조언도 또한 포함되었다. 놀랍지 않게도, 조사는 교내에서의 개인적인 뒷받침의 어떤 정도가 학생의 성공에 중추적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뒷받침에 대해 말하면서 여자대학의 응답자들은 교수진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1 대 1," "지도교수," 그리고 "손을 잡고" 같은 단어들을 사용했다. 한 교수는 "나는 내 학생들의 성공에 강한 책임 의식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뒷받침이 특히 중요한 반면 응답자들은 학생들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에 대해 책임이 있으므로 뒷받침이 조절되어야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어느 교수는 그들이 "도움이 되고, 후원적이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려고 매우 많이 노력하지만...우리는 그들이 가는 길의 모든 단계를 통해 그들의 손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확실한 성숙과 그들 몫의 주도권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하고 긍정적인 역할 모델들을 제공하기

여자졸업생의 성공을 설명해주기를 질문했을 때, 여자대학의 응답자들은 역할모델들의 중요성에 대해 즉각적으로 언급했다. "당신 같은" 성공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이 가능하다는 것은 나아가 그 사람의 성공의 기회와 자아-개념을 증진시킨다는 점이 자주 가정되었다. 역할 모델의 중요성에 관한 조사가 빈약하고 각기 다른 결과를 산출해내는 반면, 여자대학에 대한 사례연구는 역할 모델의 중요성에 대한 증거의 하나 이상의 조각을 제공해준다. 특히, 여자대학의 응답자들은 졸업생들, 재학생들, 학교 방문자들 그리고 강사들, 관리자들, 후원 스태프들 그리고 교수진을 역할 모델들로 동일시했다. 역할 모델들은 그들이 학생들에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간주되었다. 학교 내에 힘있는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은 여학생들을 “이미지와 가능성 간의 눈에 보이는 상호관련성을 창조하게” 돕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그들의 고용 구성에 의하여 여자대학들은 여성의 선택이 다양하고 가능성에의 문이 넓게 열려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학 캠퍼스의 피고용인으로서의 여성의 존재 없이는 여성이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들이 그러한 위치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자대학생들이 그러한 위치에 열망을 가지는지에 대해 심각한 진술이 이루어진다. 이는, 지도자 역할과 교수진에서의 여성의 부재는 선택에 대해 많은 것을 전달한다.

지도자 활동에 종사하려는 여성을 위한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기

여자대학에 관해 가장 주목할만한 것 중 하나는 그들이 강의실 안팎에서 대학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회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강한 지도력을 함양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을 학교 안에서 활동하도록 해주며 그들의 전반적인 성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여자대학에서는, 여성들은 단지 기대받기만 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지도자 위치를 획득하게 의무감을 지운다. 한 교수가 말한 것처럼 “학교 조직에 약간의 남성들만 있고 모두 여성들이 포진해있는 것은... 젊은 여성들이 확신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장소는 기능과 경험이 함양되도록 하는 바로 그런 기회제공의 터전이다.” 비슷하게 어느 관리자는 말하기를, “여성들은 더 큰 사회로 나갈 때까지 창조적이 되고 남성들과 경쟁함없이 지도자적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모든 요소들

이 목록에 올려진 대로, 참여기회의 영역은 폭넓은 문헌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었다.

여성들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기

여자대학의 구성원들은 공식, 비공식 교과과정에 젠더에 관한 의제를 포함시키는 것의 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한 졸업생이 지적했듯이,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가고 있는 곳과 그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들은 그것을 믿어야하고 포용해야하고 그것에 대해 좋게 느껴야 한다.” 동시에 어찌되었든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과 맞서서 “전통적인” 교과과정의 해체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한 교수진이 설명하듯이, 일반적으로 교과과정은 분명하게 주류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표준화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다른 대학생들과 같은 교재를 알게 준비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자대학들은 흔히 여성들을 강의실을 경유하는 일반적인 교과과정, 예중, 강의, 그리고 할당된 강독으로 고쳐된다. 또는 여성에 관계된 주제도 특별-교과과정의 주요 영역이 될 수 있다 -- 계획되고, 간혹 요청되기도 한 특강, 연사 시리즈, 그리고 토의집단을 통해 제시된다. 그것이 택하는 형태와 상관없이 응답자들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변화되어 온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는 “역할모델과 그들이 어디로부터 온 지에 대해 알게 하는 지식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비판적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창조하기

여자대학의 구성원들은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창조하고 또한 고무적인 힘을 제공해주는 협력적인 또래집단 문화를 갖는 것의 이로움을 강조했다. 응답자들은 어떻게 학교 동료집단 문화가 여자대학생에게 성공하도록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토론했다. 일반적으로, 반응은 두 가지 일반적인 범주로 나뉘었다: “고무된, 고도로 성취적인” 또래집단 문화를 갖는 것 그리고 또래집단의 후원을 강조하는 문화를 갖는 것. 예를 들어 한 대학에서 응답자들은 “학문적인 성취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으로서의 또래집단 분위기를 묘사했다. 응답자들은 또한 학생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지

원적이었나를 논했다. 학생들 말로는: "너는 투쟁한다, 그러나 너는 항상 지원하려고 노력한다."

교훈의 맥락화

한눈에도 여자대학의 본래의 특성은 남녀 공히 학생 중심적인 학교와 연관된 특색에 관한 연구 결과와 병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정말로 집중된 임무, 높은 기대, 지원, 역할 모델, 고도로 성취적인 학생들로 이루어진 지지적인 또래집단 문화, 수업 외적 활동의 기회, 교과과정에서의 여성의 포함 등을 갖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성공을 용이하게 하는 학교와 연관된 모든 특색들이라는 점이 폭넓은 문헌에서 나온 증거다. 다른 학생친화적인 기관과 여자대학을 구분하는 것은 이 학교들이 그들의 여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목적지향성이다. 여성의 성공은 대학 구성원에 의해 유지되는 가치에 중심적이다. 이 믿음이 학교와 학교 구성원 개개인 모두의 행동의 상당부분을 뒷받침해준다. 이것들은 여성의 상황이 호의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부여하는 환경이다: 여성교수진의 비판적인 집단이 있는 대학들, 여성들이 돌봐지고 도전의식을 요청받는 대학들, 여성관련 의제들이 대학에서 벌어지는 논의를 주도하는 대학들. 여성을 택하는 것은 계획성, 살아있는 역사, 보다 커다란 목표를 위한 유산, 그리고 학교 생활 속의 크고 작은 결정에 들어있는 목표의 전환들 속의 일목요연함을 요구한다.

여자대학들은 이 특색을 "성공적인" 대학들이 모두 비슷하지 않다는 생각을 예시하면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수행한다. 인종, 민족성, 사회계급, 그리고 다른 경험에서의 차이들이 학생들이 그들의 학교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대학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각각의 대학들의 특성의 분리된 검토들이 조명되면서 이 학교들의 전체가 그들의 부분의 합보다 더 중대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 사람들은 격리된 가운데 하나의 요소를 볼 수 없다. 사실, 그들을 특색있게 만들고 학생들의 성공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특성의 조화이고, 이 학교들의 윤리이다. 여자대학들이 다른 대학들로부터 그들을 분리하게 하는 것은 구조, 정책, 실천 그리고 여성의 요구에 민감한 교과과정의 적용에 있어서 그들이 목표지향적인

것, 그것이다.

여자대학의 미래

미국 여자대학의 미래는 어떠한가? 여자대학의 전성기는 먼 과거다. 여자대학의 수에 있어서의 증가를 보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남아있는 여자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하는 여성의 비율에 있어서의 커다란 증가를 보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보살피는 것, 힘을 북돋워주는 것, 여성을 지원하고 진지하게 다루는 것을 여자대학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와 상관없이, 더 전통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대학에 가는 것보다 이것을 더 가치있는 것으로 보는 대학생들은 끊임없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자대학들은 미래를 갖고 있다. 여자대학들은 진학을 선택하는 여성들을 위한 탁월한 교육환경을 계속 제공할 것이다. 특히, 비전통적인 나이의 여성들과, 친교파티, 축구대회 등과 같은 대학생활의 훨씬 전통적인 관념보다 학문적인 목표를 더 앞에 놓는 것을 선택하는 젊은 여성들을 유치하고 봉사할 것이다. 만일 남녀공학 대학들이 그들의 여학생들의 요구로 더 좋은 만남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여자대학들은 여성들을 신중하게 다루는 학문공동체를 창조하는 방법의 모델로서 봉사할 수도 있다. 여자대학의 유산이 여성교육의 미래에 가장 커다랗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 후자의 활동을 통해서이다.

References

- Appel, M., Cartwright, D., Smith, D., & Wolf-Wendel, L. (1996). *The Impact of Diversity on Students: A Preliminary Re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AAUW). (1991). *Shortchanging Girls, Shortchanging America*. Washington D.C.
-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AAUW). (1995). *How Schools Shortchange Girls*. New York: Marlowe and Company.
- Astin, A. W. (1977). *Four Critical Years: Effects of College on Beliefs, Attitudes and*

- Knowledge. San Francisco: Jossey-Bass.
- Astin, A. W. (1985). *Achieving Educational Excellence*. San Francisco: Jossey-Bass.
- Astin, A. W. (1992).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Jossey-Bass.
- Ayres, Q. W. (1983). "Student achievement at predominantly black and predominantly white universit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 291-304.
- Bandura, A., & Walters, R. (1963). *Social Learning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Boyer, E. L. (1987). *College: The Undergraduate Experience in America*. 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New York: Harper & Row.
- Bressler, M. & Wendell, P. (1980). "The sex composition of selective colleges and gender differences in career aspiration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1, 650-53.
- Ca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1973). *Opportunities for Women in Higher Education: Their Current Participation, Prospects for the Future and Recommendations for Action*. New York: McGraw Hill.
- Chickering, A. W. & Reisser, L. (1993). *Education and Identity*, Second Edi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Clark, B. R. (1991). "The organizational saga in higher education." In Peterson M. W. (ed.) *Organization and Governance in Higher Education, An ASHE Reader*. Needham Heights, MA: Ginn Press.
- Gardner, J. W. 1989. "Building community." *Kettering Review*, 73-81.
- Green, M. F. (1989). *Minorities on Campus: A Handbook for Enhancing Diversity*.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 Hall, R. & Sandler, B. (1984). *The Classroom Climate: Still A Chilly One for Women?* Project on the Status and Education of Women.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 Hall, R. & Sandler, B. (1982). *The Classroom Climate: A Chilly One for Women?* Project on the Status and Education of Women.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 Harwarth, I., Maline, M. & DeBra, E. (1997). *Women's Colleges in the United States: History, Issues, and Challeng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Holland, D.C. & Eisenhart, M. A. (1990). *Educated in Romance: Women, Achievement, and College Cul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nnerstein, G. (1978). "Black colleges: Self-concept." In C.V. Willie, & R. R. Edmonds (eds.), *Black Colleges in America: Challenge, Development, Survival*, 29-50.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Kanter, R. M. (1976). Numbers: Minorities and majorities.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 206-242. New York: Basic Books.
- Kelley, H. E. (1973). "The processes of causal attribution." *American Psychologis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im M. & Alvarez, R. (1996). "Women-only colleges: Some unanticipated consequence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6, 641-69.
- Krupnick, C. G. (1985). "Women and men in the classroom: Inequality and its remedies." *On Teaching and Learning*, May, 18-25.
- Kuh, G. D., Schuh, J. H., Whitt, E. J. & Associates. (1991). *Involving Colleges: Successful Approaches to Fostering Student Learning and Development Outside the Classroom*. San Francisco: Jossey-Bass.
- Lasser, C. (Ed.). (1987). *Educating Men and Women Together: Coeducation in a Changing World*. Urbana, 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1999).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Washington D.C.: Depart of Education.
- Pascarella, E. T. & Terenzini, P. T. (1991).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Findings and Insights from Twenty Years of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 Pascarella, E. T., Whitt, E. J., Edison, M., Nora, A., Hagedorn, L. S., Yeager, P. M., & Terenzini, P. T. (1996). "Women's perceptions of a chilly climate" and their cognitive outcomes during the first year of colleg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Memphis, TN.
- Riordan, C. (1994). "The value of attending a women's college: Education, occupation and income benefit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5, 486-510.
- Riordan, C. (1992). "Single-and mixed gender colleges for women: Educational, attitudinal, and occupational outcome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15, 3, 327-346.
- Sadker, M. & Sadker, D. (1994). *Failing at Fairness: How Our Schools Cheat Girl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anford, N. (1962). *The American College: A Psychological and Social Interpretation of the Higher Learning*.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Scheye, P.A. & Gilroy, F. D. (1994). "College women's career self-efficiency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 244-51.
- Schlossberg, N. K. (1989). "Marginality and mattering: Key issues in building community." In D. C. Roberts (Ed.), *Designing Campus Activities to Foster a Sense of Community*.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s. No. 48. San Francisco: Jossey-Bass.
- Schlossberg, N. K., Lynch, A. Q., & Chickering, A. W. (1989). *Improving Higher Education Environments for Adults: Response Programs and Services from Entry to Departure*. San Francisco: Jossey-Bass.
- Sebrechts, J. S. (1993). "Cultivating scientists at women's colleges." *Initiatives*, 55(2), 45-52.

- Smith, D. G. (1995). "Organizational implications of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In M. Chemers, S. Oskamp, & M. Costanza (Eds.), *Diversity in Organizations*. Park, CA: Sage Publishers.
- Smith, D. G. (1990). "Women's colleges and coed colleges: Is there a difference for wome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1, 2, 181-197.
- Smith, D. G. and associates. (1997). *Diversity Works: The Emerging Picture of How Students Benefit*.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 Smith, D., Morrison, D., & Wolf, L. E. (1994). College as a gendered experience: An empirical analysis using multiple lense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5(6), 696-725.
- Solnick, S. J. (1995). "Changes in women's majors from entrance to graduation at women's and coeducational college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8(3), 505-14.
- Speizer, J. (1981). "Role models, mentors, and sponsors: The elusive concept." *Signs*, 6, 176-182.
- Talbot, M. (1994, November, 20). The gender trap. Are women's college bad for women? *Washington Post Magazine*.
- Tidball, M. E. (1983). "The ideal gas, a critical mass, and homeostasis." *Women's Studies Quarterly*, 11, 2, 5-7.
- Tidball, E., Smith, D., Tidball, C., & Wolf-Wendel, L. (1999). *Taking Women Seriously: Lessons and Legacies for Higher Education from Women's Colleges*. Phoenix: AZ: ACE/Oryx Press.
- Tidball, M. E. & Tidball, C.S. (1994). "Population demographics and the search for gender equity." Paper presented at Women's College Coalition Conference, Mount Holyoke College, South Hadley, MA.
- Whitt, E. J. (1994). "I can be anything! Student leadership in three women's colleg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5, 198-207.
- Whitt, E. J. (1992). "Taking women seriously: Lessons for coeducational institutions from women's colleg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Minneapolis, MN.
- Wolf-Wendel, L. E. (1998). "Models of excellence: The baccalaureate origins of successful African American, European American and Hispanic women."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9, 2, 144-172.